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

“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

요즘 1980년대를 배경으로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목길에 사는 이웃끼리 음식과 정을 나누는 모습에 향수와 공감을 느낍니다. 통계조사환경도 그 당시가 좋았다고 합니다. 가구 응답자들이 조사직원을 친근하게 대해주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거환경이 크게 변하고 인심도 바뀌었습니다. 199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혼자 사는 가구와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세 배가 늘었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사라져갑니다. 통계조사직원이 방문해도 무관심하고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고용·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 국가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맞춤형 지역통계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통계조사직원들은 응답자와 소통하고 친밀감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금년도 통계조사 현장체험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를 담았습니다. 조사직원 부문에는 직원들이 조사현장을 다니며 겪는 애환과



보람, 열정과 노고가 녹아 있습니다. 새내기 직원들이 조사 중에 처음으로 겪은 좌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응답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응답자 부문에는 통계조사에 응답하며 느낀 소감을 현장감 있게 전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아 거부하다가 조사직원의 설득으로 응답하게 되고, 가계조사를 위한 가계부를 잘 활용하여 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

조사직원들이 이 사례집에 담긴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응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사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해져 가는 조사환경에서도 통계인으로서의 직업적 사명감과 열정으로 현장조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계청 직원들에게 문턱을 낮춰주며 부담스러울 수 있는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응답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통계청장 **유경준**

# C O N T E N T S



##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자 **농심!**



- 대 상** 한 기 숙 | 10년의 역사, 회수율 100% • 08
- 금 상** 김 송 은 | 세기(3기(氣))의 통계 : 열기 · 끈기 · 온기를 배우다 • 18
- 은 상** 김 윤 희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도 내 응답자들 • 30
- 동 상** 김 현 정 | 통계청, 너는 내 운명 • 36
- 동 상** 윤 용 근 | 고마워! 앵자 • 48

## 꿈을 담다. 내일을 열다.



- 장 려 상** 박 창 수 | 4개월 된 통계인의 성장기 • 62
- 장 려 상** 조 수 영 |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허브향기 • 75
- 장 려 상** 한 태 희 | 농촌의 한가운데서 통계청을 외치다 • 90
- 장 려 상** 이 현 숙 | 통계조사 그 속에 나의 열정을 담다 • 104
- 장 려 상** 정 수 진 | 좌충우돌 농업통계 현장적응기 • 113
- 장 려 상** 황보애숙 | 세 명의 아버지와의 소중한 인연 • 120
- 장 려 상** 김 은 슬 |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거야 • 127
- 장 려 상** 오 지 선 | 농업통계 새내기의 농촌 적응기 • 136
- 장 려 상** 김 수 연 | 줍줍쭈어~ 나마스떼~ 아빠까바르~ 안녕하세요~ • 145
- 장 려 상** 오 영 수 | 자란다, 잘한다! • 149
- 장 려 상** 장 미 진 | 농가경제 열정 100℃-나는 대한민국 9급 공무원이다 • 158



- 장려상 류문현 | 미션!! 아버님 마음 훑치기 • 171
- 장려상 심순연 | 무지외반증과 맞바꾼 불응 • 178
- 장려상 전현주 | 쓸데없는 조사가 아니에요~ • 196
- 장려상 이수연 | 담대해지는 날이 오겠죠? • 204
- 장려상 김을진 | 조사에 성공하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 212
- 장려상 정수경 | 회수율 높이기 70%에서 93%대로 • 219
- 자체시상 강신애 | 낯은 나무상자의 희망노래~ • 229
- 자체시상 김애야 | 좋은 통계란...? • 237
- 자체시상 홍석범 | 제주 토박이의 전라남도 적응기 • 246
- 자체시상 김철봉 | 가짜 촌놈이 진짜 농민이 되어갑니다. • 251
- 자체시상 김정종 | 20년 넘게 통계인으로 살아온 나의 뒀안길에서 • 257



내일이란 꿈이 있기에...



- 특별상 임미숙 | 야채가게의 미운 손님 • 226
- 특별상 조명순 | 기분 좋은 만남 • 272
- 특별상 김도환 | 가계부는 이제부터 내가 쓸게!! • 278
- 특별상 조희선 | 지긋지긋한 통계와의 두 번째 인연 • 284
- 특별상 남영순 | 나의 생활, 가계부 • 287
- 특별상 박말순 | 30년 만에 쓰는 첫 가계부 • 291
- 특별상 장희진 | 비와 통계청 • 295
- 특별상 안재학 | 2만원이 주는 행복! • 301







#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는 힘!

‘가계부 회수율 100%’는 쓰디 쓴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열매인지라 더욱 감사하다. 줄곧 높은 회수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말자는 나와 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온 의지였다. 이렇게 10년 동안 이룬 나의 역사가 스스로에게 큰 힘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때로는 조사업무가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 느끼는 것도 많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 대상작 「10년의 역사, 회수율 100%」 중에서 -

*Regret for a moment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b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b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 10년의 역사, 회수율 100%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하나

호남지방통계청 한 기 숙

눈부신 햇살이 온 누리에 푹푹 떨어지는 가을...

어느덧 통계와 인연을 맺은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입사 후 계속 사회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몇 번의 표본조사 연동교체가 있었지만 감사 하계도 줄곧 ‘가계부 회수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가계부 작성률도 높은 편이다.

100%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들이 쓰기는 했지만, 더욱 당도 높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한결같은 노력의 단비를 뿌려야 하지 않을까 다짐해 본다.

현장조사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료 후배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계부 회수율 100%’를 향한 나의 열정이 묻어있는 불용가구 설득



과정에서 만들어 낸 통계수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분을 살며시 꺼내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노크도 없이 “저 왔어요!”하고 외치며  
익숙한 몸놀림으로 대문을 들어선다.

스스럼없이 안부를 여쭙는 것이 친정에 온 딸의 모습이다.

“아이고 이쁜 사람 왔는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굵은 손으로 마른 고추를 손질하다 말고  
늘 반갑게 맞아 주시는 어머니. 어머니의 고운 미소가 오늘따라 가을햇살에  
유난히 눈부시다.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떨어뜨리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작년 이맘때 연동표본 지역으로 조사구역이 바뀔 때였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를 맺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감한 사생활을 질문해야 하거나, 통계조사에 대한 이유 없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연동표본 지역으로 조사구역이 바뀔 때면 항상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연동초기 최초 면접부터 형성된 유대감과  
믿음이 3년이란 조사기간의 협조도를 결정짓는  
다는 것을 이미 경험에서 얻은 터라...

연동지역 출장에 앞서 요도를 확인해 보았다.  
광역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는 아주  
오래된 주택지였다. 선입견이지만 이곳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함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출장 첫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재개발 관련 현수막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당황스러웠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아니라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 양쪽에 들어서 있는 허름한 주택 사이로 조사구 주민들의 탄식이 새어 나오는 듯하여 발걸음이 무거웠다. 첫 방문의 나를 더욱 위축시킨 것은 한 집 건너 큰 개들이 사납게 짖는 소리였다.

조사에 앞서, 전문조사원으로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인지를 살피며 다시 한 번 나를 가다듬었다. 조사구 특성상 가구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세미정장 수준의 의상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응답자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 스스로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사에 임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은 울렸지만 집안에선 인기척이 없었다. 마당에 매어둔 큰 누렁이가 초인종 소리에 놀랐는지 울부짖듯 짖어대기 시작했다. 순간 놀라 무서움에 움찔 멈추어 몸을 숨겼다.

지난해 언젠가 조사차 방문한 가구에서 풀려있는 개에 물려 몇 달간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개가 많은 주택지는 늘 조심스럽기만 했다. 개 짖는



소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의 주인인 듯한 여자가 “뿔이여?!”라며 통명스럽게 방문을 열어 재깁다.

우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소속과 이름을 명확하게 밝혔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 방문목적은 짧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혔는지, “우리 가족은 글도 제대로 모르고 나이가 많은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다른 집이나 하시오!” 하면서 문을 확 닫아 버린다.

이내 당황하여 “다음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황급히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귀찮다는 듯 짜증과 피곤함이 묻어나는 반응에 더 이상 말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여 잠자코 발길을 돌렸다. 투박한 생김새의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쓰린 가슴을 안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그 아주머니가 아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분명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 해 보았다.

보기 좋게 설득은 실패했다. 그렇다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다음을 기약하며 일부러 여유 있는 미소를 날렸다.

그날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웃음치료와 도형심리분석사 강의를 들으며 한바탕 큰소리로 반복하여 웃어 보았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희망이 되리라. 스트레스를 잠시 웃음 속에 묻어두었다.

현장조사원은 다양한 환경, 연령,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과 전혀 다른 생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서 주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계발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평소 문화센터를 자주 기웃거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의 웃음치료는 명약과도 같다.

그날 이후 출장 시 그 가구를 지나칠 때마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생각나 과자와 학용품을 조금 준비했다. 어른신이 좋아할 만한 음료수며 사탕도 틈틈이 챙겨드리면서 딸처럼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며 마음을 전했다.

한 두 달이 지나자 골목에서 손주가 나를 보고 아는 척 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내 모습이 좋아 보였을까? “그래, 내가 뭘 해주면 될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셨다.

어르신 이야기들을 들었다. 아들은 몸이 불편해 일을 못하고 있고, 며느리는 외국인으로 말이 서툴러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당신까지 몸이 아파 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 하신다.

이혼한 아들의 애들까지 맡고 있어, 이웃에 자존심도 상하고 동네에 그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스러웠던 것 같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도 있고 해서 처음에 못되게 굴었다고 하신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내내 그분의 가슴속에 들어 있는 돌덩이가 내게 느껴지는 듯 했다.

며칠 후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몰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가구 상태를 말씀드리니 다문화가구를 위한 재활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뭉뚱이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어르신 가구에 알리게 되었고, 드디어





외국인 머느리가 아파트 청소일을 하게 되었다.

난 그 맥에서 대단한 선생님 대접을 받게 되었고, 어느새 나이 어린 외국인 머느리와는 조사관과 응답자의 관계를 넘어 언니 동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며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시며 내밀던 첫 달 가계부. 가계부를 펼쳐보며 해냈다는 뿌듯함과 감동으로 소리 없는 감사의 눈물이 마음을 적셨다. 서툰 글씨로 작성한 가계부를 볼 때면 따스함과 정이 묻어 있는 담요처럼 푸근함이 담겨 있어 고마움과 감사함이 절로 느껴졌다.

통계조사 자료만 받기 위해 급급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아픔을 진정 헤아려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길러, 응답자들이 꺼내기 어려운 속 깊은 얘기도 함께 나누며 때론 상담사, 딸 등 역할까지 대역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현장 조사의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조사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위대한 것 치고 정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소중히 간직해 온 각양각색 사연 중 절로 미소짓게 하는

‘차도녀’를 꺼내본다.

그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30대 직장여성이다. 교양 있는 자세로 정중히 거절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실정이라 도저히 가계부 쓸 여유가 없다. ‘가계부 회수율 100%’ 고지를 앞에 둔 나의 마음을 상당히 줄이게 했던 가구다.

응답자는 매몰차게 몇 번 거절을 하면 조사자가 쉽게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때는 쉽게 물러설 조사관이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이런 경우 “표본가구가 이사를 가지지

않는 한 계속 설득을 드려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설득은 대부분 거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선뜻 응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선 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관리실에서 같은 라인에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옳거니, 먼저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현관문 두드리기를 수차례, “주말까지도 못 쉬고 왔냐?”며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윽고 문을 열어 주셨다. 전보다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조사원이 딸처럼 느껴져 안쓰러웠다고 하신다.

부모님이 손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어머님이 거의 딸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님께 딸의 공과금 영수증을 모아줄 것과 딸을 대신하여 가계부를 써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점차 딸이 가계부를 쓸 수 있게끔 설득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두 달은 부모님들을 통해 가계부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그 후 부모님의 부탁으로 딸이 전자가계부를 쓰게 된 가구이다.

딸은 ○○화재 본사직원으로 나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다.

딸과 차 마실 기회가 있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께서 본인이 가계부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사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같은 직장인의 마음으로 협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에게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성공할 것이다’라며 미소 짓는다.



이야기 도중 가구주가 인테리어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공유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서로 동질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금방 친해졌다. 조금은 냉정하고 까칠한 사람도 어떤 한가지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금방 가까워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나의 금쪽같은 휴일을 모두 반납하며 얻은 또 하나의 쾌거였다.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커다란 보람도 느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공감하며 소통하자**

추억 속 통계 인연 중 가슴 아팠던  
사연을 펼쳐 보일까 한다.

새로 이사 왔다는 정보를 같은 조사구 협력자인 이웃가구를 통해 듣고 문을 두드린 지 수 차례. 그러나 결코 집안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요일을 달리 하여 토요일 방문한 어느 날, 이윽고 아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주가 입원중이라 한다. 학생의 얼굴도 밝아 보이지 않고 웬지 조사를 꺼리는 눈치다.

다음날 상품권과 음료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침대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얼른 파악하고 응답자일 듯한 여자를 향해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말을 건넸다.

뭔가 안다는 듯이 그리 낯설어 하지는 않았다. 나중이야 들었지만, 그동안 내가 방문하면서 남겨둔 메모와 편지글을 다 보았다고 한다. 본인의 처지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 일부러 피했다 한다.

응답자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말 못 할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출장을 다녀온 후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친인척 병문안 가듯이 자연스럽게 방문한지 세 번째 되는 날. 그날은 조사자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는지, 아이 어머니는 가슴 한편에 가득했던 자신의 처한 상황과 하소연을 하며 속내를 드러내 주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얼마 전 사망하여 기존에 살던 집을 부랴부랴 팔고 이사 오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몸이 안 좋아 수시로 병원을 들락거리며,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진다고 한다. 이 와중에 무슨 가계부 쓸 마음의 여유가 있겠냐고 반문한다.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과 그녀가 처한 현실이 너무 딱해 가슴이 멍멍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가슴앓이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만 했던 것 같다.

그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정리되면 영수증이라도 모아 달라 어렵게 부탁하고 왔다. 되돌아오는 내내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나의 성격이 조금은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두 달 후, 말일쯤에 가계부 가져가라 문자가 왔다.

그 당시 나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 한다. 공감, 그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위로가 된 모양이다.

조사원이기 이전에 나도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이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여자에게 가능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그녀를 대했다.

응답자와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 주었던 그녀의 가슴앓이가 가계부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인간적인 믿음을 갖도록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게 그녀에게 통했었나 보다. 진심이 담긴 나의 노력이 그녀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지 않았나 싶다.



### 열정이 빛은 빛나는 수확물

‘가계부 회수율 100%’는 쓰디 쓴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열매인지라 더욱

감사하다. 줄곧 높은 회수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말자는 나와야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온 의지였다.  
이렇게 10년 동안 이룬 나의 역사가 스스로에게 큰 힘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때로는 조사업무가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 느끼는 것도 많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조사구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이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되는 원천이  
됨을 느낀다. 또한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정책수립  
방향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면 자부심이 생긴다.

오늘도 퇴근시간에 방문해야 할 가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로등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누빌 때면 여지없이 개들이 합창하듯이 짖어댄다.

가끔씩 등이 오싹해질 때도 있지만 특유의 긍정 에너지와 당당함으로  
오늘도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장을 뛰어본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보면서...

끝으로 나의 가계부 회수율에 기여해 주신 조사구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보내고 싶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



ITEM



# 세기(3氣)의 통계 : 열기·끈기·온기를 배우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들

동남지방통계청 김 송 은

아직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가을날, 나는 통계 공무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섰다.

“통계직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였고 그 중에 정책론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이 저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그 시대의 현황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통계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표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 통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가 직접 수집하고 만들어, 좋은 정책에 활용된다면 평생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당찬 포부와 함께 나는 12월 겨울 김해



사무소 사회통계팀으로 발령받았다.

예상보다 추웠던 그 해 겨울만큼이나 싸늘했던 나의 첫 현장조사는 어느 덧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처음의 어색함을 점차 벗어내고 점점 뜨거워져가고 있다. 미숙하고 짧았던 9개월의 현장조사 기간 동안 만난 조사구 분들을 통해 나는 열기, 온기, 끈기라는 3가지 기(氣)를 배우게 되었다. 나를 언제나 씩씩하게 현장으로 나가게 해줄 이 3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 열기(氣)를 배우다.

김해사무소에서의 첫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 여러 준비를 해보던 나는

연수원에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들었던 조사구 사람들의 불응사례들이 떠올랐다. 불응사례들을 들으며, 내가 만약 가계조사를 하게 된다면 불응 가구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조사에 응하는 분들의 편의를 봐드려 번거롭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첫 조사를 나가는 후배가 걱정이 되었는지, 많은 선배님들이 나에게 “담당자가 바뀌면 불응 하려는 집도 더러 생기니, 분위기를 봐서 응답을 거부하려고 하면, 세세하게 질문하려는 것보단 대략적인 질문으로 빠르게 조사를 끝내는 것이 불응가구를 줄일 수 있을 거야”라며 현장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 주셨다.

그렇게 선배님들의 조언을 떠올리며, 나는 처음 배정받은 조사구로 출발하였다. 첫 조사를 나서는 나의 가슴은 설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였지만, 조사구분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서툰 조사원이라고 혹여,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내가 인계받은 조사구 가구에는 추운 겨울, 붕어빵을 파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다. 따뜻한 붕어빵만큼이나 밝은 표정으로 조사에 응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셨다. 그런 고마움에 나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종종 붕어빵 파는 아주머니께 일부로라도 들러 딱딱딱한 붕어빵을 다른 응답자분들에게 사다드리기도 하였다.

그날도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구를 들르는 날이었다. 조사 업무 때문이지만 나는 빈손으로 아주머니를 방문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급히 음료수 몇 병을 손에 들고 아주머니의 가게로 향하였다. 나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추위를 쫓아내 줄 붕어빵 몇 개를 주문 한 뒤, 붕어빵이 바삭바삭 익어가기를 기다렸다. 붕어빵이 익어가는 동안 나는 아주머니께 살갑게 인사를 건넸고, 내가 말을 걸어주길 내심 바라셨는지, 설 새 없이 돌아가는 붕어빵 틀처럼 아주머니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조사에서는 휴학 중이었던 아주머니의 딸은 몇 달 전 자퇴를 한 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 남편이 몸이 아프게 된 후 어렵게 살아온 사연, 추운 겨울 붕어빵을 굽게 된 이유 등 이전 조사 땀 알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나는 내심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뜨거운 붕어빵의 열기가 더해져서일까? 나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고 나의 조사에도 확신을 가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 내가 편해지시니 말씀이 나오시는구나!’

그래! 이게 현장조사 방법이구나.’





붕어빵 아주머니와의 수다는 나의 조사 스타일을 바꿔놓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여태 고수해온 사무적이고 소극적인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갔다. ‘변동 없어요’라는 한 마디만 하고 닫히는 가구의 문을 잡아 용기 내어 조금 더 물어보고, 씩씩한 동생, 이웃처럼 다가가니 응답자 분들도 점점 더 마음을 열어 주셨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인사에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 더 응답해줄 것은 없는지 먼저 다가와 주시기도 하신다. 나는 한겨울의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은 조사구 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열기를 가지고 오늘도 씩씩하게 현장으로 나선다.



### 온기(氣)를 배운다.

한글을 모르셔서 매일 전화 받아 쓰기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할머니가 계셨다. 이 할머니의 가계부는 두부, 병원비, 약값, 버스비, 목욕비 이렇게 5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할머니 오늘 사신 거 없으세요?”

“아무것도 안 샀다.”

“에이~~두부도 안사셨어요?”

“어. 두부도 안 샀다.”

“우리 할매는 이슬만 먹고 사는갑다.

할매 이렇게 잘 안 드시니깐 맨날 어지럽다 하지요.

할머니 오늘은 병원 안가셨어요?”

“병원은 갔었다.”

“버스타고 가셨겠네요?”

“어. 버스비 왔다갔다 2200원”



할머니와의 전화통화는 매번 이렇게 끝이 나곤 했다. 내가 먼저 묻지 않으면 항상 아무데도 돈 쓰신 것이 없다는 할머니, 이 대책 없는 할머니의 가계부에 대해 선배들과 상의를 해보니 “네가 할머니 댁을 자주 가서 텃밭에 혹시 심어진 것은 없는지, 집 안에 못 보던 물건이 생기진 않았는지 잘 살펴봐.” 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들은 후 좀 더 자주 할머니 댁을 방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날 나는 어제 선배들의 조언이 떠올라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 선배들 말씀처럼 주변에 못 보던 것이 있진 않은지 확인도 해보고, 예전엔 눈여겨 보지 않았던 텃밭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텃밭을 보니 정말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상추였다.

“할머니~ 이거 상추 키우시는 거예요?”

“응 시장에 갔다가 사다 심었다.”

“왜 이거 사신 거 말씀 안하셨어요?”

“내가 말 안했던가? 허허 적어가라. 상추 1000원.”

“내는 우리 할매 못 믿겠다. 이제 매일매일 와서 할머니 사신 거 찾아내야겠어요!”

“응. 니가 와서 다 잡아라. 허허~”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정말 할머니의 범행(?)을 속속 잡아내기 시작했다. 그 몇몇 범행들 중엔 할머니가 평소엔 무거워서 사기 힘들었던 설탕, 세제, 화장지 등을 아드님과 장을 보고 오시다 마주친 적도 있었고, 마트에서 산 생선과 육고기, 과일과 야채를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나에게 ‘적발’된 적도 있었다. 만약 내가 여태까지 전화받아쓰기로만 가계조사를 했었다면, 할머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두부만 드시고 계신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나의 빈틈없는 수사에 두 손 두 발 다 드신 할머니께서는 이젠 먼저 묻지 않아도 사신 것들을 빠짐없이 불러주는 성실한 응답자로 변하셨고, 나는 점점 가득 채워지는 가계부의 내용에 뿌듯함을 느꼈다.

한겨울, 할머니의 조사구를 처음 인계받았던, 그때의 서슬퍼런 동장군은 흔적도 없이 물러가고 초여름이 다가왔다.

추운 겨울, 내가 처음 가계조사를 시작했을 땐, 나는 통계청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의 일환으로 할머니를 대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한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를 대신해 우편물도 정리해 드리고, 맛있는 간식거리가 생각날 때면 할머니 댁에 꼭 챙겨서 방문하고, 할머니 역시 글을 읽어야 할 일이 생기면 스스럼없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엿한 할머니의 ‘손녀’로서 할머니를 대하고 있었다.

하루는 비가 엄청 내리던 날,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뭣 하러 왔느냐며 나를 정말 걱정해주셨다.

“이제 곧 장마철이 되면 니 힘들어서 어찌노.”

“아~ 할머니 여기 조사구는 이제 거의 조사가 끝나가고 곧 담당자가 바뀔 거라 아마 저는 장마가 시작될 즈음엔 여기 못 올 거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엔 서운한 기운이 역력했다.

“이제 못 보나? 서운하네. 니 오면 그래도 재미있고 손녀 같아서 마음이 정말 편했는데,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종종 오이라.”

이렇게 할머니와의 짧은 인연도 지나긴 장마의 시작과 함께 끝이 났다. 이젠 할머니는 새로운 담당자를 만났고, 나 역시 새로운 조사구를 만났다.

나는 항상 다른 조사구를 방문할 때면, 할머니와의 만남을 떠올린다. 할머니의 부실했던 가게부가 가득 채워져 나갔던 것처럼, 이번 조사구의 가게부도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가게조사는 무엇보다도 조사구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온기가 필요한 일임이 틀림없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보인다는 것은 특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현장조사원분들이 단지 낯선 직원으로서 조사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 닿는 구석구석 온기 가득한, 마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조사구를 대한다면, 서로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가게부가 아닌, 정말 서로의 온기가 담긴 진솔한 가게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단순한 진리,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그 단순한 진리를 나는 첫 조사구 할머니와의 인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덩달아 온기까지 말이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조사구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름의 햇살보다 따뜻한, 이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 끈기(氣)를 배우다

전출입이 잦고, 주 연령대가 30~40대인 아파트 조사구가

있었다. 이사가 잦아서일까? 대부분의 가구는 현장조사에 대해서 통명스럽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 가구의 젊은 아기엄마는 나의 조사에 다정하게 응해주셨다. 나는 실사기간이 다가오면, 다른 가구들의 무뚝뚝한 반응을 이겨낼 용기를 얻기 위해, 다정한 아기엄마 가구부터 실사를 시작하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그 날도 어김없이 다정하게 응답해주던 그 가구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가구 앞에 도착하고 보니, 익숙했던 유모차 대신 처음 보는 휠체어가 놓여져 있었다. ‘혹시 이사 가셨나?’

“여보세요 언니 저 집 앞이에요.”

“응~ 우리 집 이사 갔어. 내가 지금 주소 보내줄게 여기로 와요.”

“언니~ 저희는 사람 따라 조사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사시는 분을 조사 하는 거라 이제는 조사대상이 아니셔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조사구 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통계조사에 호의적인 분이 이사 오셨길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땡동 땡동’

“누구세요?”

“통계청입니다. 잠깐 얼굴 뵙고 인사드릴게요.”

큰 수술을 하셨는지 목에 깊은 흉터가 있는 아주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나와 현관문을 열어주셨다. 난 아주머니의 호의적인 눈을 보고 용기 내서 방문목적과 앞으로의 통계조사에 대해 설명 드렸다.

“3년? 아휴, 귀찮아. 나 못 해~ 못 해.”

아주머니께서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은 못하신다고 하셨지만, 호의 가득한 눈과 부드럽게 지으시는 미소를 보며 나는 한 번 더 용기 내어 “이사 오셨으니 어쩔 수 없어요.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만나요~”라며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고, 다행히도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야호!! 전입 잡았다. 역시 좋으신 분이 사시던 곳이라 좋으신 분만 오시는 구나’ 전입가구를 잡음으로 생긴 나의 용기는 불용가구의 문도 한 번 더 두드려보는 용기로 이어졌다. 그 전입가구조사를 한지 약 30여분 지났을 쯤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조금 전 조사한 전입가구 아주

머니가 조사에 응하지 못할 것 같다고 사무실로 전화가 왔으니,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아주머니 댁을 다시 방문하였다. 그런데 다시 대면한 아주머니의 눈은 선한 빛은 온데간데없고, 싸늘하게 변해있었다. 아까와는 달라진 아주머니의 태도에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며, 다시 아주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대화가 오가며, 아주머니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자녀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정을 듣고 보니, 불응하는 이유가 십분 이해가 되었지만, 한 번 더 아주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해 보았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평소에는 집에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은 귀찮게 하지 말라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다. 나는 계속 아주머니를 설득하려 한다면 더 완강하게 거부 하실 것 같아, 다음 실사 때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조사를 마쳤다.

다음 달 실사기간이 되었다. 나는 조사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아파트 현관을 나오고 계시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차에서 뛰어내려 ‘어머니’하며 달려갔다. 나를 보시고 활짝 웃으시는 아주머니께 ‘저 지난달에 뵈었던 통계청 직원 이에요.’라고 하자 아주머니의 눈빛은 다시 무섭고, 싸늘하게 변하였다.

“아휴, 가세요. 그냥.”

“어디 가세요? 산책 가세요?”

“쓰레기 버리러가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제발 좀 가세요! 가! 정말 너무 너무 싫어요.”

아주머니는 아파트 주차장 한 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다. 순간 나는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있었고, 때마침 그 장면을 보신



조사구의 다른 응답자분이 나에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그냥 가라는 손짓을 보내셨다.

나는 불같은 아주머니의 거부로 그 달의 조사는 불운처리 하였고, 다음 달에는 꼭 조사에 응하시도록 설득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 맥을 찾아갔지만, 예상대로 ‘가세요’라는 목소리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직접 대면하는 것 보단 메모를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 아주머니의 휠체어 위에 올려 두었다.

그러나 그 뒤에 온 아주머니의 문자 메시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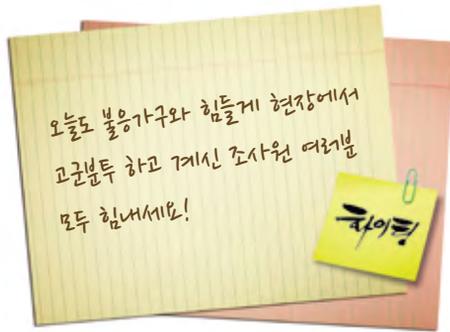


아주머니의 답장을 받은 그날은 너무나도 힘이 빠지는 하루였다. 그렇게 나는 무기력하게 사무실로 돌아와 아주머니를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았다.

처음엔 다정다감하게 반겨주시던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을까. 조사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으로 들렸던 것일까? 내가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말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나는 아쉬움들을 뒤로 하고, 그 후에도 아주머니의 응답을 받아 내기 위해 몇 번 더 찾아갔으나 언제부턴가 아주머니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시면 불편한 몸으로 오시던 길을 되돌아가셨다.

그 후, 어렵게 연락이 닿은 아주머니는 이사를 가셨다고 한다. 나는 아주머니의 차가운 모습에 주눅 들어 좀 더 끈질기게 조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반성해보았다.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끈기’ 라고 했던가, 지금 비록 내가 지닌 이 ‘끈기’라는 무기가 아직은 많이 무더 불응가구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 끈질기게 나의 ‘끈기’를 갈고 닦아 모든 불응가구의 ‘응답’을 받아내고 싶다.



**열기 온기 끈기**  
**이 3氣와 함께라면...**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배우게 된  
3가지 기(氣), 열기! 끈기! 온기!

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현장조사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뜨거운 열기를 지닌 조사원이 되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따뜻한 온기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진솔한 응답을 이끌어내고, 불응에 주눅 들지 않는 끈기로 끊임없이 불응가구의 문을 두드린다면, 내가 꿈꾸는 자부심 넘치는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연수원 첫날, '통계란 나에게 OO 이다'를 작성할 때 망설임 없이 '통계는 나에게 자부심이다'라고 적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인 자부심 넘치는 통계를 위해 나는 열기·온기·끈기 이 3氣를 모두 쏟고 싶다.





은상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도 내 응답자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셋

동북지방통계청 김 윤 희

속으로 욕이 나왔다. 오늘이 또 욕먹는 그 날인가 싶다.

오늘 아침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정부 정책 관련 기사가 뭐라고 떠든가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자니 사장님의 목소리가 저만치 희미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때문인가? 아니, 그건 저번 달에 나온 거다. 내수가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기사인가? 그건 새로운 것도 없구만... 뭐지... 뭐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따구 통계조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퍼뜩 정신이 들었다. 잘 대답해야 한다. 꼬투리가 잡히면 한 시간은 죽히 듣게 될 거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한다.



“하하... 사장님~ 뉴스에 난리가 났나 봐요~ 통계조사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좀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하”

“내가 보니까 다 헛짓거리야. 통계조사 한다고 귀찮기만 하지, 뭐 하나 혜택 주는게 있어 뭐가 있어?!”

실패다...

어르고 달라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가며 한참을 사장님 말씀에 과할 리액션을 하고 나서야 겨우 지난달 매출액을 알려주신다. ‘이정도 리액션을 우리 어머님께 해드렸으면 어머님께서 그 아픈 다리로도 나를 업고 다녔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사는 했지만 입 안이 씹쓸하다.

소비자물가조사다, 서비스업동향조사다, 매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 월급은 거지 얻는 거다’ 싶을 정도로 친절한 응답자도 있고, 차에 타자마자 조사기록부를 패대기칠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못된 응답자도 있었지만 새삼 뒤돌아보니 내가 만난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세 가지 유형으로 모아지는 듯하다.

앞선 일화의 사장님같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박학다식함으로 표현하는 응답자 유형이 있다.

처음 통계조사를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응답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에 바쁘다. 어설픈 반대 의견을 냈다간 1시간 동안 실랑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당당히 통계조사 하십시오. 조사자들이 ‘자료 좀 주십시오’ 낮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얘기를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막상 정부라는, 또 통계청이라는 조직의 제일 앞에서 응답자의 불만을 맞닥뜨리게 되면 뺏뺏하던 어깨는 저절로 굽어지게 마련이다. ‘이판 통계조사 해서 국민의 생활이 엄청나게 나아졌나요?’ 비아냥거리는 응답자에게 불같은 내 성격대로라면 응답불응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매기거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의 심정으로 한판 뜨는 게 순서겠지만 결국 응답자의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불만을 들어주고 동조하다 보면 응답자도 기분이 풀어져 결국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준다. 매번 조사 때마다 그러거나, 어쩌다 한번 그러거나 이런 유형에는 결국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정답’이다.

어떨 땐 차라리 불만이라도 얘길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하면 자료는 보낼 테니 오지 말라고 하고, 막상 자료를 기다리면 마감일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다른 직원들은 시스템에 ‘완료’가 떠있는데 내 대상처만 미입력의 파란색이다.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겨우 번호를 눌렀건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שמ으로...” 안 받는다.

‘감감무소식형’은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이지만 대개 업무가 바빠 통계조사는 ‘처리해야 할 일’ 우선순위에서 즉각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바쁘니 방문하는 것도 싫어한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무작정 회사로 찾아가고... 결국 자료는 받았지만 마치 내 자신이 빗쟁이가 된 기분이다. 나야 생업이지만 응답자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한 달마다 추가 업무가 늘어난 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편지로 썼다.

남편과 연애하면서도 한번 써보지 않았던 편지를 응답자에게 편지지 색깔까지 골라가며 구구절절 쓰고 문화상품권도 사서 ‘아내분과 영화 한 편 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넣었더니 의외로 먹혔다. 직장과 가정을 꾸리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30대, 40대로서 느끼는 동질감이 응답자를 움직이게 한 듯했다.

이제는 ‘벌써 7월이 되었네요. 1월에 했던 다짐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가 싶은 마음에 괜스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라는 메일 한 통에 응답자도 답장 한 줄, 조사표 한 장을 보내준다. 물론 마감 전날에 말이다.

사실상 나에게 가장 많은 응답자 유형은 ‘너라도 사라형’이다.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처에,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처 등등... 합치면 대상처 수가 100개가 넘는다. 그 대상처의 모든 응답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다. 모른 척 하기가 어려워 한 개, 두 개 사다보니 어느새 집 안 곳곳에서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동향 조사대상처에서 남편에게 먹이면 좋다고 등 떠밀려 산 ‘홍삼정’은 냉장고에서 돌이 되어가고 있고, ‘남편만 먹으면 되느냐 자기 몸도 챙겨야지’란 말에 산 ‘당귀 액기스’는 반도 못 먹고 유통기한이 지났다. 핸드폰을 신형으로 바꿀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대리점을 전전하며 가격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내 대상처에서 사야 되니까...

돌이 된 홍삼정



‘똑똑한 소비자(Smart Consumer)’는 고사하고 제대로 ‘호갱님(호구 +

고갱님)'이 될 때가 많으니 남편도 보다 못해 한 소리할 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드럼 세탁기'를 샀을 때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다.

물가조사 품목 중 가전제품 종류는 한 대상처에서 대개 20여개를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도 귀찮아 썩한 얼굴을 하기 일쑤이고, 덩달아 물어보는 내 얼굴도 점점 굳어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사를 좀 편하게 해보려는 마음에 호기롭게 '드럼 세탁기'를 샀다.

“아~ 이거 진짜 잘해드리는 거예요~ 마침 진열상품 특가 행사 중인데 특별히 점장 할인까지 더 해드려서 135만원이면 진짜 잘 사시는 거예요~”

응답자의 추임새에 내 마음도 '붕붕' 떠올랐다.

문제는 3주 뒤에 생겼다.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갔다가 우연히 지나간 가전제품 판매장에서는 그 모델이 “특가 96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그걸 본 남편은 안 좋은 목소리로 타박을 하기 시작했다.

‘싸게 산거라더니 40만원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물건을 살 땐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사야지 너무 선뜻 사는 것 같더라’ 평상시 같으면 지지 않고 대꾸할 것을 아무 말도 안하고 듣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조사 좀 편하게 하겠다고 대상처에서 산 걸 가지고

그리 타박을 주느냐, 내 마음이 40만

원보다 못하느냐, 설령

400만원이 차이가 나더

라도 사 줄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우는 목소리로 끄억

끄억대며 애길하자 남편도 더

이상 타박하지 않았다.





한달에 네번은 가는 정육점



꽃집에 물가조사하러 갔다가 산 화분들...

그 후로도 여전히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다.

어떨 때는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어떨 때는 하나라도 팔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여러 물건들을 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냥 호갱님이 되기보다는 ‘특별히 사장님께 사는 거예요’ 생색도 내고, ‘에이~ 나한테 좀 잘 해주셔야지~’ 실랑이도 하며, 응답자와 주거나 받거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응답자들과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한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리라 생각한다. 박학다식형이든, 감감 무소식형이든, 너라도 사라형이든... 어떤 유형이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통계조사에 호의적이길 바란다.

그래서 박학다식형 사장님을 만나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감감무소식 응답자와는 직장이나 육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너라도 사라’형 응답자가 파는 물건들을 다 사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말도 많고 그래서 탈도 났었지만 그래도 내 응답자들이 한결같이 응답해 주길 바란다. 내가 그들에게 통계조사원이기 전에 그들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알아주길 기대해본다.



# 통계청, 너는 내 운명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넷

경인지방통계청 김 현 정



## 우연인가 운명인가!

출근 전, 저는 매일 아침 식사를 대신하여 토마토를 갈아 마십니다.

이 편리하고 사랑스러운 미니 믹서기는 제가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가전제품으로, 제가 대학생 때 엄마가 통계청에서 받은 조사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남동생이 살고 있는 00시저의 시골집은, 통계청의 조사필수품이 현물이었던 시절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였습니다. 사실 저는 타지생활을 하느라, 시골에 계신 엄마가 수년 동안이나 통계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습니다.

다만, 방학 동안 집에 가 있을 때, 엄마가 웬 낯선 아주머니를 요란스럽게 반기시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입니다. 제가 통계청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에도 그렇게 ‘통계청’은 항상 저의 삶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2014년 12월 17일부로 가계동향조사를 맡은 통계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간간히 조사자와 응답자간 조사의 어려움이 생길 때, 최고의 표본가구였던 응답자 엄마와 생생한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축복받은 직원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마당에서 상추 뜯고, 고추 따면 현물로 2000원, 3000원 적어 줬지. 너 미국에 있을 때 보내준 용돈도 다 적었어.”

우리집 담당 공무원께서 얼마나 기입지도를 잘하셨는지, 엄마는 아직도 가계부 기입요령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통계청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 둔 명절날, 고모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는 조카인 저의 취업이었습니다. 고모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무원이 최고야’ 하며 공무원 공부를 권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싫어요! 제 사주엔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갖게 될 거래단 말이에요!” 그 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 공무원이라고 다 사무실에만 있는 공무원만 있는 줄 아니? 우리 집에 오던 통계청 공무원 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처음부터 통계청 공무원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들었던 ‘조사방법론’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며 들었던 ‘경영 통계학’ 수업이 저를 우연히 통계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통계청과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 믿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 원칙 1 조사안전제일주의

통계청 공무원이 되어 가구부문 업무를 맡게 되었고, 사주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문 안에서 '가라'고 소리치는 소리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순간들, 인기척은 들리는데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생전 당해본 적 없는 냉랭한 눈빛과 천대 등, 조사업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자랑처럼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직업에나 그만한 고통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요. 다만, 조사업무를 하며 저만의 원칙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조사안전제일주의' 입니다.

조사 2개월 차, 조사해야 할 전입 가구가 셋이나 있었는데 평일 출장 5일 내내 조사구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도통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황금 같은 일요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A, B, C 전입가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먼저 A가구에 방문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계십니까!"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다소 짜증스러운 목소리이긴 했지만, 드디어 누군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차 방문했는데요", "안 해요, 가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바쁘신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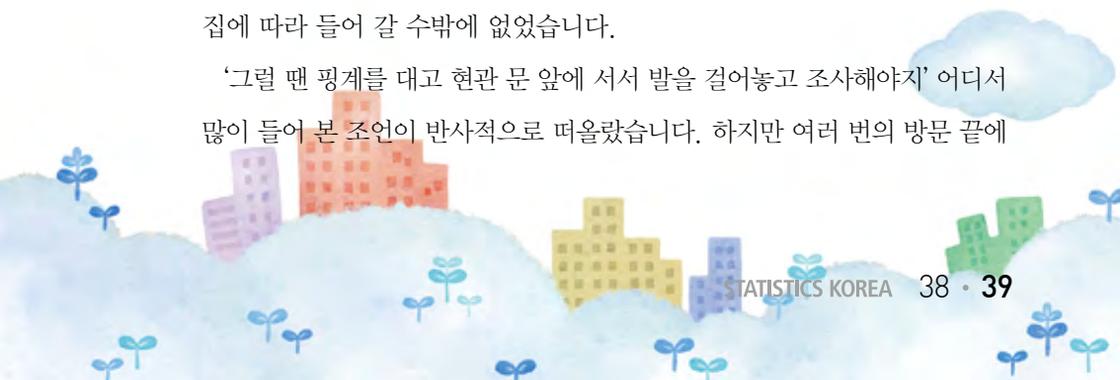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 때 고함 대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 한다니깐 진짜! 가라고요, 가라니까!” 형클어진 장발머리에 추리닝바람을 한 험상 굳은 남자가 뛰어나와 제 어깨를 밀어 버렸습니다. “가라는 말 안 들려? 안 한다고!” 순식간에 대문 밖으로 저를 떠밀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피 같은 일요일임에도 열심히 해보겠단 마음 하나로 조사구에 나왔건만, 설득해 볼 틈도 없이 ‘가라’는 고함만 듣다가 무참히 쫓겨나다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구로 이동하여 드디어 B가구주(50대/여자/심신장애)를 만났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기쁘기도 하고, A가구주에게 당한 설움이 갑자기 북받쳐 ‘감사하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한줄기 빛같은 B가구주의 위로를 받으며 다른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상태까지 순탄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C가구로 향했습니다. C가구주(50대/남자단독/일용)를 만났을 땐 그간 너무나 만나기가 어려웠기에 반갑기도 했지만 무조건 들어오라는 말씀에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들어오라 한다고 순순히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미련 맞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일단 집에 따라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땐 핑계를 대고 현관 문 앞에 서서 발을 걸어놓고 조사해야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조언이 반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방문 끝에



겨우 만난 가구였습니다. 또한 처음 전입 온 가구를 안심시키고 마음을 열게 해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구를 경계하여, 찬바람이 뽕뽕 부는 추운 겨울날 현관문 밖에서 신상 정보를 묻고, 경제활동조사까지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조사를 대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비록 C가구주(50대/남자단독/일용)는 친절하셨지만 C가구 문을 나서는 제 등골은 너무나 서늘했습니다. ‘공식적인 출장결재도 없는데, 주말에 나왔다가 조사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면서 늘 제 건강과 안부를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 동안 조사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곧잘 부모님께 전화하여 재잘거리던 저였지만, 위협했다는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이 첫 슬럼프로 찾아왔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불평은 생존의 위협과는 비할 수 없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주지? 그 땐 이미 늦었는데 누가 책임져 줄 수는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조사에 대한 책임감은 늘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있을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때 보다 더 조사업무가 싫었을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규 교육 기간 동안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의 단 1/10 번이라도, ‘안전하게 조사하라’는 염려를 들었더라면 그 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조차도, ‘사회과 직원들의 혼한 불평’으로 여겨질 것 같아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다 무슨 소용이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웠는데도 말입니다.



## 멘토는 최고의 지침서 1 '너 가면 나도 가는 거야'

이런 조사업무의 회의가  
저를 힘들게 할 때, 저에게

멘토가 생겼습니다.

제 나이 또래부터 조사를 해 오신 선배님과 이런저런 어려움을 나누며,  
동료들과 불평을 할 때와는 다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정, 잘해야 해” 멘토 선배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기분이  
좋아져,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거야” 멘토 선배  
님의 이 말 한마디에 조사에 대한 저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멘토·멘티 관계는 더욱 끈끈하고 돈독한 사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짜 공무원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직감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일요일, 저를 대문 밖으로 떠밀었던 00조사구의  
A가구주(40대/남자단독/비경)였습니다.

제가 전에 넣어놓은 통계청 홍보 팸플릿과 명함을 보고 전화하신 모양  
입니다. “진짜 공무원이면 지금 저희 집에 와보세요” 저는 당황하여 지금은  
출근 중이고,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은 후에 방문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 “보고 싶은데”, “지금 오면 안돼요?”, “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젊은 여자가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등등... 몇 분 동안 전화에 시달리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 상의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멘토 선배님이셨습니다. 출근길에 너무 놀란 상황을 주절주절 설명하고  
있는데, 때마침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겁에 질린 저를 대신해서 멘토 선배님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현정, 얼른 출장 달고 00동 갈 준비하자. 지금 오면 조사에 협조하시겠대”

전화를 끊자마자 멘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무관님, 꼭 가야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밀치셨다고. 인상도 하도 험하셔서 저 다음날 경찰청 홈페이지 가서 현상수배범 아닌지 사진도 찾아 봤어요. 술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가면 안돼요? 저는 무서워요”

조사구에서 겪은 불쾌한 일,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는 전화까지 받으니 저는 정말로 무섭고 가기 싫었습니다. 또한 제정신이 아닌 듯 해 보였습니다.

“가구가 오라고 하면 가야해.”

결국, 단호한 멘토 선배님과 함께 조사구로 향했습니다.

조사구를 가는 내내 1분에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와. 사람 갖고 장난 하나?’,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와서 후회 하지마라’ 등 아주 다양한 문자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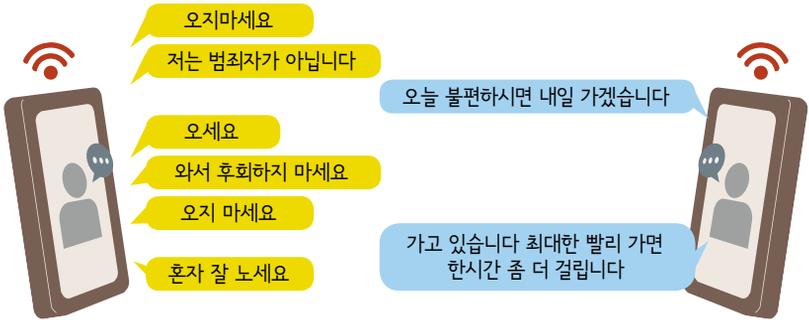
전화도 수없이 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멘토 선배님께 간청 하였습니다.

“주무관님, 전 정말 무서워서 못가겠어요. 우리 파출소 경찰관들한테 부탁 해서라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가 하도 간청하자 정 원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요란했던 A가구주의 문자와 전화가 잠잠해 진지 30분쯤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이 번호로 자기를 보이스포싱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알고 보니 A가구주가 조사구에 있는 파출소에 직접 가서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신고 사유는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보이스포싱을 하는 조선족인 것 같다’ 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경찰관께 상황설명을 드리고 안 그래도 파출소를 방문하여 동행요청을 드리려 했었다며 우리가 도착할 때 까지 A가구주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분들은 술 취한 A가구주의 행패에 화가 많이 나 있으셨습니다. A가구주는 제가 대문에 꽂아두었던 경제활동인구조사 팜플렛을 가지고 와 제 눈 앞에서 집어던지고, 저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바짝 다가와 “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당황스럽고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의 호통에 A가구주는 잠잠해졌고, 결국 경찰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못한 채 A가구주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멘토 선배님도 조사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는 커녕 제대로 말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 넘게 고생하신 경찰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해야 할 것 같아, 파출소에서 경찰관 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소사, 그 때 A가구주가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끔찍한 일들이 반복될까봐 심장은 견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제 앞으로 다가올수록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든든한 지원자이신 멘토 선배님이 옆에 계시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내 옆엔 이렇게 든든한 선배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섭던 A가구주가 조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바꾸어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제 하나를 해결하였지만, 앞으로 매 달 조사를 해야 하는 저에겐 큰 근심 하나가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조사는 했으니까.’



## 멘토는 최고의 지침서 2 ‘밀착 모니터링’

○○조사구 파출소 사건이  
있고나서, 저에게 ○○조사

구를 인계 해주셨던 선배 주무관님은 저에게 부쩍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XXX씨네는 어때요? 조사 잘 되요?” 조사구에 대해 항상 살뜰히 물어봐 주시고 저의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강경한 불응가구가 6가구나 되는 힘든 조사구이지만, 조사구 구석구석에서 선배님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응가구를 설득하려다 고초를 겪으셨던 얘기도 조사구 사람들에게 종종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무슨 인연인지, 제 조사구 바로 옆 조사구를 인수하셨습니다.

“○○동 언제 갈 거예요?” 그렇게 조사기간이 되면 짝꿍처럼 같이 다니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운명처럼 제 2의 멘토 선배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원이 바뀌자 조사필수품도 필요 없다며 문을 닫아버리시던 불응 가구도 함께 찾아가 다시 설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배 주무관님과 함께 조사를 다니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선배 주무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만큼, 조사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전입 들어왔어요? 못 만난다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밤늦게나,



주말이라도 가야지” 그러니 밤이라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주말이라고 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조사구에 대해 훤히 아시는 분과 늘 조사를 함께하니, 모니터링도 이런 밀착 모니터링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선배 주무관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니, 저도 이 선배 주무관님이 조사를 마치시기 전에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하시는 동안 멀리 숨어 있으면, “왜 나 조사하는 데 거기 숨어있어요? 보면서 배워야지” 하시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루는 선배 주무관님께서 전입 3가구를 조사해야 하신다며 밤 10시가 되도록 집에 가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꼼짝 없이 〇〇동 달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9시가 넘어도 모두 허탕이라, 내심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하셨으면...’ 했는데, 두드렸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셨습니다.

10시경이 되어서야 3가구 중 2가구를 겨우 만났습니다.

그 때가 선배 주무관님이 명예퇴직을 1달여 남겨 둔 때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따라 다니던 저였지만, 선배 주무관님의 모습에 감동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임식 날 마지막 인사에, “조사구에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요. 내가 언제든지 가출테니까” 하던 말씀 또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멘토는 최고의 지침서3  
‘1보 후퇴 후 2보 전진!’**

〇〇조사구에서 무시무시한  
파출소 사건을 겪고, 한동안

저는 황사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 조사구를 다녔었습니다. 혹시라도 A가구주를 마주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구를 길에서 마주



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며,

“이쁜 얼굴을 내놓고 다녀야지, 왜 다 가리고 다녀!”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쓰린 속을 쓰다듬으며 하하하 웃었습니다.

하루는 정류장 앞 슈퍼 노상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는 A가구주를 보고 다른 조사구로 바로 출행량을 쳤습니다.

지침서의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라는 지침을 되뇌이며 공식적인 후퇴를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저는 이 일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멘토 선배님께 고해성사하듯 고백했고, 이 고해성사를 들은 멘토 선배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정아, 그냥 네가 한 어린 여자라고 생각하고 조사 대상자를 대하면 당연히 무섭지.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이잖아. ‘공무집행을 하는 거다!’ 마음을 먹고 대상자들을 대해야 무섭지 않아.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를 공무원으로 대해 주는 거야.”

따뜻하고도 단호했던 멘토 선배님의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고, 그 이후 조사를 다니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으며 나도 모르게 당당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조사 업무에서 힘든 점 중 하나는, 노력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비하여 부족한 것은 너무나 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취감이나 자부심을 갖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조사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좌절감이 자주 드는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것은 <조사 지침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조사현장에서 가장 훌륭한 지침서는 ‘좋은 멘토’라는 <마음의 지침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조사 경력으로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조사도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구나’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는 조사구에 갈 땐 연약한 한 여자가 아닌, 당당한 국가공무원 김현정으로 변신하여 출동합니다.



### 운명은 아무도 모르게...

인간은 적응과 생존의 동물  
이라 그런지 지금은 조사하

면서 겪은 고마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보다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손님처럼 반겨주실 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며 ‘내 스카프 빌려줄까?’하실 때, 보조조사표 봉투에 과자까지 동봉해주실 때, 지난 번 무심코 ‘하나만 먹고 가라’해서 마음에 걸렸다면 오늘은 ‘실컷 먹고 가라’고 삶은 달걀 잔뜩 주실 때 등...

남산에서 제 뺨을 때리는 가구도 있지만, 한강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가구도 꼭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 통계청 미니 믹서기로 토마토 주스를 갈아 마시고 출근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 대상가구에서 현장조사 공무원으로, 통계청과의 인연도 이 소중한 미니 믹서기와 함께 어느 새 10년차입니다.

최고의 응답자였던 엄마, 최고의 조사필수품 미니 믹서기, 그리고 최고의 통계인을 꿈꾸는 김현정.

이만하면, 어쩔 수 없는 ‘통계청, 너는 내 운명.’



# 고마워! 앵자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다섯

충청지방통계청 윤 용 근



## 통계조사원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며칠 째 계속 이 생각뿐이다.

통계조사 경력 어언 이십여 년, 웬만한 사람 사이의 갈등을 수없이 겪고 풀었던 나이지만 이번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8월의 폭염 탓인지 〇〇면으로 가기위해 돌린 자동차 시동소리가 왠지 힘겹게 들려온다. 운전석에서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며, 벌써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

△철물점은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처이다. 70대 초반 할머니가 운영 하는 이 허름한 시골 철물점을 처음 봤을 때 이건 골동품 판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물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80년대에나 만들어 올린 듯한 낡은 아크릴 간판, 그 위에 너털너털하게 붙어 있는 두 자리로 된 전화번호 국번, 누구라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닫이문을 열 때 ‘뽀이익 뽀’ 하는 금속마찰음을 참아야 했고, 문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서 솟아오르는 파리떼를 쫓기 위해 연신 손짓을 해대느라고 주인 할머니가 코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를 정도였다.

“아, 글썽 안 한다니까 왜 또 온겨? 빨리 나가!”

예상했던 영접(?)이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이 더위에 멀리서 왔는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시고 얘기하세요.”

나 역시 세월로 담금질한 너스레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누가 니 어머니여? 글구 더우면 나가서 물 사 처먹어. 니 눈엔 저 앞에 구멍가게도 안보이냐?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할머니는 더욱 역정을 내신다.

“에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든 한 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이젠 뻔뻔함까지 들이댄다.

“됐어. 이놈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두 난 그 놈의 통젠지 뭔지 그거 안 할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나가!”

이제 할머니는 두 손으로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낸다. 칠순 넘은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강한 힘이다.

“알았어요. 어머니. 저 물 사먹고 올게요. 조금만 화 참고 있으세요.”

끝까지 눈웃음 치는 걸 잊지 않고 못이기는 척 내 쫓겨 주었다.

“아! 오지 말라니까 끝까지 발악이네. 이놈아 절대 오지마. 나 우리 앵자 밥해줘야 되니까, 오기만 해봐라 그 땐 진짜 사단나는 줄 알아!”

“누가 오기로 돼있나봐요. 아 따님이 오시나? 알았어요. 어머니. 나갈게요. 나가요.”



### 실망이란 이름의 암유발 물질

철물점 앞 구멍가게에서 생수 한 병을 사 입구 왼쪽에 붙어 있는 평상에 앉았다. 이제 나도 지친다.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응답자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보통 세 번 정도 방문해서 어떤 말이든 나누다 보면 작은 정이라도 생겨나 마지못해 응해주는 척하며 조사를 해 주곤 했었는데 이 번은 다른 것 같다. 마음 한쪽에선 자괴감마저 든다. 이건 고통이다. 통계조사로 밥 벌어 먹고 살아온 내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신세 참 처량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를 기르면서 항상 그들에게 강조해 오던 인생의 신조 중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었는데, 뜨거운 피약벌 아래 축 처진 아빠의 모습이라니... 애들이 숨어서 본 것도 아닐텐데 벌써부터 애들에게 면목이 없어진다.

철물점 앞 구멍가게에서 생수 한 병을 사 입구 왼쪽에 붙어 있는



###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 그건 나

마리가 오고 있다.

‘이 더운 날 저놈의 고양이는 왜 돌아댕기는겨?’

바로 그 순간 철물점 오른쪽 정육식당 쪽으로 고양이 한



답답하던 차에 만만한 상대가 나타나서 그런지 괜히 심술이 난다.

“엄마! 가~! 가~! 이노옴!”

마시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평상에 탁탁 치며 철물점 할머니 말투를 흉내 내 소심한 화풍이를 하는데,

‘아니, 저런!’

자세히 보니 이 녀석 오른쪽 뒷다리를 절고 있다. 다친 다리뼈는 이미 굳었는지 펴지도 오므리지도 못한 채 그냥 걸어 다니고 있다.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흉한 갈색 줄무늬 털도 엉망인데다 특히, 꼬리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어 귀엽다든가 발랄하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가질 수가 없다.

그래도 이 녀석 근성 있어 보인다. 정육점 앞에서 철물점까지 쉬지 않고 불편한 걸음을 옮긴다. 차가 여러 대 지나갔지만 아랑곳 않고, 마주 오는 행인들의 발걸음에도 멈추지 않는다.

‘이야~! 저 놈 보게. 나를 쫓 다했네.’

이 놈이 나타난 지 일분도 채 되지 않았건만 난 내가 실의에 빠져 있었다는 생각조차 잊고 있었다. 그렇다. 이 불쌍한 고양이는 나와 많이 닮아 있다. 다른 길짐승들이 나타나지 않는 두려운 여름 폭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놈은 누가 뭐래도 제 갈 길을 가는 놈이다. 초라한 몸뚱어리로 고단한 인생길을 재촉하는 이 녀석은 바로 이십여 년 넘게 통계조사를 해 온 나의 모습이었다.





## 난생처음 짐승을 질투하다

‘삐이의 뽀’

하필이면 고양이가 딱 문 앞에

있을 때 철물점 문이 열렸다.

‘야! 이놈아 빨리 도망쳐. 그것만이 네 살길이야. 그 집 할머니 엄청 고약해. 아마 널 걷어 차 버릴 지도 몰라.’

안 그래도 측은한 놈이 한 성질 하는 기 센 할머니에게 화를 당할까 싶어 나도 모르게 소리죽여 외쳤다. 그런데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 애자 왔구나! 배고프지? 얼른 들어가자.”

철물점 할머니의 온화한 마중 말, 그리고 마치 제 집인 냥 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고양이, 내 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웃으며 찾아간 나는 세 번 씩이나 박대하면서, 저 볼품사나운 고양이는 친자식마냥 맞이하는 게 더없이 섭섭해 졌다. 방금 전 고양이에게 느꼈던 동질감이 이내 우습잖은 질투로 바뀌어 있었다.



## 나의 고통은 배부른 엄살

“아니 뭐 하는 양반인데 이 더운 날  
여기 죽치고 앉아 계속?”

한참을 멍하니 철물점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궁금했는지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서며 물었다.

“네, 저는 통계청 직원인데요. 저 철물점에서 다달이 통계조사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푸념하듯 가게 아주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려워? 왜, 저 집 할머니 때때 그러지? 쫓쫓 오죽했으려구.”



아주머니는 나를 잘 알고 지낸 분처럼 다정스레 말을 이어갔다.

“저 할머니는 나랏일이러면 무조건 안한다고 할겨. 그러니 맘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조사해. 뭘진 몰라도 내가 해줄게.”

기대에 없던 지원군을 만나 정말 고맙웠다. 통계조사라는 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 골라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저 위로의 말로 삼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근데 제 맘대로 아무데나 가서 조사 못해요. 그럼 정확한 통계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말문이 터진 김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좀 전에 보니까 다 죽어가는 길고양이도 안으로 들어던데 전 벌써 세 번이나 내쫓겼어요. 전 떠돌이 길고양이 만도 못해요.”

“저 철물점 할머니 지금은 좀 모질고 괴팍해도 알고 보면 참 가엾은 사람여...”

아주머니는 선뜻 본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내 옆에 앉더니 긴 한숨을 내뿜으며 말한다.

“저 양반이 옛날엔 인심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 텃밭에 농사진 거 뜯어오면 조금이라도 앞집, 옆집 나눠주고, 비라도 내릴라 치면 김치전, 정구지전 부쳐서 마을회관 노인네들 갖다드리고 그만큼 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에효, 세상이 야속한 건지, 저 양반이 모진건지...”

“네? 진짜요? 저렇게 야박하신 분이요? 무슨 사연이 있어도 대단한 사연이 있나보네요. 애기 좀 해주세요.”

어느새 나와 아주머니는 아예 신발을 벗고 평상에 올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한 20년도 넘었지. 읍내에서 큰 낚시점 하던 큰 아들이 낚시

꾼들 모아서 전라도 어디 바다로 낚시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하늘로 갔어. 그 때 사람 많이도 죽었대지. 아마 한 몇 백 명 죽었을 게야.”

“20년 정도 전이면 서해페리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라도 부안 앞바다에서요.”

난 할머니의 사연을 단 번에 알아차린 것 같아 약간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 때 큰아드님을 잃고,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 하게 된 거군요? 맞죠? 아이구 딱해라!”

“웬 걸, 이 사람 성질 한 번 급하구만 그게 다가 아녀. 큰아들래미 보내고 그렇게 눈물빼고도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들네 낚시점 처분하면서 며느리랑 상의해서 꽤 많은 돈 장학금으로도 내놓고,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이웃한테도 잘하고.”

난 너무나 답답하다 못해 조금해 졌다. 이 아주머니와 오랫동안 얘기 나누는 걸 철물점 할머니가 보면 이놈 아직도 안가고 내 홍보는 거라면서 좇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두 아들 하나 잃은 명을을 남들한테 봉사하면서 더 착하게 살면서 잊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에구 인생이 참 잔인한 게 가슴에 못 박힐 일이 또 생겼지 뭐야.”

“네? 또, 또 생기다니요? 설마 그럼 다른 자녀분이...”

이번에는 차분하게 물어보았다.

“그려, 한 이 년 되었지 아마도. 서울서 대학 나오고 대기업 취직해서 잘 나가던 작은 아들이 오십도 안돼 명예퇴직하고 내려와서 철물점 일 거들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지 형 따라 가두 하늘로 가버렸어. 그놈 참 푹푹한 놈이었는데...”



아주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진지하게 듣고 있던 나도 콧등이 시큰해 와서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얼마나 힘들셨을까요? 남들은 한 번 겪기도 벅찬 일을... 두 번이나 가슴에 못, 아니 비수가 박히셨으니... 작은 아드님은 어찌다가요?”

“그건 아무도 몰라. 서에서는 자살이라고 딱 선을 긋드만, 저 할머니는 개가 자살할 놈이 아니라고, 시신 여기저기서 명자국이 시퍼런 데다가, 지엄마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 놈인디 편지 한 장 안 남기고 갈 놈이 아니라고...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도 넣고 했는디 그냥 그렇게 끝나 버렸어.”

아~! 이렇게 가슴시린 아픔이 있으셨구나! 세상살이 이어가면서 구구절절한 사연 하나 쯤 그 누가 없으랴만 저 할머니는 결국 눈에 보이는 만큼의 세상을, 당신이 아는 만큼의 세상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었구나! 그래, 그랬던 거야!



**A closed mouth catches no flies!**  
**(울지않으면 젖을 먹을 수 없다)**

“아주머니,  
그런데 고양이

있잖아요? 저 분이 아까 병든 고양이 안으로 들이는 거 보셨지요? 사람은 멀리하면서 그깟 고양이는 집 식구처럼 반갑게 맞이했잖아요.”

그 갈색 줄무늬 고양이가 생각났다.

“응, 그 고양이가 그래두 저 이 유일한 동무야. 한 반 년 됐나, 어디서 다쳤는지 그 몸을 하고 그 놈이 나타났어. 마을사람들이 다 가여워서 너도 나도 배라도 채우라고 먹을 거 내줘도 입 한 번 대질 않더니 유독 저 철물점 앞에서만 서성이는 거야. 저 양반도 침엔 막 내 쫓으려고 했는데, 그래두 저 녀석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다릴 끌고 저 집 앞에만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밥 한 번 내오더라고 그 밥 먹더니 이젠 하루에 한 번 저게 일과가 돼 버렸어.”

“아!”

짧은 탄성이 나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그래 저 고양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를 사연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 그랬던 거야! 마침내 고약한 철물점 할머니의 사연을 다 들었다. 가슴과 머릿속 구석구석 자리 잡았던 세월의 티끌들이 모조리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와 고양이’, 어느 동화의 제목으로 어울릴 것 같은 이 애절한 이야기, 할머니의 통계조사 불응으로 낙담했던 나는 거짓말처럼 이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주머니, 그럼 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집 앞에 출근도장 찍으면 언젠간 할머니가 밥 한 끼 주시겠네요?”

평상시의 당당한 나로 돌아와 이젠 빙그레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다.

“그렇져. 본시 심성이 고운 양반이니까. 참, 저 할머니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하셔...”



**응답자는 나랏일이기 때문에  
조사해 주지는 않는다**

그 후 벌써 반년이나  
흘러 갔다. 오늘은 ○○

면으로 ‘서비스업동향조사’를 나가면서 달콤한 초코케이크를 하나 샀다. 할머니와 약속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와 고양이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한 약속이다. 약속? 이쯤되면 눈치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챈을 것이다. 그렇다. 난 드디어 철물점 할머니와 친해졌다. 물론 통계조사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 할머니는 내가 찾아가면 여쭙보지 않아도 매출액, 영업일수 먼저 적고 얘기하자고 재촉할 정도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임금님 부럽지 않을 대접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동안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구멍가게 아주머니께 할머니의 인생사연을 듣게 된 그날은 그저 애잔한 여운만을 간직한 채 그냥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선 하루 같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얻어왔다. 그것은 「자신감」과 「확신」이었다. 통계조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정(精)에 대한 확신.

난 그날 이후 거의 2~3일에 한 번씩은 할머니를 찾아 갔었다. 당연히 방문시간은 병든 고양이가 찾아오던 점심 무렵.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박대 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고양이 사료도 사다 놓고, 때로는 손편지로 전에 기르던 고양이 얘기도 적어 드리고, 좋아하신다는 청포도 맛 사탕도 억지로 건넸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다움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얼마 후 그토록 모질던 할머니도 '사람 사이의 정'의 힘을 신봉하는 나를 더 이상 이길 수는 없었다.

한 달 전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저 올 때 우리 파티해요.”

“뜬금없이 무슨 파티여? 왜 자네 생일이라도 오남?”

“아뇨, 우리 앵자 생일파티요.”

“앵자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데 뭘 생일여?”

할머니는 내심 좋으신 표정인데도 만류하려 하신다.

“앵자가 할머니 찾아온 지 거진 일년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자 생일  
정하면 그 날부터 생일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 우리가?”

“네, 우리가요! 앵자 목에 이쁜 리본도 달아주고요!”

“그래 좋다. 앵자 생일잔치 한 번 해주자. 대신 맛있는 거 사와야 돼. 덕분에  
나두 호강해 보자 그래.”



## 내가 통계조사 현장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살다보면 안 되는  
일, 불만스러운 일들이 참  
많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울 때를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때때로 우리는  
나보다 남의 걱정을 먼저 하곤 한다. 왜 일까? 그것은 아마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진 이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가진 고통의 깊이에 압도되어  
나의 아픔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당장 그를 도울 수 없어도 조금해 하지 말고, 같이 걱정하고 위로  
하다 보면 어느덧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가 치유되면서 나의  
어려운 일과 불만스런 일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리라 믿는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지 우리는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너그  
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용기있는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나의 일터는 통계조사현장이다. 이 곳은 응답자와 조사원의 만남으로 늘  
뜨거운 곳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 인생을 이야기하고 보듬는다.



결국 둘은 함께 웃을 수 있다. 이런 멋진 세상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는 현장을 사랑한다.

P.S.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고양이는 왜 이름이 ‘앵자’일까? 원래 할머니네 철물점 문을 열면 자동으로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가 흘러갔다. 애지중지 했던 착한 작은 아들이 달아주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이 멜로디를 너무나 좋아하셨다.

“얘, 이 노래가 뭘 노래여?”

“엘리제를 위하여란 노래예요.”

“뭘 누굴 위한다구 엘자? 앵자?”

그런데 이 멜로디 기계가 고장났다. 언젠가 고장난 이 기계를 고쳐드리리라 마음먹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슬프다...







# 꿈을 담다. 내일을 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한다. 처음이니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다. 농업통계의 새내기로서 좌충우돌 적응기를 겪고 있지만, 오직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내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다.

- 「좌충우돌 농업통계 적응기」 중에서 -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b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b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 4개월된 통계인의 성장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여섯

경인지방통계청 박 창 수



**내 나이 널 모레 마흔,  
그러나 나는 막내이고 초보다.**

내가 우리팀에 오기  
전에는 마흔 일곱이

막내였다고 한다. 나는 적지도 않은 나이에 통계청 공무원이 되었고, 〇〇 사무소 농업2팀에서 농업통계 업무를 시작으로 통계청에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넉 달째 접어든 농가경제조사와 두 번의 작물재배면적조사, 시간에 쫓겨서 겨우 마감한 가축동향조사, 그리고 감자와 마늘 생산량조사...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통계조사 현장에 뛰어든 지 딱 4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사무소 선배님들의 현장조사 노하우와 농사전문가이신 응답자들과의 이야기가, 내가 흘린 땀과 함께 통계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에 이



글을 쓴다.

나는 아직도 초보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찼던 첫발령 때의 설렘보다 더한 설렘으로 오늘도 나는 현장조사를 준비한다.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만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이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누군가 맛나게 먹고 하루를 지내는 힘을 만들어 주는 우리의 작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는 나날이 반복되었다.

환영식에 이어 업무인계인수, 전직원 체육행사, 교육 및 현장실습, 응답자 간담회... 그 뿐인가? 사이버보안의 날, 학습의 날, 런치데이, 해피데이 및 힐링여행 등 사무소 발령 이후 현장조사 외에도 여러가지 일에 문혀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공무원 생활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과 농업통계업무에 대한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조언들이 나에게 커다란 힘을 주었다.

발령을 받고 맨 처음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이제부터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 3개월 정도는 고시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 봐. 그러면 3년 아니 30년이 달라질 거야”라고 하신 소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선배님들의 조언 하나 하나는 낯설고 힘든 현장 조사를 무사히 해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담당자가 바뀌면 늘상 있는 일이야. 사실... 처음에는 다 그래. ‘안한다, 못한다, 왜 하나’ 그러시지만, 그럴수록 더 다가가.”

“좋은 방법? 아들처럼 자식처럼 다가가면 되지.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르신들도 많이 착하셔.”

“백날 지도를 봐 봐라. 현장조사하러 가는 데가 네비게이션에 정확히 찍히는지. 만나와! 나와도 다른 곳에 떨어트려 놓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건 길눈 익히는 거야. 필지에 있는 요도를 보고 ‘아! 여기가 어디지’하고 딱 머리속에 가는 길이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길눈을 익혀야 되는 거야. 길눈!”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런 걸 잘 알아둬야 해. 1평이 얼마지 알어? 그래 3.3㎡지. 그럼 가로, 세로 얼마야? 생각 안 해 봤지? 이런 기본이 가장 중요해. 나중에 조사표를 들고 현장에 갈 때, 목측을 하든 실측을 하든 또는 경작자에게 물어보든 이게 빨리 빨리 계산이 되어야 하거든.”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은 보통 ‘평’으로 계산하니 그렇게 물어봐야 돼, 알겠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매일 반복 해야 해. 틱을 하나 준다면, 1평이 왜 가로, 세로 1.8미터냐 하면, 그건 말이지...”

“우리 일? 농사짓는 분들이랑 똑같지. 봄부터 가을까지 바쁘제. 5월에서 9월 사이는 정말 시간이 확확 지나가.”

“농사를 누가 지침서로 배워? 그럼 우등생이 농사를 잘 짓겠네! 지침서는 지침서고, 농사는 직접 겪어봐야 해. 현장경험이 없으면 지침서는 소용없어. 지침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지나 가구를 한번 더 돌아다녀 봐. 그럴수록 농업통계는 더 정확해져.”



“또, 조사표는 우리가 보라고 있는 거구, 거기에 있는 데로 물어보면 안돼. 그렇지! 초임만삭우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경산우 물어보고... 옳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광고 보니까 그러더라! 침대는 과학이라구. 근데 작물재배조사 나가 보면 알게 될텐데, 텃밭은 예술이야 예술! 알지? 그림 같은 예술작품...”

“내가 산이랑 들이랑만 돌아다녀 잘 모르지만, 예술작품 같은 거 보려면 꼼꼼히 유심히 천천히 살펴봐야 되잖아? 텃밭에 가서도 그렇게 예술작품 보듯이 잘 봐야 하는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 보이지만, 5~9월 사이면 정말 여기저기 지천에 많은 것들이 심어져 있어.”

처음 듣는 이야기들과 생전 처음 보는 것들로 하루하루가 채워져 4개월이 지나갔다. 길 찾아가랴, 작물 보랴, 어르신께 인사드리랴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니는 통에 인계인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침서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조사에는 가득했다. 농업통계업무는 머리로만 익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발로 뛰는 만큼 즉, 직접 경험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았다.

게다가, 선배들이 전해 주는 노하우 하나하나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벼운 이야기일지라도 선배들의 조언은 조사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조사현장을 찾게 되었고, 실수를 한 가지씩 줄여 나갈 수 있었다.





##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다 하기 나름이다!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운

숙제, 응답자의 불응! 불응만으로 끝나면 오히려 나을지 모른다. 첫 대면부터 쏟아지는 걸출한 육두문자에 공무원과 통계조사에 대한 무한불신과 강한 거부감에 말문이 막힐 때도 있었다.

어찌 말을 해야할 지도 몰라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듣고만 있는 경우도 많았다. 가슴을 푸~욱 찢러대는 이런 이야기들에 주춤하기도 하고, 발가벗겨진 몸에 마치 모욕으로 목욕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통계청? 아니 일 좀 하자, 제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도 되는 거야? 입장바뀌서 생각해봐. 니가 보기에는 논밭이지만 여기도 우리집인데, 누가 아무렇지 않게 집에 불쑥 들어와서 기웃거리면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기분이 좋겠냐고?...”

“조사필수품,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5만원 줄테니 그냥 우리 집에 안오면 안돼? 대~충 대충 해.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잖아? 이거, 이런 거 조사해서 세금 더 먹일려고 그러지? 아니라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 내가 다 알아! 공무원 ××들! 니가 뭔데?”

“뭐? 통계법? 통계법에서 뭐라고? 통계법 그건 통계청 니네들이 만든 거잖아? 언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했어? 난 모르겠고, 우린 상관없는 거니까, 알아서 해! 난 아무말도 안 할테니. 바쁘니까 비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것은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 집에서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커다란 숙제였다.

나는 온몸으로 그 숙제를 풀어보기로 했다.



우선, 생각은 간단히 하기로 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떠올리며, 고민할 시간에 현장을 한 번 더 나갔다.

‘한 번 나가서 실수하거나 미진한 건 다시 고치고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바쁘시다고 하시면 비는 시간 여쭙어 보고, 도착 전에 또 한번 연락드리면 되는 것이고, 모르는 작물 만나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쭙어 보든지 사진을 찍어와서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다음은,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진심으로 다한 행동에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릴 것’이란 믿음을 놓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안부전화를 드리고, 먼저 이런 저런 안부를 묻고, 저번에 어르신들이 하신 이야기를 기억해 그 뒤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집에서도 해본 적없는 착하고 붙임성 있는 자식 역할을 스스로 자처했다.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은 잠시 접어두고 그렇게 ‘하루만, 딱 하루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매일을 보냈다.

그렇게 120일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일은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단지 4개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분명 많은 것이  
바뀐 것 같다. 그

사이 까무잡잡해진 내 피부처럼 응답자들에게도 작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비지땀을 흘리며 돌아다니다 보니 눈과 밭에서는 이쁘디 이쁜 고추와 가지와 참외 등이 자라나고, 찾아가는 농가의 어르신들은 나를 자식처럼 조카처럼





### 농가 2 언제 와?

“어 그래, 언제 와? 논보러 나갔다가 온다는 전화받고 집에 들어 왔지. 아니, 일하는 거 방해되지 않아. 안 그래도 더워서 쉴려고 했어. 10분 뒤에 온다고?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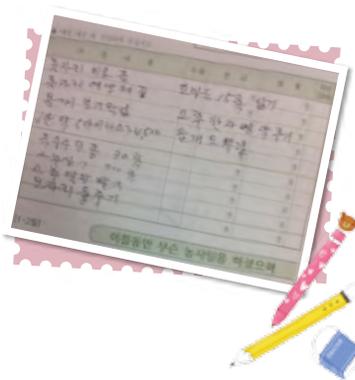
#### ○○○ 어르신택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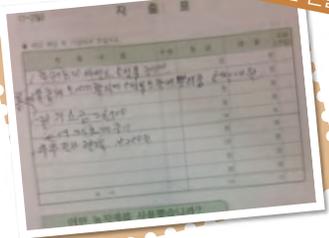
○○○ 어르신은 약주도 안하시고 담배도 안하십니다. 최근에는 할머니님이 많이 아프셔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잘 표현은 안 하시지만, 옆에서 보기에 할머니를 엄청 아끼십니다. 가끔 할머니를 통해 들으면 특하고 던지는 말이지만 ‘일 좀 그만하라’란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그리 좋지 않으시지만 진중한 멋이 있으신 분이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애타게 날 기다려 주시고, 뻘뻘뻘하지만 정성어린 손길로 영농일지를 직접 적어 놓고 계셨다. 그전에는 물어보는 것에만 시큰둥하게 대답하셨던 어르신이 달라지셨다.

그날은 사람마다 표현법도 다르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훨씬 더 어리지만 마음 씩씩이가 아닌 듯 긴 듯 하시지만 이쁘시단 생각이 들던 하루였다.



#### 어르신의 정성어린 손글씨



### 농가 3 옛날에는 시아버지한테 그리 말씀 드렸는데...

햇볕이 뜨거운 7월의 어느 날, 선배님들의 조언도 있었고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상 수분섭취를 위해 넉넉하게 시원한 생수 2개를 챙겨 작물재배 면적 조사를 하러 나갔다. 그때 생수병 하나를 김매는 어머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야기다.

“더운데 논밭 돌아 다닌다고 힘들지? 저번에 오던 아저씨랑 판 사람이네! 힘들지? 가뜩이나 이번에는 가뭄이라 비라도 좀 내려야 할텐데 말이야. 이 앞에 들깨 봐. 잡초가 저리 자라는데 오다가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건 나이가 들어보면 알게 돼. 나도 시집오고 나서, 날 아끼시던 시아버님 아프신 거 보고 ‘노친네가 제발 집에 가만히 있지, 어딜 돌아 다니시냐고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나이 되보니 알겠더라구! 이게 인이 백힌 거라 안 움직이면 몸이 더 아파. 정말 쑤시고 아파서 이렇게 텃밭에 나와 사브작 사브작 움직이는 거야.”

작물조사를 해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가장 두려운 구역 중에 하나는 마을안에 있는 작은 텃밭이다. 작고 작은 텃밭에는 정말 조밀하게 많은 작물들이 심겨져 있다. 선배님들 말대로 텃밭경작은 예술이었다.

요도를 잘 살펴보고, 텃밭의 구석구석을 모두 발로 훑어가며 찬찬히 살펴 보아야 했다. ‘혹시나 놓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온 정신을 텃밭에 심긴 작물을 보는 데 집중해야 했다.

3월은 전임자에게 인계인수받느라 조금은 쉽게 필지를 돌아다녔지만, 5월과 7월에 혼자서 찾은 필지는 자연이 부린 마술에 전혀 판곳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아는 작물 이름이라고 손가락 수 내외인 상태라 난감했고, ‘작물도감’



이나 인터넷 사진을 미리 확인해 보고 오기도 했지만, 텃밭 앞에 서게 되면 머리속은 새하얗게 지고, 얼굴 빛은 시퍼렇게 질렸다.

사진찍어 선배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기에도 날씨는 무심하게도 너무 짹짹했다. 그런 나에게 김매고 계시던 어머니는 구세주였던 것이다.

**농가 4** 고구마 꽃 본 적 있어?

“운 좋은 거야. 사실 고구마가 남미에서 넘어 왔잖아. 그렇게 더운데서 살던 녀석이 우리나라 오니까 꽃이 안피는데, 정말 간혹 고구마에 꽃이 피기도 하지. 평생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도 보기 힘든 건데, 자네 정말 운 좋은 거야. 이봐, 이쁘지?”

먹을 줄만 알았지, 전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나갈 때면 이쁜 꽃들, 그것도 우리가 먹는 작물의 꽃들을 찍고 그것들을 통해 작물의 생육과정, 그리고 식탁에 오르는 순간까지 상상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말 유익하면서도 이쁜 꽃들이다. 그리고 그때 만난 어르신 말씀처럼 나는 운이 좋은지도 모르겠다.



**농가 5** 아이고, 이제 고추 농사도 좀 힘들네.

“방아다리 판다구요?”

“어 그래, 첫물을 따주는 거지”, “네? 정말 죄송한데 첫물이 뭐가요?”

“아, 그게 말이지. 여기봐, 여기, 아래쪽 이게 방아다리야. 고추는 말이야. 첫물은 맛이 없어. 따서 말리면 검은색이 되고. 그래서 버리는 건데, 대개 고추 따 먹는 건 이렇게 3~4물인 거지.”

“딴 사람들은 먹는 것만 생각하지 키우는 건 생각하지 않아. 고추가 얼마나 잔손이 많이 가는 줄 모르지. 저번에 마을회관 가서 들으니까 이번에 또 인건비가 올라서 사람 쓰면 남는 게 없어. 저기 건너 저 집 노인네는 그래서 자식들 보고 주말에 와서 순따고 약쭙 치라고 하는데, 뭐 자식들이 바쁘다고 안오니 그냥 저렇게 놔둔거야. 아깝지 정말. 다 말라죽어. 탄저병 한번 돌면 정말 답도 없어. 자네 그거 아냐? 탄저병은 치료약이 없어, 예방약만 있지. 그거 있잖아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수시로 약 안치면 순식간에 저렇게 되버려.”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해가 안되고 그렇다고 다시 묻기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금씩 여쭙어보는 만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작물조사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누군가와 당신이 알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셨다.

**농가 6** 남편이 일나갔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야!

“딱 인상보니 선하네.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하다 험하다 하지만 원래 좋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 부담스러워 마. 얼마전에 남편이 일하러 어디 갔는데, 그쪽 분이 더운데 수고한다며 시원한 주스 한잔을 주시더라고 이야기 하던 게 생각나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이유없어. 맛있게 마셔. 갑자기 남편이



한 이야기가 생각 나서 그런 거니...”

전혀 어울리지 않은 풍경 속에 미장원이 있었다. 미장원의 이름도 낯익은 ○○○. 그곳의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의 머리를 모두 도맡으시고, 가끔 손님 기다릴 때 쉬기도 하면서 텃밭을 가꾸셨다고 한다.

원래는 서울에서 생활하셨지만, ○○○으로 이사오신 지는 7년이 넘었다고 하셨다. 5월 작물재배 조사하러 나갔을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셨고, 7월에는 텃밭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바로 따서 갈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맛은 말씀이시다.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다. 좋은 사람,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란 단순한 상식을 알게 된 하루였다.



### 이제 시작이다!

농업통계조사를 모두 한번씩 경험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아직 1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선배님들은 ‘긴 호흡으로 보고, 3년이 지나야 이제 농업통계 좀 아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셨다. 농업통계의 꽃인 ‘미곡예상량조사’와 5년마다 돌아오는 ‘농업총조사’까지 한창 더 많은 현장조사가 내 앞에 남아 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것들, 그리고 익혀야 하는 것들에 비하면 지난 4개월은 가벼운 산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려진다. 숫자 저 너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팜방울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조금씩 변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먹을 줄만 알았지 어찌 생기고 어찌 키워지는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더욱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사무소로 출퇴근하는 도로가로 눈길이 향하면, 이런 생각이 머리 속을 스치겠지...

‘어 그새 참깨가 자랐네’, ‘얼마전에 저 밭에서는 감자를 캐구나. 음, 생긴 걸 보니 들깨 아니면 콩이겠구나’, ‘옥수수가 참 많이 자랐네. 찰옥수수가 참 실하게 익어간다’, ‘저게 땅콩이지. 보자보자 저번에 착각한 황기랑은 그렇지. 이런 이런 부분이 다르지...’

나에게 이 모든 것은 단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이 인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현장조사 4개월이 된 지금, 농업통계 전반전이 끝나갈 뿐 더 중요한 후반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허브향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일곱

경인지방통계청 조 수 영

“이것 좀 봐. 이렇게 잎 부분을 계속 만져주니 좋은 향기가 나지? 만지면 만질수록 더 깊은 향이 나는 게 허브의 매력이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응답자가 경제활동인구조사차 방문한 나에게 허브 화분을 선물로 주며 하는 이야기이다.

많이 만져줄수록 퍼져나가는 그윽한 허브향기처럼 열악해져가는 조사 현장도, 그러한 조사환경 때문에 매번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자주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면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 본 자리!!

“하하하! 호호호! 이 영상 진짜 웃긴다!!”

“아!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참신한 발상인데!!”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기간마다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시간.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는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도시락도 먹고... 실사 기간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불응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서로 고민도 해주고... 응답자가 되어서 역할극도 해보고... 가구 부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수퍼우먼들이 엮어가는 불응가구 설득 체험기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



### 비협조 조사구

### 내 편 만들기 대작전

### 사면초가에 빠지다

38평형 아파트이고 자가가

많아서 나름 협조도가 좋겠지라며 부푼 꿈을 안고 방문한 연동표본 교체 조사구.

근데 이게 웬일? 관리사무소부터가 만만치 않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경리에게 통계조사 협조를 부탁했으나 돌아오는 건 부정적인 대답뿐이었다.

“뭐라구요? 통계청? 거기가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

“선생님. 귀찮게 안 할테니 이런 조사가 있다고 안내방송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3년 동안 진행되어야 할 조사라 관리사무소 협조가 꼭 필요해요.”

“아이쿠. 그렇게 해서 말 들을 곳이었음 내가 이런 말 안하지. 여기는 안내방송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으니 조사를 하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소장님 계실 때 다시 와서 이야기 해 보시든지...”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는 커녕 이 아파트에서 통계조사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4~5번 방문  
해야 간신히 응답해 주고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협조 못해주겠다는 가구가  
늘어갔다. 경비원까지도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여러 차례 방문에도 만날 수 없었던 가구 중에 고등학생 딸을 만나 조사필수품을 건네주며 어머니께 꼭 연락 달라고 부탁했던 집이 있었는데 그 가구 응답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이 나한테 미리 와서 표본으로 선정해도 되냐고 물어봤어? 한 번만 더 오면 본청에 전화할 테니 그리 알아요!!”

기쁜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곧장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날 선 소리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팀장님을 모시고 그 가구를 다시 방문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딸만 있었다. 그 날 밤 나는 또 다시 그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XX를 봤나!! 오지 말했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건데? 내가 당신을 뭇 믿고 딸에게 문 열어주라고 하잖아? 당신 같으면 딸이 혼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찾아오면 좋겠어?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은 굳이 안하겠다는 가구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조사를 해야 하는거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렇게 응답자에게 욕을 얻어 먹고 남편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통계조사를 해야 하나 자꾸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 응답자 감정에 호소하라!

“흑흑. 저 이 조사구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주세요.”

“저 10년 넘게 통계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불응가구로 스트레스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응답자 : 안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난리예요!!

담당자 : 안한다고 하신거 아는데 일단 얼굴이라도 뵙고 말씀드리면 안될  
까요?

응답자 : (문이 열리며) 아 정말 바쁜데. 안 한다고 했는데 짜증나게... 뭘데요?

담당자 : 일단 설명 좀 들어보세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지... 학생  
인지, 가사일 하시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조사예요. 이곳은  
20가구가 표본인데 다들 협조를 안해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응답자 : 아, 그러니깐 안해주겠다는 집을 왜 자꾸 찾아와서 그래요. 옆집도  
안하는 것 같더만. 다른 집 잘해주는 곳 알아봐요!

담당자 : 아무 집이나 가능했으면 제가 이렇게 계속 방문 안하죠. 이 집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로 뽑혔으니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  
예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을 테니 제 사정을 봐서라고 꼭  
부탁드려요.

응답자 : 아! 우리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담당자 : 그럼 일단 이번 한 달만 해주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다음달부터  
귀찮게 안할게요. 저두 봉급쟁이인데 이렇게 못 해 오면 제 자리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제발 제 사정을 봐서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 가구 설득했어요. 아직 불용가구가 많긴 하지만 뭐 이렇게 노력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한 번 감정에 호소해 봐요.”

“흠. 그런 곳이라면 우선 팀장님이나 소장님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보는 게 어때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조사 안내문을 붙인다거나 방송을 해주면 조사구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조사구에 정부나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중장년층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홍보해도 전혀 협조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정(情)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듯 싶어요.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담당자에게 정들어서 조사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가서 초코파이와 함께 손편지를 써보는건 어때요?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는 게 정이잖아요.”

“요즘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수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주무관님, 어머니가 손뜨개질 취미시라고 안하셨나요? 예쁜 봉투에 손편지랑 수제수세미 넣어서 드리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시도해 보자!! 우선 팀장님과 동행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 후, 조사구를 찾아갈 때 마다 꼭 한번씩 관리사무소에 들러 한 손 가득 선물을 두고 오기를 반복한 끝에, 눈에 띄게 달라진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아저씨를 대면할 수 있었다.



“이번 주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기간이라구요? 그럼 이번 주 내내 통계 조사 협조해 달라고 안내방송 해주면 되는 거죠? 조사 안내문 샘플도 이리 줘 봐요. 1층 게시판에 붙여 줄 테니...”

1단계 작전 성공!! 이제 응답자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그럼 바로 2단계 작전에 착수해야지!!

몇 달에 걸쳐 수시로 화분뿐만 아니라 예쁜 봉투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리플렛, 손편지, 직접 뜯 수세미를 넣어 각 가구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다행히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협조적인 가구가 점점 늘어 갔다.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안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던 가구에서 세세하게 경찰보조 조사표를 작성하여 넣어준 것이다.



“이 수세미 설거지도 잘 되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요. 내가 진짜 이거 안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보니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순간 마음이 약해지더라구요. 암튼 앞으로 우리 잘 해봐요.”

아직까지는 협조 잘 해주는 가구보다 비협조 가구가 더 많지만 처음보다 한층 밝아진 조사구 분위기에 내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다.

직원들의 조언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간 밝게 웃으며 응답자와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겠지? 아직 내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기대하시라!!



### 최대의 고민거리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까지

### 최대의 고민거리 등장

“아니 이게 뭐야!! 뭐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빌라만 하는 게 말이 되요? 내가  
모르게 했으면 모르지만 여기 얼씬도 하지 말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이렇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선생님. 제가 협조해달라는 부탁은 안할테니 그냥 제가 여기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니깐 이정도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빌라에 살면서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성격이 불같아서 아마 당신 보면 바로 쫓아낼 걸?”

연동교체 조사구로 처음 방문한 다가구 주택.

주인집부터가 첩첩산중이다. 거기에 빌라 관리하시는 분까지 만만치 않다고  
하니 조사구를 교체해야하나 걱정이 되었다.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쫓겨나다시피 빌라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여름이’라는 개를 키우고 있어서 동네사람들에게는  
여름이 엄마로 통한다는 그 분!! 역시 내 예상대로 여름이 엄마가 조사구 내  
다가구주택을 관리하시는 아주머니였다.

“당신이 통계청 직원이 맞다면 상관없지만 당신 뭘 믿고 협조를 해줘?  
요새 잡상인들이 많아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선생님. 그런 부분이라면 걱정 안하셔도 되요. 제가 통계청 직원인지 확인  
하고 싶으시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 검색해 보세요.”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해 볼테니 내일 다시 여기 텃밭으로 와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 다 알려줄 수 있으니... 나 이 동네 쥐어 잡고 있는 사람이야.”

확인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여름이 엄마의 뒷밭으로 찾아갔으나 여름이 엄마는 커녕 개미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여름이 엄마 전화번호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뒷밭에서 기다릴 방법밖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며칠 째 동네를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여름이 엄마와 친하게 지낸다는 동네 아저씨를 만났다. 친절하게도 그 아저씨는 여름이 엄마의 집을 알려 주며 창문을 두드리면 나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창문을 몇 번 두드리니 잠시 후 여름이 엄마가 썩썩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게 보였다.

“이사람 뭐야!?!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사람 놀라게 창문을 두드려? 난 또 도둑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 통계조사가 아픈 사람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해? 진짜 예의가 없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선생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죄송하다면 다야? 나중에 오긴 뭘 다시 와. 여기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테니!!”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안되겠다. 직원들에게 조언을 구해봐야지.

### 응답자의 관심거리를 찾아 때로는 물질 공세로

“그 분 강아지 키운다며? 너도 고양이 키우니깐 잘 알거 아니야. 강아지 간식 가져가서 애완동물 이야기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

직원들의 조언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그 가구에 들렀다.





응답자 : 뭐야? 출입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면 경찰서에 질질 끌려가는 수가 있어. 얼른 안 나가??

담당자 : 네. 나갈게요. 어? 근데 여름이가 무슨 수술했나 봐요. 아이쿠!  
쪼끄만한 게 어째. 여름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수술시키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응답자 : 아 그래? 진짜 여름이 때문에 죽겠어. 자궁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했는데 애가 밤마다 끄끙 거려서 얼마나 짝한지 몰라.

담당자 : 이거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간식인데 여름이한테 맞을지 모르  
겠어요. 이것만 드리고 오늘은 그냥 갈게요. 이것만 받아주세요.

응답자 : 뭐 이런 거까지 가져왔대? 여름이가 좋아하는 거니 받기는 할게.  
근데 앞으로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고 함부로 안들어 왔음 좋겠어.  
여기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에휴!! 어떡하죠? 암튼 그 분이 선물을 받긴 했는데 앞으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하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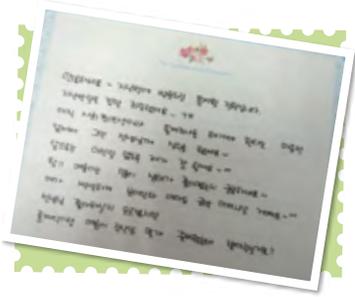
“그러게 어째. 우선 거기는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텃밭에서 여름이 엄마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게 좋을 듯 싶어.”

“이왕이면 롤케이크 하나 사서 가는 것도 괜찮을 듯. 물질 공세가 좀 통하는  
듯 싶으니 계속 밀고 나가 봐.”

“편지를 써 보는 건 어때? 나도 연동 시작할 때 그런 가구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손편지를 넣었더니 거기에 감동해서 잘해주는 집이 있었거든.”

직원들의 격려로 또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조사구에 들렀다.

마침 길가에서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분에게 준비해 온 편지와 케이크를 건네주었다.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이 케이크 여름이 엄마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요.”

“그 사람 성질이 좀 그렇긴 한데... 그니깐 초면에 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이건 내가 잘 전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와 봐요.”

그 후 여름이 엄마가 나올 때까지 텃밭에서 기다리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여름이 엄마와 만날 수 있었다.

“날씨 좋은 날이면 나와 보곤 했는데 이제야 만났네. 지난번엔 소리쳐서 미안했어. 그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거든.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오르며 눈물이 날 뻔했다.

나중에 여름이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선은 내가 쓴 손편지에 감동 받았고, 강아지까지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에 또 한번 놀랐고 그 이후 조사구를 애발스럽게 드나드는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는 마음이 동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의 최대의 고민거리였던 여름이 엄마는 지금은 전입가구에 함께 가고, 불응가구도 같이 설득해 주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 지금은 불응 설득 ~ing

### 복직 후 첫 경험.. 연동

2년 만에 복직한 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사무실에 출근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구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잠시...

헉!! 4그룹 연동표본 조사구를 맡아야 한단다. 내가 잘 해 낼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조사구는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33평형 대단지 아파트로 다행히 응답자들 반응도 좋고 직원들이 함께 도와준 덕택에 무사히 가구명부 작성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 것도 잠시, 경찰 본조사가 시작되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따르릉!! 내 휴대폰으로 응답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연동예비조사 시 반응이 좋았던 가구들에게 경찰 보조조사표를 넣어둔 게 화근이었다.

“우편함에 꽂아 두고 가신 거 뭔가요? 경제활동인구조사 보조조사표??  
우린 나이 많은 부부여서 이렇게 복잡한 건 작성할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댁처럼 아무 일 안하시는 경우는 굳이 작성 안하셔도 되요.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넣고 직접 방문드릴게요.”

“됐어요!! 우리가 계속 집에 붙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정 불편하시면 매달 전화로 변동사항만 확인할게요. 어차피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 안하시니깐 귀찮게는 안 해드릴게요.”

“아니요!! 매번 낯선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으니 하지 마요!!”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사무실로도 전화하셔서 항의하셨고 직원이 설득을

해보려고 했으나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안되겠다 싶어 그 할머니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다.

“계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부는 나이도 많고 해서 협조해 드릴 게 없어요. 우리 집은 방문 안하셨으면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할머니께서는 통계조사 협조를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 후로 몇 번을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할머니께서는 협조 못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70대 노부부만 사는 비경제활동 가구인데 내가 방문하는 것을 한사코 거절하시는 게 분명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걸음씩 다가가보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에 돌아와 직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며칠 전 내가 담당하는 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가구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담당자 : (따르릉) 네, 여보세요.

응답자 : 여보세요. 통계청 직원이에요? 내가 보조조사표 넣지 말라고 했잖유!!

담당자 : 아! ○○하이빌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ㅎㅎㅎ. 혹시 백종원이라는 요리연구가 아세요? 요즘 TV에서 뜨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그분인줄 알았어요.



응답자 : 저는 그런사람 몰라유. 나 이런거 안해줄 테니까 전화번호 스팸 걸거니 그리 아시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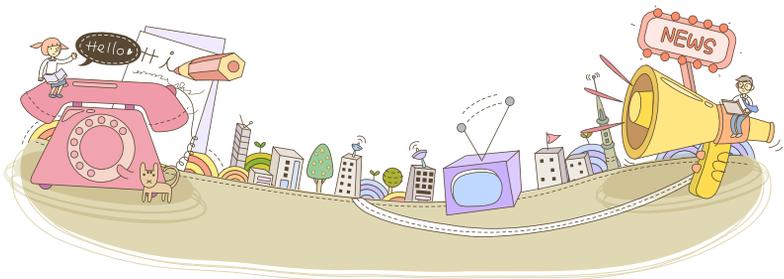
담당자 : 혹시 후X(스팸잡는 어플)라고 아세요? 제가 후X 깔아드릴까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언제 볼까요? 선생님 일하시는 시간 피해야하는데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응답자 : 아 참내. 저 인테리어 하는거 몰라유? 아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렇게 조사해도 되는거예요?

담당자 : 선생님 중간에 이사 오셨죠? 그때 이사오셨을 때 동생분에게 말씀은 드렸는데 못들으셨나봐요. 제가 직접 뵈고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안되겠다. 선생님 핸드폰에 후X도 깔아줘야 하고 왜 통계 조사에 불응하시는지 말씀도 들어야할 듯 싶으니 우리 만나요.

응답자 : 아 됐슈! 참 내. 내일 7시에 와유!!

“그렇게 해서 그 응답자를 만났는데 우리 둘 다 얼굴 보자마자 뺨 터졌지 뭐예요. 보조조사표도 전혀 못 넣게 하고 정말 심하게 불응했던 집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척 하고 이야기 하는 내가 그렇게 웃겼나 봐요. 그 이후론 통계 조사에 잘 응답해 주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분 주변을 잘 살펴봐요. 한동안 그 가구를 잘 관찰해보면 뭔가 설득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 응답자 주변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런데 웬걸? 이제 통계청이라고 하면 문조차도 열어주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옆집에서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에요? 옆집에서 문 안 열어줘요?”

“네. 통계조사 협조 못해주겠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 할머니 그럴 분이 아닌데? 우리 애들한테도 잘 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데! 아마 통계조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만나면 말씀 잘 드려볼게요.”

평소에 협조 잘 해 주시는 옆집 응답자인데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안되더라도 준비한 것은 드려야지 싶어 손편지와 꽃 바구니를 할머니 집 문고리에 거는데 그 순간 문에 붙여져 있는 ‘○○교회’ 명패가 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직원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직원을 통해서 한 번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언니! 전데요.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 연동 들어가는 가구 중에 ◇◇◇라고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협조를 너무 안해주셔서요. 아시는 분이면 말씀 좀 해주십사 하구요.”

“그래? 그 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내가





한 번 이야기 해 볼게.”

암흑 속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 가구만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했던 내 마음이 주변의 고마운 분들 덕택에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그 후로 나는 변함없이 그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직도 그 할머니는 ‘우린 통계청과 아무 상관 없어요!!’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응답자에게 조금씩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편안한 딸처럼, 친근한 이웃처럼 밝게 웃으며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도 나는 할머니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 농촌의 한가운데서 통계청을 외치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여덟

경인지방통계청 **한 태 희**



## 용어의 늪에 빠진 축산물생산비조사

2014년 농림어업조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나는 부서를 달리하여 현 사무소로 왔고 농어업1팀에 배치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한 번도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는 나에게 ‘도태계, 산차, 비육돈, 환우일수...’ 이런 용어들은 정말이지 생전 처음 듣는 생소한 말들이었다. 처음에 여러 권의 지침서를 받아 읽게 되었는데 ‘하얀 건 좋아요, 까만 건 글씨다’의 이해 수준으로 그냥 읽고 또 읽었다.

연초에 축비 일계부를 들고 전임자와 함께 산란계 농가를 방문했다. 지금 이야기 한번 쓱 보면 다 아는 기계들이지만 그때만 해도 난생 처음보는 급이기,



집란, 세란기, 사료통 등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정신을 놓고 이리저리 둘러 보던 중에 전임자 분께서 “한주무관, 빨리 안 와? 사장님께 인사드려야지” 하셔서 얼떨결에 인사를 드리고 전월 일계부 기입사항을 여쭙보았다.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고 또 여쭙어 보았다.

사무실에 와서는 보고 또 본다. 초생추 구입, 중추 입식, 성계 편입, 배합 사료 급이 감소, 계사 방역비 증가... 당장 단어 뜻으로 유추할 수 있는 몇몇 용어 빼고는 한참을 찾고 물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일계부와 씨름을 하고 있던 즈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모 주무관님이 말씀을 거신다. “자네가 이번에 농업 업무를 처음 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한번 익숙해지면 마음은 편할 거야. 여긴 불응도 잘 없고 그때그때 변동사항만 정확히 잡아내서 기입하면 되거든. 이리 와 봐.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하시며 한참 동안 강의를 주셨다.

“병아리가 처음 태어나서 먹이만 먹고 알을 낳지 않을 때를 통상 초생추라고 해. 그리고 알을 낳기 시작해서 산란율이 50%가 될 때까지를 중추라 하고, 산란율이 50%가 넘어가면서 동시에 생후 150일이 넘어가면 몸무게도 1.2~3kg가 되면서 성계로 편입이 되지. 이런 식으로 알을 낳는 닭이 산란계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은 육계야. 소의 경우는 젖소가 낳은 수컷이 육우고, 한우도 우리가 먹는 한우는 비육우지만,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놈은 번식우라고 해.”

이런 식으로 각 축종의 기초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사육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 기구, 농법, 재료들까지 상세히 알려주셨다.



“그런데 주무관님, 소에게 TMR을 왜 먹이죠? 그리고 배합사료는 뭐고 농후사료는 뭐죠?”

“TMR은 여러 사료와 첨가제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먹이로, 사람으로 치면 비빔밥 같은 사료야.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잘 되어서 살찌우는 데는 제격이지.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순 없잖아. 반찬도 여러 개 놓고 먹어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해지지. 소도 똑같아. 그리고 사료의 부피를 줄여 먹기 쉽게 하기 위해 곡류와 같은 농후사료를 먹이지. 여기서 종합 영양제라 할 수 있는 배합사료를 적절한 비율로 먹이면 고기면 고기, 알이면 알, 우유면 우유. 백발백중 생산량이 많아진다니까. 뭐 사료값이 많이 나가도 수입이 그 이상 나오면 농가 입장에서는 할 만한 투자 아니겠어?”

“그렇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결국 치우치지 않은 영양섭취와 적절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네요. 그런데, 여기 원부에 들어가는 수많은 기계와 기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닭이 알을 낳은 직후부터 마트의 진열대에 올라오기 전까지 과정을 쭉 상상해 보면 돼.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걸 주워서 바로 파는 걸까? 아니지? 우선은 상품가치가 있는 알들을 선별하고, 찢어지거나 무른 알들은 따로 추려서 버리든지, 빵집 등에 싸게 팔아. 앞서 팔 만한 것으로 선별된 알들은 세란기, 소독기 등을 거쳐서 깨끗하게 씻기고, 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들은 난좌에 들어가기 직전 작업자들이 다시 한 번 씻어내거든. 그런 다음 운반기와 포장기를 거쳐 운송되어 소비자의 손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위주로 생각해 보면 원부에 있는 모든 농기구, 기계, 시설들의 존재 이유가 쑥쑥 이해될거야.”

확실히 베테랑 주무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혼자서 문자로만 보고 이해하려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모든 내용들이 직관적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비록 내가 가축을 키워보거나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꾸준히 농가와 접촉하고, 팀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배워 보니 마치 밭에서, 축사에서 직접 일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 눈치코치 없는 길치를 일깨워 준 농업면적조사

난 과거에도 공간  
지각력이 좋지 않아

처음 가보는 길은 세 번, 네 번을 왕복해 봐야 간신히 길을 찾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3월 25일 1회 작물이 시작되자 덜컥 겁이 났다.

‘어떡하지, 길도 잘 못 찾고 작물도 볼 줄 모르는데, 앞이 캄캄하네...’

하지만 이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겨를도 없이 관용차를 타고 단위구로 가기 바빴다. 가는 내내 큼지막한 단위구 요도와 조사표를 들여다보았지만 별 소용 없었다. ‘가서 못 알아보고 혼나면 어떡하지? 일자로 나 있는 대로 변도 못 찾는 판에 무슨 시골길이람’하고 있던 때쯤 “자, 이제부터 여기가 네가 맡아서 책임질 곳이야”라는 팀장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다.

내려서 눈앞에 보이는 건 풀때기 몇 포기랑 나무 몇 그루, 그리고 비닐 하우스 서너동이 전부였다. 이런 데서 뭘 어떡하라는 건지... 요도를 보고 땅을 봐도 전혀 매치가 안 되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일은 일. 이내 선배 주무관님들의 설명을 듣고 지시에 따라 줄자를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목측에 대한 감각을 익혔고, 그 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3월 작물은 초장에 끝내버려야 한다면서 선배 주무관님 한 분이 동행 출장을 제안해서 따라 나갔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단위구가 눈 앞에 펼쳐졌다. 분명히 어제는 논둑 옆의 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는데

오늘은 주택가 곳곳에 숨바꼭질이라도 하듯이 꼭꼭 숨어서 보이질 않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밭도 조사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님이 부르셔서 따라갔더니 처음 보는 풀을 가리키며 저건 뭐냐고 물으신다. 한참을 봐도 알 수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건 대파야. 이른 봄에 심는 몇 안 되는 작물 중 하나지. 시장에서 대파 봤지?”라고 하신다.

아니, 저게 무슨 대파라니... 마트 진열대나 집에 있는 냉장고 야채칸에서나 보던 대파가 왜 저리 작고 못생긴 풀때기로 전락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파라고 하시길래 그냥 믿는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양파, 부추, 쪽파 등도 하나같이 똑같이 보였다.

“파 종류는 끝이 뽀족하고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는 곧게 자라나는 게 특징이야. 반면에 마늘은 끝이 뭉툭하고 나중에 색이 약간 누렇게 변하지. 지금은 작물이 얼마 없으니까 구분이 어렵지 않지만, 5월 작물에는 가짓수도 많고 성장 속도도 제각각이라 필지 구분도 힘들걸. 조심하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어려운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3월 작물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제는 5월이었다. 말씀 그대로 5월에 찾아간 단위구들은 그야말로 하나 같이 작물의 향연이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백태, 서리태, 초석잠, 토란, 배추, 돼지감자... 일일이 말하자면 끝도 없는 작물들이 제각기 고개를 내밀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날 반겨주고 있었다.

“주무관님, 진짜 장님이 된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도를 손에 들고 단위구를 눈앞에 두고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눈 뜬 장님’이라는 옛 속담과 다를 바 없었다.

“한주무관, 급하게 생각할 것 없어. 몇 가지 팁을 알려주지. 밭만 있는



단위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선 논 필지를 기점으로 시작해봐. 지금 이 필지가 혼자 논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둘 때는 단위구를 크게 감싸고 도는 느낌으로 동선을 잡아서 시간을 단축하고, 대신 구석구석 꼼꼼히 보는 건 잊지마. 논이 없는 단위구의 경우엔 근처 집이나 저수지 같은 곳을 표시해 두었다가 그 곳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리고 보니 지금 이 필지는 모양이 단순해서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필지는 어떻게 알아보죠?”

“그건 단위구 인근 도로를 기점으로 놓고 요도를 항상 북쪽방향으로 놓고 보면 수월해. 3월에 소개해준 필매와 합필의 개념, 기억나지? 단위구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표시해 두고, 필지와 필지의 경계를 스스로 따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요도와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당장 자네가 밟고 서 있는 그 필지와 그 옆의 필지도 마치 한문의 요(凹)와 철(凸)모양으로 붙어 있잖은가. 그러니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주변의 땅 모양을 보는 습관을 기르게.”

선배 주무관님의 직관을 꿰뚫는 말씀이 또 한 번 나를 감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고 업무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쌓이고 쌓여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다. 결국 농업면적조사는 길보기에는 논밭 한번 쓱 보고 적기만 하면 끝나는 조사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수한 공간 지각력과 작물에 대한 다년간의 배경지식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5월 작물조사 때 있었던 일이다. 위아래에 단독주택이 있는 사이 텃밭이 조사대상 필지였는데, 말이 텃밭이지 족히 2,300㎡은 되어 보이는 큰 밭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5월에 새로 나는 작물을 잘 모르고 동행 출장자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라 무작정 갔다. 3월과는 다르게 처음 보는 새로운 작물들이 많이 올라와서 일단 평수부터 적고 작물을 들여다 보는데, 주인 아저씨랑 마주쳤다.

“젊은 사람이 어디서 오셨수? 여기 우리 집 텃밭인데.”

“통계청에서 작물조사 나왔습니다. 밭에 심은 작물의 종류와 면적을 파악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작물은 무엇이고 저 작물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조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무식을 자인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저씨가 나를 한 번 다시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꼰꼰 차면서 말씀하셨다.

“아니 무슨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작물을 모르면 어떡해? 이걸 감자 싹난 거고 저건 고구마야. 저 끝에건 돼지감자랑 옥수수고. 사람들이 밭에 자주 심는 작물은 종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 번 보면 어느 순간 터득이 될거야. 또 필요한 건 없나?”

“예,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 작물이라곤 3월에 본 게 전부인 상태에서 겁도 없이 밭에 달려들었다가 되레 가르침을 받고 나오는 상황이 스스로도 너무 어이없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작물도감을 좀 더 자주 찾아보고 유사 작물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7월 작물 때였다. 7월은 이미 옥수수과 돼지감자가 사람 키만큼 컸고, 감자와 양파 등 일부 작물들은 이미 캐서 없고 참깨, 들깨 등 파종이 늦은 작물들이 싹틀 무렵이었다. 동행 출장중인 주무관님과 시골의 한 단위구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두 발이 걸려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어이쿠!!!”

옷과 조사표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 울무였다. 해당 단위구는 모든 필지에 걸쳐 다양한 식용 작물들을 심었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짐승들의 침입이 빈번했고, 이 때문에 작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울무를 설치한 것이었다.

“괜찮아?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텐 덧이 많아. 한 번의 작물 피해가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아무리 일이 급하다고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야. 더구나 이렇게 더운 날씨엔 뱀이나 땅벌도 심심찮게 나오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돼. 자네 몸은 국가 소유야.”

작물 조사 중 발만 보고 달려가던 습관에 제동을 걸어주는 유익한 경험이었다. 이 덕분에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다니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었고, 모두가 겁먹는 7월 작물을 별 탈 없이 끝낼 수 있었다. 사무실에 와서 정리를 하는데 작물 부호가 헛갈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땐 총괄자분께 항상 질문을 했고, 다행히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가장 헛갈리던 부분은 역시나 풋고추와 홍고추였다.

하우스에 심어도 대량 재배하여 가루를 내는 데 쓸 예정이면 홍고추, 노지에 심어도 열매를 직접 소비할 예정이면 하우스풋고추로 부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규칙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으나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빨간 고추를 잘 펴서 말리는 광경을 떠올려 보니 이내 알 수 있었다.

나무의 경우엔 특히나 애를 먹었다. 다 익은 뒤 잘 씻어서 시장에 내놓은 과일들만 봤으니 막상 매일 먹던 살구와 매실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질 못했다. 한번은 팀장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무슨 나무냐고 물어 보셨는데, 나는 맞추고 싶은 욕심에 4개의 나무를 한꺼번에 말해 버렸다.

“살구요... 아니아니 매실이에요!! 아니 대추나무요!! 아닌가... 뽕나무 같은데요.”

팀장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한참 동안 웃으시다가

“저건 복숭아 나무야. 복숭아가 달려 있어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지. 뭐 경기 북부에서야 많이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작물들은 알고 넘어가야 하니 이 기회에 잘 봐둬.”

팀장님의 말씀에 따라 나무를 보고 또 본다. 줄기 하나, 잎사귀 하나 구별하려고 노력하며 보니 어떤 건 잎사귀에 털이 나고 표면이 꺼끌한데, 어떤 건 둘레에만 톱니모양이 나 있고 실제로는 부드러운 표면이 있고... 정말 농업팀에서 딱 3년만 일하면 적어도 사람이 심어서 소비하는 작물들은 모두 통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양배추와 케일 같이 일정 시기까지 생김새가 흡사한 작물들은 당장 구별하려고 애쓰기 보단 생육을 좀 더 지켜봐. 나중에 작물변경도 가능하니까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을 적더라도 정확성을 추구하는 게 우리 통계청의 목표야.”



## 두려움은 이제 끝 도약을 이루어 준 가축동향조사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단위구

필지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중이다.

내가 맡은 가축동향조사는 2개 면의 69개 농가(6월 기준)이다. 처음 업무량을 받아들였을 때 이 많은 조사를 보름 내에 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지만, 기우였다. 두 개 리를 하루씩 잡고 부지런히 다니니 원래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낼 수 있었고, 조사 종료시까지의 입력과 내검으로 오류를 잡아내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특히 농가의 부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물론 도시 가정들 또한 낮 시간엔 맞벌이 등으로 잘 없지만 농가는 훨씬 심각했다. 젃소 농가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착유 시간을 제외하면 장보러 나갈 때가 많았고, 한우, 돼지 등 다른 축종들도 제각기 집중 관리시간을 빼고는 만나기가 힘들었다.

“사장님, 통계청 가축조사 담당 직원입니다. 잠깐 뵈 수 있을까요?”

“오늘 시내에 임신감별기랑 소독약 사러 나왔는데,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이런 식이다 보니 3, 4번을 재방문해야 만날 수 있는 집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날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축종에 대한 이해였다. 축산물 생산비조사 담당농가와 축종이 겹치는 농가는 그나마 수월했지만, 돼지, 젃소의 경우 아무리 지침서를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돼지 이름에 ‘자돈’이 들어가면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란 거야. 그리고 포유와 이유자돈은 그 중에서도 젃을 떼지 못한 갓난아이인 셈이지. 육성돈은 청소년기처럼 몸이 자라면서 살과 근육이 본격적으로 붙는 시기이고,

비육돈은 다 자라면서 집중적으로 지방을 불려 고기를 만드는 단계야. 비육돈 사육이 끝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돼지를 식용으로 팔기도 하지만, 일부는 번식용으로 쓰기 위해 후보돈, 종돈, 모돈으로 보내기도 하지.”

“아하, 돼지나 사람이나 성장 단계는 비슷하군요. 그런데 후보돈은 무엇 인가요?”

“후보돈은 말 그대로 후보야. 사람으로 치면 엄마인 모돈이 되기 직전 단계 이지. 사람도 임신하기 전엔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몸 관리를 해 주지? 돼지도 똑같아. 추가적으로 종돈이 있는 이유도 사람하고 똑같아. 엄마 혼자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아빠돼지 몇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모돈과 짝짓기를 하고, 그렇게 임신이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고, 분만한 모돈의 숫자를 별도로 기입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돼지는 다 돼지 아닌가요? 그리고 모돈들도 새끼 낳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돼지는 비육돈이 되기 전까지는 소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마릿수 관리가 필수야. 돼지의 임신 시기가 정확히 3개월 3주 3일이거든. 이 때문에 만약 관리를 잘못해서 비육돈이 한꺼번에 많이 출하된다든가. 아니면 전혀 출하가 없다든가 하면 가격 등락폭이 커지고 그만큼 농가엔 부담이 크거든. 그래서 연령별로 마릿수를 적절히 분배해야 가격 안정화도 수월해지고 사육 계획을 잡는 데도 수월하지, 자돈만 만드는 집이 있고, 비육 돈만 만드는 집이 있는데, 이 둘의 균형이 적절할 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화 되는 거란다. 그리고 돼지는 한 배에서 동시에 새끼를 10마리 정도 낳고 1년에 2.2번 넘게 도 출산이 가능해서 모돈 숫자를 보면 몇 달





후나 내년의 새끼 숫자를 예측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 삼겹살 많이 먹으니까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지? 우리가 국내 돼지 공급량을 제대로 전달해 주면 수입량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 정부에서 판단하기가 쉬워지게 되거든.”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장 보면 정말 생각 없이 먹기만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숨어 있었군요. 앞으로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을 때 사육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연설명을 듣고 다시 조사에 나서니 한결 수월했다. 한번은 내 조사구역에서 채 20km도 되지 않는 구역에서 AI가 발생해 닭이 15만 마리도 넘게 살처분된 적이 있었다. 그럴 땐 농가나 조사담당자나 바빠진다. 모든 대상 농가에 전화해서 적절한 방문 시기를 여쭙어보고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산란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에 방문했을 때였다. 농장 입구에 좌우로 커다란 막대가 세워져 있었고, 바닥엔 소독용 발판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 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에서도 보았던 발판이어서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전에는 한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소독약 세례를 받았다.

“앗 차가워!! 이게 뭐야!! 옷이 다 젖었네... 어떡하지... 조사는 해야 하는데. 계십니까?”

“어디서 왔수?”

“통계청에서 가축조사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장님 농장에 산란계가 현재 몇 수 들어와 있나 해서요.”

“지금 중추가 15000수, 성계가 55000수쯤 돼요. 산란율은 85프로 나오고, 근데 급하게 들어왔나보네. 미리 전화했으면 내가 마중나가거나 소독조 전원을 끄고 불렀을 텐데.”

“예, 저도 산란계 농가를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만 이렇게 소독조가 켜져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 손 쓸 틈도 없이 맞았습니다.”

“허허, 옆 동네에 AI난 거 알지? 뭐 우리도 항상 방역이다 소독이다 부산을 떨지만, 불안한 건 매한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 도는 기간엔 항상 소독조를 켜 놔야 돼. 언제 걸릴지 모르는 병인데 감염 확률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더 해야지. 안 그래?”

“네. 듣고 보니 맞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AI나 구제역 유행기간엔 방문할 때 항상 주의할게요.”

농가를 나서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우리는 조사표에 적힌 몇 가지 항목을 알아보러 방문하지만, 우리가 방문하는 그 곳은 농가에게는 삶의 현장이고, 일터인 것이다. 같은 공간이라도 그 곳에 대해 생각하고 이용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응답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통계공무원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가축동향조사나 축산물생산비조사나 가축을 대하는 건 매한가지다. 농장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오직 가축하고만 씨름해야 한다. 소와 같이 대동물인 경우에는 직접 세어갈 수 있지만, 닭이나 오리처럼 소동물인 경우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인내를 가지고 응답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만나서도 조사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농어업통계의 대표적인 농업면적조사와 가축동향조사 모두 사람이 아닌 동식물, 자연과 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업체 조사의 경우 정해진 응답자를 붙잡고 정해진 값을 얻어내기 위해 대화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농어업조사에서도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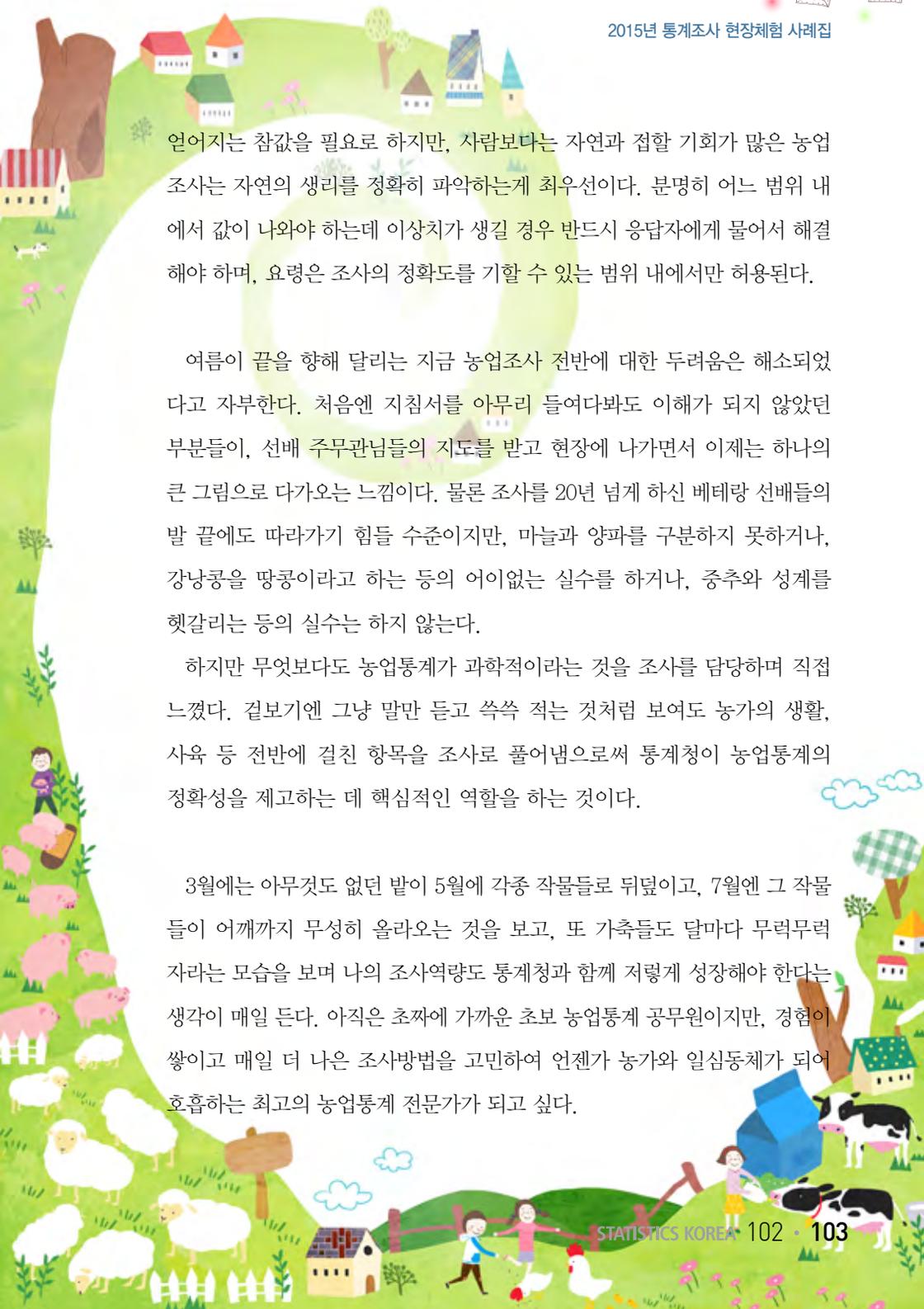


언어지는 참값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보다는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은 농업 조사는 자연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최우선이다. 분명히 어느 범위 내에서 값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치가 생길 경우 반드시 응답자에게 물어서 해결해야 하며, 요령은 조사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여름이 끝을 향해 달리는 지금 농업조사 전반에 대한 두려움은 해소되었다고 자부한다. 처음엔 지침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선배 주무관님들의 지도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물론 조사를 20년 넘게 하신 베테랑 선배들의 발 끝에도 따라가기 힘들 수준이지만, 마늘과 양파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강남콩을 땅콩이라고 하는 등의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중추와 성계를 헷갈리는 등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업통계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조사를 담당하며 직접 느꼈다. 겉보기엔 그냥 말만 듣고 쓱쓱 적는 것처럼 보여도 농가의 생활, 사육 등 전반에 걸친 항목을 조사로 풀어냄으로써 통계청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3월에는 아무것도 없던 밭이 5월에 각종 작물들로 뒤덮이고, 7월엔 그 작물들이 어깨까지 무성히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가축들도 달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의 조사역량도 통계청과 함께 저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든다. 아직은 초짜에 가까운 초보 농업통계 공무원이지만, 경험이 쌓이고 매일 더 나은 조사방법을 고민하여 언젠가 농가와 일심동체가 되어 호흡하는 최고의 농업통계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장려상



# 통계조사 그 속에 나의 열정을 담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아홉

동북지방통계청 이 현 속

“당신은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질문자의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수리 혹은 앞머리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질문자는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나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리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 쌓기였다. 현장조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통계에 대한 지식을 준비했던 나의 통계에 대한 열정과, 통계조사현장에서의 몇 가지 체험들을 되돌아본다.





## 통계 지식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져다 준 추억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계기로 나는

통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 이후 2007년까지 2005인구주택총조사, 도소매업 조사, 사업체총조사, 기업활동조사, 인력실태조사 등 수많은 연간조사에 임시조사원으로 참여하였고, 2007년 10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가구 부문 통계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상조사를 시작하면서 통계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 임시조사원으로 조사에 참여할 때 생각지 못한 것들이 슬금 슬금 나의 알고됨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 궁금함을 해결해 줄 자료나 지침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통계교육원의 사이버교육과정 중 통계에 대한 전문 강의는 거의 없는 실정하였고, 인터넷상의 통계강의도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때 당시 솔직히 가구부문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암담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현장조사에서 얻은 이 자료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통계가 만들어지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또한 조사현장에서 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해 2008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에 편입을 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 되는 것과 동시에 나의 하루하루 생활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고3, 중3 두 아들 뒷바라지, 집안일, 공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익숙하지 못한 현장조사일, 그것도 가구부문 담당자라면 모두 힘들어하는 연동조사였기 때문이다. 알고됨으로 시작한 공부였기에 힘들지만 내색도 어떠한 핑계도 나 자신에게 통하지 않았다. 잠꾸러기라고 소문난 나에게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는 허락된 것이 없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것 하나 포기해야할 부분 또한 없었다. 나의 통계 지식에 대한

열정은 주말이면 나를 도서관으로 향하게 했다. 나의 두 아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가는 길, 물론 아들 녀석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었겠지만 내게는 든든한 후원군과 다니는 길이었기에 더없이 행복한 추억이었다.

그렇게 1년 공부를 마치고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물론 통계학과 1년을 공부한 이후여서 조금은 수월했지만 3차에 걸친 시험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학기에 다 몰려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어찌 이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2009년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0년 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를 졸업하였고,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주말 8시간씩 5주 40시간을 직업훈련기관에서 엑셀을 배워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것들을 이루는 동안 열정 못지않게 고생도 참 많았다. 확장자를 잘못 적어 일주일동안 고생했던 기억, 외워지지 않는 문장들을 힘들게 외우면서 시험 준비했던 순간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고생마저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몇 시간동안 꼼짝 않고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우리 아들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믿으면서 엄마로서 조금은 무심했던 나를 위로해 본다.



## 울고 웃는 연동

2008년 3월 처음으로 2그룹 연동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도 연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많이 한다. 신규조사원들을 위한 프로리더, 연동조사 시작 전 이파트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 통계조사를 실시한다는 팸플렛과 공고문들을



만들어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도 공지하고 각 가구마다 방문하기 전 공문과 함께 조사의 인적사항을 함께 보내는 사전예고 등이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사전에 표본조사에 응답가구로 선정되었다는 공문 한 장으로 연동조사를 시작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연동조사구는 30평형대 아파트로 조사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조건인데 처음으로 조사하는 나는 움츠러들었고 소심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 가계부회수율 40%는 부서회수율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나 자신에게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치였다. 그러다보니 그 조사구아파트가 가까워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근거리고 흔히 말하는 도살장에 끌려들어가는 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서는 대상자를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당당해지자, 나는 공무수행중이며 당신들은 나에게 응답을 꼭 해줘야한다, 당당해지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왜 해당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는지 꼼꼼히 공부하여 막힘없는 대담을 준비했다. 그 이후 한 가구 한 가구 다시 설득해 들어갔다. 그러나 나의 마음가짐과 준비는 그저 나의 준비일 뿐 응답가구는 정말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기에 case-by-case로 다가가야 했으며 방문시간대 또한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두 달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찾아갔지만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명부조사도 못한 집 거실에 불이 켜졌다. 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올라가서 벨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리는 순간 명함을 내밀었다. 그런데 신분증 목걸이도 없이 방문하였다고 큰소리를 치신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손자에게도 이유 없는 고향을 치신다. 아차! 너무 급한 마음에 파일에 꽂아둔 신분증을 목에 거는 것을 잊어버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버린 자신의 실수 때문에 화를 내셨지만 신분증을 제시한 나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직접 확인 까지 해보시고는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문한 결과 현관문을 열 수 있었고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친정 엄마 집에 들어와 사는 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는데 통계 조사 왔다는 나에게 속상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했던 그 어머니의 자존심과 그렇게 많이 찾아가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알고 나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통계조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서 슬퍼하고 그 가구를 원망하여온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불응하는 가구는 알고 보면 저렇게 아픔이 있구나.’

또 다른 가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가구주가 공무원이며 배우자가 간호사인 이 가구는 낮에 방문하면 잔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저녁에 방문하면 집안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계속 조사에 불응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구주를 만나기 위해 토요일 11시쯤 무작정 찾아갔다. 어렵게 가구주를 설득해서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계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직장을 알았기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였더니 지방청에 마침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다. 그 직원을 통하여 가계부를 설득할 기회를 얻었다. 가구주 본인은 가계살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배우자와 이야기하라고 했다. 배우자와 대면조차 할 수 없었기에 만나 이야기해 보라는 말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배우





자를 만나서 어렵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자가계부를 권유했으나 컴퓨터를 열어놓고 그렇게 한가하게 가계부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때다 싶어서 종이가계부를 꺼내놓고 “마트영수증, 카드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은 그대로 해당 날짜에 붙여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니 전자가계부보다는 쉽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조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언니가 와서 살림을 도와준다는 말을 내게 건넸다. 언니가 시종 보는 것들은 어차피 언니한테 돈을 드리는 입장인니까 그 내역을 가계부에 그대로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다. 자동이체 되는 각종 공과금은 월말에 통장 확인해서 가계부 자동이체란에 기재하고, 자녀용돈, 가구주 용돈 등은 미리 준비해둔 보조기입표에 기입하도록 지도했다. 그제서야 그 배우자가 “우리 신랑도 공무원인데 방문할 때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못해줘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짹짹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가까이 다가가서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한 가구 한 가구 설득하고 가구대체도 하고 가계부회수율 90%가 되었는데 몇 달 후 불응하는 마지막 한 가구가 이사를 간단다. ‘야호~’ 정말 신났다. 이사 온 가구를 설득하여 회수율 100% 되는 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뿌듯함이 차올랐던 건 말할 것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했던 아파트 입구는 그렇게 정다울 수가 없었다. 모두가 다 일체유심조 인가보다.





## 꼬리표 달고 다니는 얄미운 빅 마우스

4그룹 연동을 맞았다. 이  
조사구는 가계부회수율은

평균회수율을 유지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이 많은 조사구였다. 빌라(8가구)대표가구에 처음 방문했을 때 대학생 자녀들만 있어서 공문과 연동 설득가구용 조사필수품 냄비를 자녀들에게 맡기고 오후 7시쯤 재방문 하였는데 빌라 가구 대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방문했느냐, 다시는 오지 마라’는 말과 동시에 조사필수품(냄비)을 빌라 계단에 내동댕이치셨고, 그제 끝이 아니라 빌라주민들에게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조사는 응해주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녔던 것이다. 조사구를 교체할 만큼의 불응은 아니었기에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불응가구 설득지원팀과 같이 방문설득도 하고 팀장님과 같이 방문설득도 하였으나 3가구가 결국 3년 내내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가구로 남은 조사구였다. 이렇게 동대표가 선동한 조사구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지 지난 1월 6년 만에 돌아온 4그룹 연동조사구에서도 동대표가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초기대응을 위해 팀장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인터폰을 계속 눌렀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혼자서 방문한 어느 날 한차례 문은 열렸지만 엄마보다 한술 더 뜨는 대학생 아들이 나왔다. 엄마가 못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찾아왔다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경찰 부르십시오. 저는 공무수행중입니다. 공무수행 방해로 도리어 잡혀 갈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욕설을 퍼 부으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고 있던 내 발을 밀어냈다. 그대로 현관문이 팽! 닫혔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결국 인터폰은 내려놓아졌고 안에서 들려오는 큰 음악소리 속에 그렇게 난 허망하게 서 있다가 돌아와야만 했다. 어떻게든 설득하고자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고용동향조사 자료들과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목적 등을 담은 거의 애원에 가까운 손 편지를 몇 차례 보내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 한번 없었다. 팀장님께 부탁드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후에야 주민들 선동은 그만하시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미 선동당한 가구들을 재 설득하는 것은 몇 배의 어려움이 따랐다. 1층에 나란히 사는 두 집 중 한 가구는 설득했으나 한 가구는 반쯤은 쓰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쓰지 않아둔다는 말을 듣고는 완강하게 거부했으며 만나주지도 않고 딸을 통해 못쓰겠다고 말만 계속 전달하였다. 결국 아쉽게도 한 가구는 가계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지난 5월 인수인계를 마쳐야만 했다.



### 경제통계 전문가로 비상하는 그날까지

지난 5월, 8년 동안의 가구  
부문 조사를 마치고 경제조사과

물가통계팀에서 서비스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조사를 처음 접하는 나는 통계교육원 소비자물가조사 사이버 과정과 조사지침서를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물가통계팀원들이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도감을 활용한 소비자물가조사(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책자를 보며 눈에 익히고, ‘소비자물가조사 공업제품도감’이라는 직접 제작한 App을 내 휴대폰에 실행시켜주신 주무관님과 물가통계팀원들의 가르침 덕분에 현장조사에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사표에 나와 있는 세부규격대로 조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렵지 않다고 여겼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내 생각과는 달리 채소, 과일, 수산물 등 규격에 맞는 크기와 무게를 하나하나 확인해야하고, 어디에 무엇이 진열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대상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인데 통계조사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만지기도 조심스럽고 눈치도 보였다.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눈치는 보이지만 소비자물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바꾼 줄자 키홀더로 상품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길어도 재고, 크기와 무게도 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조사는 조사품목별로 1권역 1조사대상처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다 보니 대상 업체 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는 것이 방향치, 길치인 나에겐 정말 힘든 일이다. 인수인계 때 가 본 곳이지만 어디가 어딘지 그 때 가본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승용차를 타고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가보면 조금 전에 갔던 곳이고 또 다시 그곳이었다. 그렇게 대상처 찾기 반복 끝에 겨우 첫 서비스 가격조사 마감을 끝내고 사무실로 향하려고 보니 어느새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첫 서비스가격조사 마감 후 대상처가 지도상에서는 바로 옆이라도 길을 건너가야 하는지, 유턴을 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체 위치를 찾아 지도에 점을 찍는 작업을 다시 했다. 지금도 그 지도와 네비게이션에 의존해 다니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의 도움 없이 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물가지수 작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통계조사에 임한다.

경제통계전문가로 비상할 그날을 위해 경제지식 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 열심히 읽고 있다. 경제공부가 재미는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는 가지되 열정을 잃지 않고 천천히 즐기면서 공부하리라, 또한 나의숙명인 통계조사도 즐기면서 열심히 하리라' 라고 오늘도 난 다짐한다.



# 좌충우돌 농업통계 적응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

동북지방통계청 정수진



## 너는 누구? 나는 어디?

2015년 3월 23일 농어업조사과  
첫 발령!

처음 농어업조사과로 발령받았을 때는 걱정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정장에 뽀족구두와 함께 향했지만, 첫날부터 제1회 작물재배면적조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내 옷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등산복을 준비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멘붕. '뭐 어려울 게 있겠느냐'라는 마음가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 생애에 식물을 키워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나에게서는 모두가 생소했다.

논두렁, 밭두렁을 돌아다니며 이건 양파, 이건 마늘 하시는데 입은 '네네!'

하지만 머릿속은 ‘다 똑같아 보이는 이 잡초가 양파란 말인가?’ 했다. 절대 순탄하지만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현장조사를 나갈 때는 화장을 고치기보다 얼굴에는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등산복으로 갈아입는다. 한 손에 지적도, 한 손은 휴대폰을 들고 나선다. 휴대폰은 나의 분신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이면 그날은 행운인 날이다. 두리번거리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선 달려가 붙잡고 본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지만, 나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다. 길은 물어봐도 여기 심긴 것이 뭐냐 물어볼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사람을 만나지 못한 날에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대답이 없는 작물과 한참 씨름을 한다.

‘너는 누구니? 여긴 도대체 몇 평이야?’



가던 길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내가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이다. 한참 대화를 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찰칵! 찰칵!’ 하는 소리만 울려 퍼진다. 여러 각도에서 열심히 찍지만 열 장을 찍으면



다섯 장은 한 작물이다. 나중에 한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걸 찍으려고 뜨거운 날씨에 방황했던가’하고 허무함이 밀려온다.

생육단계별 다르게 생긴 작물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가 찍은 사진과 작물 도감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하나 익혔다. 아직 모르는 작물도 많지만, 지금은 눈에 익은 작물도 많이 생겼다.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모르는 작물을 보면 무조건 찍어둔다. 하나씩 쌓여가는 앨범 속 사진만큼 내 머릿속에도 작물이 하나하나 입력되고 있다.

작물조사를 나가면 길 찾아가는 것도 일이다. 길도 없는 산속을 헤집고 들어가는 선배님 따라 ‘헉헉’ 거리며 쫓아가니 이번은 처음이라 동행출장이지만 다음부터는 혼자서 다녀야 한다고 하셨다. 이 외진 산골에 여자인 나 혼자 조사 다녀야 한다니, 꽃다운 나이에 어떻게 될까 봐 겁부터 났다. 겁먹은 내 얼굴을 보고 선배, 동료들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선배님의 위로 말씀에 다소 마음을 놓아 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제2회 작물재배면적조사, 나름 길치는 아니라고 자부심이 있던 나는 지도도를 거꾸로 들고는 코앞에 필지를 두고 한참을 뱅뱅 도는 것은 기본이었다. 동서남북도 제대로 찾지 못하니 조사하는 시간만큼 길 찾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해매는 시간이라도 줄이려고 지도도에 나만의 표시도 해두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틈틈이 인터넷 지도를 보고 지리를 익혔다. 이런 나를 본 선배님께서서는 “땅 살라고?”, “지도 외우겠다”고 하셨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주변까지는 찾아갈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



조사를 하고 나면 먼지투성이에 꼬질꼬질한 얼굴을 하고 돌아온다. 퇴근 하면 턱 끝까지 내려온 다크써클에 내 몸은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지만, 뉴스 시간에 “통계청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조사한 거야!’ 하고 통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지나갈 땐 여긴 뭐가 심겼나 하고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친구들은 이제 농사지어도 되겠다고 하지만 아직 농업통계의 새내기로서 갈 길이 먼 것 같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조사한 농작물을 수확할 때쯤이면 나도 여기서 한층 더 커 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그때에는 나도 선배님들 처럼 척하면 척할 수 있는 농업통계의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 의지의 통계인

농어업조사과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모든 조사에서 응답자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 다 응답자를 설득해서 조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응답자를 만나 조사를 하는데 당최 알 수 없는 용어들로 오가는 어색한 대화 속에서는 1분 1초가 길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긴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천천히 물어보라며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 주시는 응답자분들이 너무 감사했다.

모두가 협조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비협조적인 농가도 있는 법!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응답자. ‘제발 받아라’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받으면 ‘무슨 말을 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뚜--- 뚜--- 끝에 드디어 연결된 수화기 너머 들리는 말은!

“바쁘니다. 오지 마세요. 뚝!”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전화 연결에도 응답자분은 “밖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하시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 쌀쌀맞은 아버님의 목소리에 전화를 끊고 나면 점점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어 옆의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무작정 쳐들어가 보란다.

다음날 큰 맘 먹고 조사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까지 가는 길이 초조하고 왜 그렇게 힘들던지. 찾아가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만한 개가 금방이라도 달려올 기세로 짖어대니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대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다 허탕을 쳤다.

그러다 또 며칠이 흘렀다. 걱정하는 나에게 멘토로 정해진 선배님께서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반가운 마음에 동행 출장하여 현장에

갔다. 약속도 없이 왔으니 경영주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동행해준 선배 멘토님께 괜히 죄송했다. 출장 결과를 팀장님께 보고하고 힘없이 앉아 있으려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만나지는 못해도 농가로 계속 찾아갔다. 문자에 전화에 집 앞에서 기다리다 명함에 메모도 해서 끼워두고 오고 음료도 사 들고 가서 놓고 왔다. 몇 번의 방문 끝에 아버님도 내 마음을 아셨는지 뵈고 싶다는 말에 드디어 약속을 잡아 주셨다.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화내시면 어떡하지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와는 달리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시는 아버님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일이 좀 풀리겠구나’ 하고 조사를 했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내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이거 올해만 하고 그만하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만남을 허락해 준 그 자체만이라도 기뻐지만 기쁨도 잠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아버님을 설득해서 계속 조사를 이어가리라 하는 올해의 목표가 생겼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 중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통계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보여드리면 아버님도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싶다.

축산에 대한 지식과 많은 정보로 초보라는 딱지를 떼고 아버님과 농가에 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더욱 쉬워지겠지? 차근차근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열심히 배워서 설득해 보려 한다.





## 총알처럼 지나간 시간

새 출발을 통계청에서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4개월이 어떻게 지나간 지도 모를 만큼 너무 빨리 지나간 것만 같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따뜻한 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을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더운데 고생 많다며 음료수, 아이스크림, 수박 등등 이것저것 꺼내 주시며 손녀처럼 딸처럼 대해주신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혼자 빨리하고 가면 되는데’ 하는 마음에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말에 마당도 내어 주시고, 직접 길도 알려주시고, 나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고 오는 날에는 내 마음도 든든해져서 돌아온다.

의외의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내가 받은 따뜻한 기운으로 어떤 응답자분을 만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조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한다. 처음이니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다. 농업통계의 새내기로서 좌충우돌 적응기를 겪고 있지만, 오직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내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다.

“할 수 있어! 파이팅!”





# 세 명의 아버지와와 소중한 인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하나

동북지방통계청 황보애숙

통계청에 입사한지 5년차, 나는 지금 농가경제 업무를 하고 있다.

입사하기 전 타기관에서 농사에 대해 좀 알았던 터라 이것쯤이야 못할까?  
'그 집 안마당 풀도 다 뽑아줄 수 있겠다'라며 의기양양했던 나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며 후회를 했다.

왜냐하면 8월 4일 그 무더운 날씨에 입사하여 농가에 인수인계를 하러  
가니 10가구 중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저 논이 누구 논인지? 또 그 밭은  
누구 밭인지? 작물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많았다.

농가경제 지침서를 보고 있자니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인데 도대  
체가 무슨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일단은 출장을 가서 얼굴부터 익히자라며 농가에 방문을 했는데 어찌나 어색한지 그 어색함을 감추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연신 웃었다. 그리고 눈이 빠져라 농가경제 지침서를 보며 잘모르는 것은 동료들에게 물어가며 이 자리까지 오게되었다.

출장을 가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다보니 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다. 어릴적부터 아버지와 유독 정이 많았지만 위암으로 돌아가신지 11년째,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는 기억 속으로 들어가 현실 속의 아버지는 없었다. 그런던 나에게는 한명도 아닌 세 명의 아버지가 생겼다.

지금부터 세 명의 아버지와의 소중한 인연 속으로 들어가보려 한다.

### 첫 번째 나의 아버지는 83세 최○○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처음 만난 날 농촌의 대문은 언제나 누구를 반기듯 열려져 있었다. 현관문을 두드리기를 몇 번째 누구신고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다.

머리가 하얗고 체구가 자그마하신 분이 나오셨다. 당신은 귀가 잘 안들리고 내자(어머니)는 눈 수술차 딸내집에 가셨다고 한다. 일단은 농가경제 조사에 대해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나니 빙그레 웃으시기만 한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의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날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다음날 두 번째 방문을 하였다.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아 여쭙어보니 며칠 더 쉬었다가 오신다며 나를 반기셨다. 친환경 사과 농사를 지으신다며 거기서도 영농일지 쓰신다고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영농일지 적는 요령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몇 번의 방문 끝에 허락을 받았고 그 이후로 지금껏 나를 한결같이 반겨 주신다. 사과 작업은 친환경일지를 보며 적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 그대로 영농일지에 옮겨 놓으셨다. 필체도 좋으며 정성껏 잘 적어놓으셔서

한편으로 안심을 했다.

차편이 많지 않아 장보기를 힘들어 하셔서 출장가기 전 꼭 전화를 드려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쭙어 본다. 작년 가을 전화를 드리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신다며 오지말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께 모시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라 말씀드리고 택으로 가서 병원으로 모셨다.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시고 영양제를 맞는 동안 아버지와 늦은 점심을 먹고 약을 타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어머니의 죽도 챙겼다. 아버지가 차비라며 3만원을 내놓으셨다. 이러시면 이제 여기 못온다며 거절을 했다. 출장시 간혹 점심시간때 쯤이면 아버지 집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두분의 마음을 알기에 그 돈은 받을 수가 없었다.

지난 설에는 아버지 식구에게 하시듯 나에게도 똑같이 세뱃돈 만원을 주셨다. 설날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세뱃돈이라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양곡가구이기에 매월 말일이면 이것저것 더 물어보지만 매번 나가 서서 나락포대수를 헤아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신 날도 빠짐없이 말해주시고 나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신 것 같다.

자녀분들이 힘드시다며 농사규모를 줄여서 이제는 나를 못보나하고 걱정도 하셨다는데... 건강한 모습 오랫동안 비었음 좋겠다.





## 두 번째 아버지는 71세 전○○ 아버지시다.

처음에는 동료조사원의 표본농가였는데 업무 분장으로 인해 나의 표본농가가 되었다. 동료 조사원과 인수인계를 받기위해 아버지 집으로

갔다. 동료조사원이 앞으로는 자기를 대신하여 내가 오게 되었다며 소개한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동료조사원과 섭섭하다며 얘기를 나누신다.

두 번째 방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전에 오던 동료조사원이 좋았다는 얘기만 하신다. 아버지 눈에는 내가 탐탁지 않은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다. 이후로 자주 뵈다보니 내가 익숙해서인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싶을 즈음 아버지는 학교 경비일을 하시던 중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까지 받으셨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아버지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아버지께 용역회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로 조목조목 따져 아버지의 부당함을 제대로 해결해 드렸다.

그때부터 나를 인정하시고 딸로 생각하시며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 이제는 나에게 즐겁고, 좋은 일뿐 아니라 속상한 얘기까지 하시고 김장도 같이하는 우리는 진짜 부녀지간이 되었다.

허리 수술한 것이 재발하여 7월달 갑자기 걷지를 못하여 직장을 그만 두셔서 지금은 시술 받으시고 농사일에만 전념하신다.

아버지는 소도 잘 키우시지만 채소농사를 잘 지어서 아버지의 채소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잘 팔리기 때문에 나도 팔아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며칠전 열무와 울릉이 좋아서 서로서로 달라고하여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채소 판돈을 드리니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니 돈이 아쉬운데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좋아하셨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왔다갔다 하면서 힘은 들지만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예전에 암수술도 하시고 지금도 건강이 안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영농일지를 꼬박꼬박 적어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 며칠있다가 집에서 키우는 닭 잡아서 먹자고 하셨는데... 기다리고 있을게요.

### 세 번째 나의 아버지는 70세 강○○ 아버지시다.

지금같이 아오리가 익을때면 과수원에서 절로 큼직하고 이쁜 아오리를 따서 나에게 먹어보라고 주셨던 정호태아버지가 췌장암으로 한 달 보름 만에 돌아가셔서 단독가구가 되는 바람에 올해1월 표본대체로 맺은 인연이다.

표본대체를 하던 중 불용가구가 많아 유독 많이 힘들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동료조사원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동행출장을 나갔다.

일단 집으로 찾아가보니 한눈에도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남의 과수원에 전지작업을 하러 가셨다길래 휴대폰번호를 물어 전화를 드리니 계시는 곳으로 오라고 하셨다. 통계청에서 왔다고하니 통계청은 모르겠고 무슨일로 왔냐며 첫 번부터 말을 편하게 놓으셨다. 생김새도 깐깐해 보이고 말씀하실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이 목소리 톤이 크시다. 동료조사원이 농가경제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던차 알았다며 포터 짐칸에 놓고 가라시며 영농일지 일년치가 얼마냐며 물으셨다. 매달 마지막주에 가져다 준다고하니 공짜냐며 알았다고 하셨다.

표본농가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서 과수원을 나오며 동료조사원과 서로 쳐다보며 여느집과 달라 의아해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문때 처음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버지의 걸음걸이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불편해 보였다. 첫날에 일지를 두고가면 적어놓으신다고 하시더니 적어놓은게 하나도 없었다. 이유를 여쭙보니 농사짓는 것도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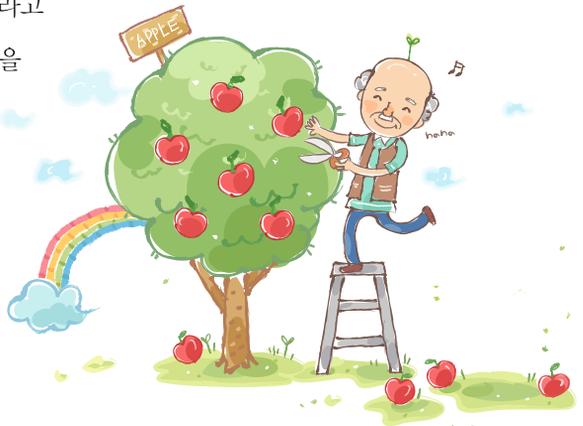


않고 쓰는 것도 별로 없다며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집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농가경제조사는 통계를 위한 표본조사이며 농사규모가 다 같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설득을 하였다.

그로부터 몇 번까지도 적어놓으시지 않아 만날 때마다 여쭙어보고 적어왔다. 원부조사시에는 몹시도 귀찮게 한다고 하시며 등을 돌리고 앉아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여쭙어보면 저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고래고래 고품을 치셨다. 그러나 3월달 아버지는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셨다. 회복하시는 동안 자주 찾아뵈며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드리니 멀리있는 자식보다도 낫다며 그때부터 나를 딸래미라 부르신다.

아픈다리를 절어가며 암수술 하시고도 쉬지도 않으시고 2,000평이 넘는 사과농사를 위해 애쓰시는걸 보니 내내 마음이 아팠다.

4월달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시더니 아무말없이 아픈다리로 엄나무로 올라가셔서 엄나무순을 따주시고 어머니는 그걸 비닐에 가득담아 주시며 아버지가 딸래미오면 준다고 마음먹고 있었다며 가지고가서 먹으라고 하셨다. 몸에 좋은 엄나무순을 아버지 건강도 안좋은신 데 드시라고하니 좋은 거니까 딸래미도 맛 봐야지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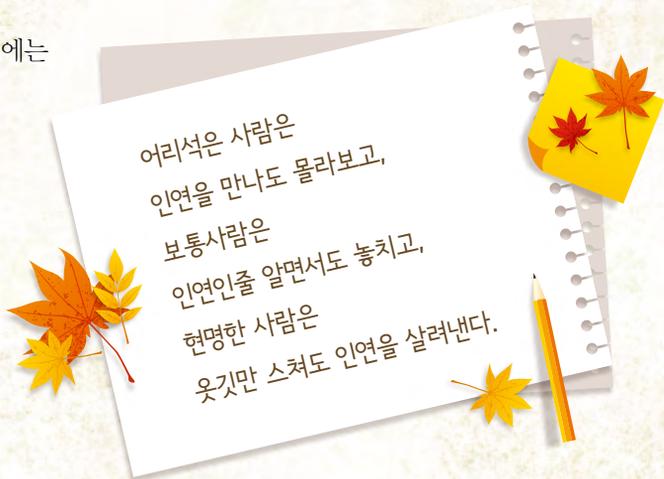
나는 며칠뒤 아버지 칠순때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떡케익에 담아 보내드렸다.  
지금도 가서 적어오는줄 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아버지께서는 갈때마다  
얼마나 잘적어 놓으시는지 흐뭇하기까지 하다.

근데 아버지 제발 쉬엄쉬엄 일하시면 안될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수확한 채소며 담귀 놓은 콩잎, 열무김치 등을 주시며 늘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들.

내가 무슨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아버지들과 함께하는지, 그때 통계청을  
그만두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피천득님의 '인연'에는  
이런말이 있다.



나는 통계청에서 아버지들과의 인연을 살려내며 나라의 일꾼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통계조사를 할 것이다.

나는 세 아버지의 소중한 인연으로 정말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친정에 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장을 간다.

아버지 저 왔어요~~~~~



#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거야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둘

동북지방통계청 김 은 솔

지난 5월, 사회팀 업무를 처음 시작하고 신규자인 내가 맡게 된 조사구는 별도 집세 조사구 하나, 경찰 조사구 하나, 가계+경찰 조사구 둘 이렇게 4 조사구였다. 조사를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조사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고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조사구에 가 혼자 가구 앞에 서면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겁도 많은 내가 벨을 누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른다. 가구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답지도 않은 날씨에 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아..아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어요”

처음 가구 방문을 한 그 날, 잠깐의 침묵도 어색해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을 해서 허둥지둥 하던 모습을 어머니가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할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실지 잘 몰라,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살피곤 했다.

한 달 쯤 지나 아직 조사에 제대로 적응도 하기 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조사구에 원룸이 신축된 것이다. 기존에 하던 조사만으로도 벅차 정신없던 나에게 집세 80집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2~3일의 짧은 집세 기간 동안 그 많은 집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까... 혼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한 방법은 원룸 주인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에 대한 설명과 집세 조사를 하는 이유,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을 이야기 하면 조사에 응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원룸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그런 걸 내가 왜 말해줘요?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원룸 주인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그 다음부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무시를 하셨다. 원룸 주인만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로 바뀌고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한 것이 처음이었던 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대우 받으려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통계청에 먼저 입사한 친구들에게 현장조사 업무를 하면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을 쓸 일이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미리 듣고 들어와서 다 관촬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직접 겪으니 우울함이 바닥을 쳤다. 좌절했지만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 번의 실패를 맞본 후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손에는 조사표를 들고 마음을 다잡으며 부동산으로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아빠 연세 정도 돼 보이는 아버님 세 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일제히 경계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어요.”

“뭐?!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님 통계청이에요! 저희가 하는 조사 중에 여기 ○○동 집세를 조사하는 게 있어서 아버님께 여쭙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하며 빵을 내밀었다.

“출출하실 때 드시기 좋을 것 같아서 빵 조금 사왔어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 봐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에 계신 아버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앉아서 함께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대략적인 시세만 아실뿐 직접 계약을 하지 않으셔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셔서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성과가 없이 시간이 흘러 집세 마감 전날 밤이 되었다. 사무실에 앉아 새로 들어온 거처의 명부를 다 작성하고 집세 조사표는 채우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다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 선배 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보려고 늦은 시간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충분히 고생을 했으니 밤도

늦었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폭 자라는 한마디에 돌덩이 같이 무겁던 마음의 짐이 거짓말처럼 조금은 덜어 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집세 총괄 주무관님께서 원룸은 주인에게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원래는 가구를 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며 하루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원룸이어서 낮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드나드는 사람 하나 보기도 힘들어 퇴근 후 조사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룸메이트와 언니 한 분이 원룸은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같이 거주겠다고 하셨다. 저녁을 먹고 조사구로 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시간만 계속 흘러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인터폰을 눌러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빈집이 많았고 또, 인터폰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공실과 사람이 사는 집에 인터폰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안 것처럼 셋이 함께 기뻐했다. 밤에 인터폰으로 접촉을 해 대부분이 불응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늦은 시간에도 밖으로 나와 조사에 응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한다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감사했다. 혼자였으면 응답자들의 반응이 걱정되고 겁도 나서 일일이 인터폰을 눌러 조사를 할 생각을 못 했을 건데, 룸메이트와 언니가 함께 가서 도와주셔서 놀러온 듯이 즐겁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그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사에 잘 응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몇몇의 불응 집들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그리고 조사 기간에 늘 혼자 조사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주무관님들이 조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사회 팀 업무를 1년 정도 하다 온 룸메이트가 어떻게 조사하는 지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당시 한 가지 더 힘들었던 점은 가계+경찰 두 조사구가 연동으로 새로

들어온 조사구라는 사실이었다. 응답자들도 통계청 조사를 낯설어하고 경계하고 있어서 조사구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또 왔어요?”, “나 이거 안하면 안돼요?”였다. 지금은 “에이, 어머니 이제는 안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 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지만 그때는 가구의 어머니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기 일 수였다.

○○조사구의 가계동향 조사 대상 가구들 중 사생활 노출에 엄청 예민한 한 가구가 있었다. 그 가구에서 처음부터 종이 가계부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하셔서 내 전임자 조사관님이 전자가계부로 설득을 해주신 상태였다. 그런데, 조사구를 모두 인수 받고난 후 가계부 마감일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가구에서 전자가계부를 하나도 입력을 하지 않으신 것이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택에 가도 될 수가 없어 불응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하다가 문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실 테니 문자를 남겨보라는 조사관님의 말씀에 문자를 하나 보내놓았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깐 뵈던 통계청 김은솔입니다^^ 이제 처음 발령받아 서툰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전자가계부 마감일이 다 되어 가는데 힘드신 점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참이 지난 후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어찌지요?”

라고 답장이 왔다. 바로 병문안을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안와도

된다며 극구 사양을 하시며 앉아있지를 못해 가게부는 못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영수증 가지고 계신 거랑 매달 나가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게부에 옮겨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겠냐고, 가게부 조사필수품이 아까워서 그렇다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협조를 해주셔서 다행히도 기간 내 가게부를 마감할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난 후 한번 뵈러 가기위해 연락을 드렸더니 금요일 저녁 7시에 오라고 하셨다. 금요일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댁으로 가야하는 날이어서 슬펐지만 그 날이 아니면 또 못 뵈 수도 있을 것 같아 금요일 저녁 롤 케이크와 가게부 조사필수품을 들고 댁으로 방문을 했다. 경계를 많이 하실까봐 걱정을 하고 들어섰는데 딸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이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에 능숙하시지가 않아 전자가계부를 쓰시는 방법을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해 드렸다.

“아버님~ 제가 반복 지출되는 내용을 미리 입력해두면 아버님이 가게부 쓰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저한테 전자가계부 비밀번호를 알려 주시면 제가 입력해 두는 게 어때세요?”

“아 그래요. 그래주면 더 낫지~ 비밀번호는 \*\*\*\*\*이예요.”

“

아버님~ 요즘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아버님, 어머니는 카드 많이 안 쓰세요? 전자가계부 시스템에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 오도록 등록 하는 게 있어요. 해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카드를 쓰니까 불리오기 해놓으면 편하겠네. 그 것도 등록해 주고 가요.”

경계가 심하실까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협조를 정말 잘해주셨고 가계부 기입지도를 다하고 4월분 조사필수품을 드리며 감사인사를 전했더니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이 받는다고 내가 더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처음엔 제일 많이 걱정했던 가구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조사를 위해 연락을 드리면 언제든지 응답을 잘해 주시고 전자가계부도 가장 잘 적어주셔서 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 조사구의 어머니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곳은 5그룹 연동 신규 조사구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가 조사를 해나가는 곳이라 조금 더 정이 가는 조사구이다. 요즘 시골에서 어른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통계청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어머니들께 통계청이 뭐 하는 곳인지, 이 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지난 7월, 4구역 예비조사를 했을 때 일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통계청이 뭐하는 곳인데요?”

“어머니~ 통계청은 인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머니 어떤 일 하시는지 몇 시간 일 하시는지 이런 것 여쭙 보려고 왔어요.”

“그런 걸 물어봐서 뭐하려고? 뭐... 일자리라도 주려고 그러나?”

“TV에 보면 실업률, 취업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예요! 어머니 이걸 제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응답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상품권이에요.”

“나라에서 왜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거 받아서 썼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라에서 왜 돈을 주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투명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쭙보는 내용에 대해 응답도 다 해주시고, 더운 날씨에 내가 힘들까봐 옆에 앉으셔서 부채질도 해주시고, 더우니까 수박 먹으라며 내미시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다. 아버님, 어머니들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조사를 어색해하고 싫어하던 내가 요즘 △△으로 조사를 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에 가게 아버님은 요즘 내가 가게부 기입지도를 갈 때 마다

“아버님~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감사 합니다.”

“더운데 힘들니까 오지 마. 요새 날씨가 얼마나 더운데... 이럴 때 돌아다니면 힘들어~”라며 걱정해주신다.

마을에 들어서서 그늘에 앉아 이야기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을 보고 달려가면 “아이고 예뻐라”, “더운데 모자라도 쓰고 다니지”, “더우니까 시원하게 이거 하나 먹어”, “단 호박 좋아해?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차를 여기 가까이 대놓지 왜 이렇게 멀리 대놓고 왔어 힘들게”라며 많이 예뻐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요즘 △△에 여러 명의 엄마가 생긴 것 같다. 어머니들께서 놓고 계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앉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처음엔 무뚝뚝하게 조사에 응해주시던 어머니들도 “어머니~ 저 통계청에서 왔어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하면서 들어



서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내가 어머니들께 잘 하고 있구나’라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얼마 전 ○○에 가계부 쓰시는 어머니를 뵈러 몇 번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다. 갈 때마다 집에 안 계셔 어디 가셨나 싶어서 문자를 하나 남겼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뵙고 싶어서 몇 번 갔더니 안 계셔서요. 언제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뵈러 갈게요.”

“은솔씨 미안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지금 친정에 와있어요. 날씨도 더운데... 보고 싶기도 해요. 집에 가면 연락 할게요.”

처음엔 내가 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귀찮아만 하셨는데 어머니의 보고 싶다는 답장에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현장조사 일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많이 느끼고 있다.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라는 말이 있다. 힘들게만 느껴지던 조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째이다. 여전히 내가 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가구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조금해 하고 답답해하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고 난 오늘도 또 다시 조사구로 향한다.





# 농업통계 새내기 농촌 적응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셋

동북지방통계청 오 지 선

신규자 교육을 받을 당시 “우리 팀에 한자리 비워져 있어요. 책상도 깨끗하게 치워놔오니 어서 와요~”라고 말씀하시던 팀장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교육이 끝날 즈음 내가 영월사무소로 발령받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덕분에 하게 되는 일이 농업통계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었다.

태어나서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고 밭에서는 뭐가 나는지 논에서는 뭐가 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처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똑같기에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부딪쳐 보기로 했다.



야무진 다짐과 함께 “안녕하세요. 신규자 오지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무소 직원들께 인사를 드렸던 날이 2014년 12월 18일. 벌써 7개월이 지났다. 유난히도 길었던 7개월 동안 겪었던 농업통계 새내기 의 현장조사 체험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 내겐 너무 힘든 운전, 5수 끝에 얻게 된 운전면허

“지선씨, 운전면허는  
있지?” 통계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아니요. 운전면허 없어요. 이제 따야죠”라고 열 번은 더 대답했던 것 같다. 발령지가 영월임을 알게 된 후 사무소 근처에 운전면허 학원이 있다는 말에 발령 받자마자 면허를 따야겠다고 생각했고, 1월 초 즈음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다. ‘지금부터 하면 넉넉하게 잡아서 2월이면 면허를 따 관용차를 운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대부분 내게 “에이~ 두 번째는 될 거야. 두 번째도 떨어지겠어?”라고 말씀 하셨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정말 두 번째도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침착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응시한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앞으로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했던 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었다. 면허시험에 합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구매하게 되었고 2~3주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혼자 조사업무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6월 가축동향조사 출장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사무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건지 얼마 되지 않아 차 뒷부분에서 ‘뽕그랑~’ 소리가 났다. 놀란 마음에 차를 멈추고 나가보니 내 차 뒷부분의 라이트 부분이 뒤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난 소리였다. 후방 감지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엑셀을 밟아서 부딪친 모양이었다. 소리에 놀란 차주 분께서 밖으로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 가축동향조사 응답자 분이였다. ‘이제 조사하기 어려워지는 건가?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씀드리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쯤 이었다. 응답자 분께서 “아가씨 괜찮아요? 소리 듣고 놀라서 나왔어요~” 라며 말씀하셨다. “내 차는 포터라서 튼튼해서 괜찮아요. 아가씨, 새 차에 흠집이 가서 어떻게 하나? 얼른 가서 수리해요~”라며 본인의 차 보다는 나를 더 걱정해주셨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운전이 많이 익숙지가 않아서... 차 정말 괜찮은가요?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정말 죄송해요”라며 안절부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안쓰러우셨던지 “아이~ 괜찮다니까~ 얼른 가서 아가씨 차 수리해요. 초보 때는 원래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소리 때문에 놀랐을 건데 가서 진정하고 쉬어요”라며 다독여 주셨다.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9월 조사 때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친 사람도 없었고 차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 사건이 있는 후 모두의 걱정 속에 아직도 불안한 출장길을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운전 실력이 향상되어 큰 문제없이 출장을 잘 수행하고 있다.





## 태어나 처음본 소,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축산물생산비조사

2014년 12월 처음 사무소를 발령을 받게 된 후 첫 인수인계가 축산물생산비조사였다. 용어가 생소한 내게 선배님들께서는 쉽게 말해 소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 말씀해주셨다. ‘아~ 그러면 가서 응답자 분을 만나서 비용을 여쭙보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응답자 분 댁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차에서 내렸는데 어디선가 나는 정겨운 냄새, 축사에서 나는 냄새였다. 집 옆에 축사가 붙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터라 꽤나 신기한 눈으로 축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응답자 분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소를 처음 봐서 그러는데 소 좀 가까이서 보고가도 될까요?”라며 양해를 구했고 응답자 분께서는 “히히, 그거 뭐가 신기하다고~ 가서 보고가요~”라며 허락해주셨다. 소와 눈도 마주쳐보고 축사를 한참 둘러보다가 인사를 드린 후 사무소로 돌아왔다. 사무소로 돌아와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을 정리해보고 지침서를 보는데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선배님들께 여쭙보기도 하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갔다. 드디어 처음 혼자서 조사를 나가게 되었다. 새끼는 낳았는지, 소를 파신 건 없는지, 사료는 어떻게 먹이시는지, 공과금은 얼마나 내셨는지 등 여러 가지를 여쭙보았다. 일계부를 정리하다가 의문이 나는 부분은 전화로 여쭙봤고 응답자 분께서는 친절하게 답해주셨다.

3개월 전 쯤 이었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다. 아직도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그대로 옮겨본다.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이에요. 여쭙볼게 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응답자 : (엄~청 기쁘고 들뜬 말투로)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새벽에 새끼 낳았어요!!!

나 : 오오오오!!!! 축하드려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응답자 : 암컷이에요!!!!!!

나 : 송아지 건강하죠?? 어미 소도 건강한가요??

응답자 : 그럼요! 아무문제 없어요!!

나 : 조만간 찾아뵙게요. 정말 축하드려요!

4개월 정도 조사를 나가는 동안 응답자 분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다.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에 여쭙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잊고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난다. 1주일 후 째 출장을 나갔을 때에도 아저씨께서는 축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그 후에도 2마리의 소가 더 태어났지만 그 때만큼 기뻐하시는 모습은 못했다. 아마 오랜만에 태어난 송아지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최근에도 수정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수정이 잘되어서 건강하고 예쁜 송아지가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 논, 밭도 구분 못했던 새내기가 혼자서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나서기까지

“지선씨, 이거 밭이에요? 논이에요? 알아요?” 라는 질문에 “음... 밭인가요? 모르겠어요”라며 자신 없게 대답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벼가 논에서 자라고, 논에는 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에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마늘을 키우고 있는 밭에서 “오오, 저건 대파예요?”라며 선배 분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다. 작물도감에 있는 자료를 보기도 하고 선배님들과 같이 밭에 나가 실습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했다. 이번 7월 3회작 때의 일이었다. ‘분명 어디서 본건데... 많이 본건데’ 도통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침 밭주인 분께서 밭일을 하고 계셔서 가서 여쭙보기로 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여기 작물 뭐 심어져 있나 조사하러 왔어요”라고 말씀드리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래요~ 둘러보고 가요~”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서는 어르신을 붙잡고 “어르신 잠시 만요!! 제가 초보라서 작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요? 저쪽 저거는요?”라며 다급하게 여쭙보자 어르신께서는 “나 어디 안가요~ 천천히 물어봐요. 이건 황기고 저 옆에 것은 땅콩이고 저쪽 것은 전부 콩이고... 저 위에는 곧 사과 심을 거야”라며 다정하게 답해주셨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 봐서 작물을 잘 몰라요. 앞으로도 조사 나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말씀드리고 돌아왔다.

작물재배면적 조사는 아무래도 밭을 직접 다 뛰어다니며 하는 조사다보니 다른 조사보다 에피소드가 많았다. 독사는 아니었지만 뱀을 본 적도 있었고

차가 곱히는 일은 다반사에 넘어져서 바지가 전부 흠투성이가 되는 일도 꽤나 많았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 중 이번 3회작 조사 중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때는 2015년 7월 10일. 처음 겪어봤던 일이었던지라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작물조사에 나갔었다. 밭을 둘러보던 중 다른 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요도를 보니 바로 옆에 밭이 붙어있었다.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밭 뒤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도착할 것 같았다. 처음에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도 어째 느낌이 이상하긴 했지만 길이 험할지라도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나뭇가지를 손으로 치우고 몸을 숙여가며 길을 가다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쯤 가면 길이 있어야 하는데 길이 없는 것이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뒤로 돌아 오던 중 밭에 뭐가 툭하고 걸렸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밑을 보니 정체불명의 쇠붙이 같은 것이 밭에 걸려 있었다.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은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조심하면서 밝은 곳으로 일단 나왔다. 나와서 밭을 보니 동물 잡으려고 놓은 덫이 내 핑크색 운동화를 물고 있었다. 다행히 덫이 녹슬어 있어서 인지 그리 위협적(?)이진 않았다. 밭을 살포시 빼고 가려는데 계속 덫이 신발 끈에 붙어 따라오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신발 끈이 덫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 신발 끈을 빼내고 지쳐서 내려와서 조사를 마저 하기 시작했다.



덫에 걸린 신발 끈



너무 지쳐서 어디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옆에 있던 분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나와서 말을 걸어 주셨다.

선생님 : 엇! 저번에도 오시더니 또 오셨네요. 날씨가 많이 덥죠?

나 : 어휴~ 너무 덥네요. 아 저희는 1년에 5번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해요.  
아마 9월에 또 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 : 더운데 시원한 물 한잔 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고생이 많아요.

이 더운 날 밭에 돌아다니는 거 힘들 텐데 여자분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나 : 힘들어요.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밭에 돌아다니는 게 생각보다 힘들 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계속 하다보면 요령도 생기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선생님께선 정말 냉면 그릇 같은 큰 접시에 물을 한 가득 떠다주셨다. “이 근처에 나왔다가 화장실 급하면 여기 화장실 이용해요. 아무 때나 써도 되니 편하게 써요”라는 배려 깊은 말씀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모르는 작물을 여쭙보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다.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참 따뜻했던 하루였다.

아마 혼자라면 절대 이렇게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밭에서 만났던 좋은 분들과 사무실에서나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중이나 여쭙보면 친절하게 답해주셨던 선배님들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작물을 여러 번 여쭙보기도 한다. 양배추와 배추를 착각하기도 하고 열무와 무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조금하지 않게 차분하게 배워나갈 것이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여쭙보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인지 처음 발령 받았을 때에는 농촌 생활이 많이 낯설고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마트도 차를 타고 나가야 했다. 도시에서 누렸던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니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주변의 좋은 분들 덕분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 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소를 가까이서 본 적도 없는 내가 이제는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고, 작물을 밟을까 봐 까치발을 들고 밭 주변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내가 이제는 걸어가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지난 7개월간 생활은 조금 불편해졌을 지라도 마음만큼은 여유롭고 편해졌다. 가족동향 조사를 갔을 때 응답자 분께서 시원한 오디 주스를 한잔 주시며 해주셨던 말이 기억난다. “나도 서울에서 왔어. 근데 여기만큼 공기 좋고 사람 좋은 곳이 없어~ 아가씨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라고. 밭에 다니라 축사 돌아다니라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과 좋은 환경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밭에 있는 작물들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운전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날 까지 파이팅!





조림썩어~ 나바스퍼~  
이 배가 커~ 안경하세요~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넷

호남지방통계청 김수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에 흥얼거리며 운전을 한다.

화창한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가 항상 출장 가는 길은 사계절마다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드라이브 코스다.

봄에는 새하얀 눈처럼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엔 갈매기 울음소리가 시원하고, 가을엔 알록달록 낙엽이 춤추며, 겨울엔 굴, 김, 미역향이 풍기는 전라도 맨 끝자락 〇〇, 이런 곳을 지나쳐 가는 곳이 내 조사구다.

이장과 어촌계장을 겸하시고 낚장어업을 주업으로 하시며 우체국 통신 판매를 하시는 아주 바쁘신 우리 어가, 비계통 표본 어가로 자가소비 및 선물등 비계통 생산량이 많아 항상 누락위험이 높은 어가이다. 우체국 통신

판매로 멀치를 판매하시는데 컴맹인 우리사장님, 인증서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려서 그나마 통장거래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통신판매량은 확인 할 수 있는데 멀치 외의 잡어는 선물 및 자가 소비가 많아 도대체 누락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엄마는 항상 멀치 삶고 건조하시느라 바쁘시고 그나마 나를 따르는 며느리는 우리말을 잘 못 한다. 일주일에 한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사장님이 바빠서 못 데려다 주면 출장가는 길에 내가 태워다 주어 곧잘 나를 따른다. 항상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이라도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만 잘 설득하면 누락된 생산량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열심히 다니길 나는 바란다.

2년전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맘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사장님 부부는 고기 잡으며 오순도순 바쁘게 사신다.

29살 신부는 어가 맘며느리답게 고기 손질도 잘하고 바지락도 잘 캐며 잘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수연씨, 우리며느리가 일은 잘 하는데 손주 볼 생각을 안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며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얼마후 며느리는 임신이 돼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서야 될 때~!!

“사장님~! 이제부터 바쁘실 텐데 산부인과 검진은 제가 데리고 다닐게요. 돈 많이 벌어서 손주 낳으면 예쁜 옷과 맛있는거 많이 사줘야 하잖아요.”

“미안해서 어쩔~”

그때부터 나는 한달에 한번 택시타고 며느리와 산부인과도 같이 가고



좋아하는 열대과일과 국수도 사먹으며 친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툰 한국말로 생산량 누락위험이 가장 높은 자가소비와 선물로 나누어준 생산량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한글이 서툰 며느리를 위해 숫자만 기록할 수 있는 일일 조사표를 따로 만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물을 올려 생산되는 어종을 매일 한 장씩 기록하도록 하였다. 매달 나누어주는 통계청의 비계통표본 조사표는 한글을 잘 모르는 며느리에게는 어렵지만, 어가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종을 그림으로 보며 기록하는 일일 조사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양식업, 양묘업 등

| 어종 | 대량  | 저량 |
|----|-----|----|
|    | 3   | 6  |
|    | 2   | 5  |
|    | 319 | 40 |
|    | 6   | 12 |
|    | 2.7 | 3  |
|    | 0   | 0  |
|    | 15  | 21 |
|    | 1.3 | 0  |

일일 조사표

한 달 한 달 열심히 며느리와 나는 각자의 할 일에 충실하여, 사장님은 건강한 아들손주를 보았고, 나는 누락되지 않는 생산량을 조사할 수 있었다.

“사장님, 그렇게 좋으세요?”

“응, 너무 좋아서 일이 힘든 줄도 모르겠고 잠도 잘 안오네, 다 수연씨 덕분이야.”

사장님은 오늘도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시며 내게 고맙다고 하시며 손주가 사장님을 똑 닮았다고 너무너무 좋아 하신다.

나의 표본어가에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배를 타고 나가서 어획을 하는 일은 위험천만하고 힘들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근로자는 배를 타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어가는 파도에 몸을 싣고 만선을 꿈꾸며 항해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다. 7월부터 문어단지 조업을 해야

하는데 선원이 없다. 지난해 사장님의 부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 및 취업절차 등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찾아 출력하여 수협중앙회와 연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어로활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선원이 없으면 1년 수입이 감소된다. 그래서 어가의 사장님들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다.

저번주 드디어 인도네시아 젊은 청년 2명이 사장님 집에 수협을 통해 취업을 하였다. 울여름도 겨우 사장님의 걱정이 한시름 놓인다.

이처럼 선원이 없으면 표본가구의 생산량도 엄청 차이가 난다. 수협을 통해 취업 알선을 돕는다고 하지만 매년 선원 구하는게 너무 어렵다.

어업생산동향의 다양한 품종을 조사 하다보면 1년 기다려 수확해야 할 시기에 태풍으로 모두 떠밀려 갈 때도 있고, 적조로 인해 고기떼가 물위에 둥둥 떠다닐 때도 있다. 그물 손질하다 손이 감겨 손가락이 잘릴 때도 있고, 해파리 때문에 어로활동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다. 그럴 때 마다 어떠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망설여 질 때가 많다. 매달 조사 때마다 어가에 가서 웃는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걱정하며 힘들어하시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통계를 생산하려고 오늘도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사장님들을 위해 아이스박스에 맥주캔을 가득 담고 각국의 인사말을 중얼중얼 외우며 걱정 보따리 풀어드리러 출장을 간다.



자란다, 잘한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다섯

호남지방통계청 오 영 수



### 통계청 새내기 이야기

임용 7개월...

저는 통계청에 임용되어 농업 생산통계를 하는 지 7개월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제가 7개월 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글로 쓰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고기 싸 먹는 상추 외에는 채소를 잘 몰랐습니다. 감자가 땅 위에 달렸는지, 땅 속에 달렸는지? 땅 속에서 자라는데 그게 뿌리인지, 줄기인지? 저는 농업통계를 하면서 감자가 땅 속 줄기가 비대하게 자라는 덩이줄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농작물이란? 먹을 수 있고 이름 많은 ‘꿀’

농업통계조사는 농작물을 잘 모르는 젊은 신입들에게 미리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조사다. 작물재배면적조사 전에 자주 볼 작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을 해야 한다. 3월에는 쌀보리인지 밀인지? 다 풀로만 보이는데, 이름이 왜 이리 많은지... 작물도감도 보고, 실습교육도 받고,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자주 볼수록 작물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오이잎인지? 호박잎인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만 하고 조사를 잘하고 있는지? 파는 대파, 양파, 쪽파? 구근이랑 잎 모양이랑 생육시기를 알게 되면 식별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내겐 이름 모르는 ‘풀’이다.



**실수담**  
- ‘주산지가 뭐예요?’

드디어,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게 되었다. 본조사를 하기 전에,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3월에 나오는 모든 작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어서 약간 두려움도 있었다. 다행히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팀장님의 멘토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월 작물재배면적조사 기간이 왔다.

멘토링 활동으로 사무관님과 함께 현장조사를 나갔다. 조사구에 도착, 역시나 5월인지라 작물들이 수확을 앞뒤서 인지 많이 자라 있었다. 그런데 조사표에 아무것도 적어진 것이 없었다. 난 당황했다. ‘분명 조사를 했는데... 조사표를 잘못 가지고 나왔나?’ 그래도 사무실에 돌아가 확인해 볼 수가 없기에 다시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무관님께 “조사표에 적어 놓은 게 없네요”, “그래, 조사하드라고” 그렇게 1ha 감나무 밑에 혼작된 도라지, 오이, 고추... 다른 작물을 다 확인하고 차에 타서 다시 조사표를 확인하니,



“이런, 맥류 주산지네요”, “응?”, “죄송합니다. 하하하.  
그래도 작물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난 속으로 죄송  
스러웠다. 그렇게 난 조용히 다음  
조사구로 차를 운전했다.



**실수담**

**- 고랑 빠진 바퀴! 슛 돼버린 심정**

다음 조사구에는  
길이 외길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돌아 나오기가 힘든 조사구였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닌 터라 차로 조사구 끝까지 갔다. 조사를 마치고 차를 돌리려는데 그만  
차 앞바퀴가 고랑에 폭 빠져버렸다. 앞날 날씨가 비가 온 터라 땅이 물러서  
차 빠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차 밖에서 사무관님은 차를 빼보시려고  
구호를 외치며 차를 밀고 계셨다. 근데 알고 보니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사이드브레이크를 푼다는 걸  
잊어버렸었다. 다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차를 빼려하니 단번에 빠졌다.  
“오늘도 사무관님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 “죄송합니다”, “차 빠졌으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다음 조사구로 향했다.



**체험담 - 모야모(?)**

이제까지 작물을 여러 번  
배웠으니 혼자서 나가보자!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나갔다. 콩인지 팥인지? 분명 하트모양이 팥이라 했는데...  
콩같이 생겼는데 ‘하트모양이 아닌데’ 팥이라네... 왜? 아! 작물도감도 보고  
선배님 말씀도 들어보니, 마름모꼴 모양이어도 끝이 약간 뾰족하면 팥이라

한다. 그러게 다시 사진을 보니 콩은 잎 끝이 밋밋한데, 팔은 뽀족하다. 조사를 하러다니다 보면 작물인지? 잡초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물이 보인다. 줄 뿌림을 한 것으로 보아서 작물인 걸 알겠지만, 이름은 무엇인지? 처음에는 주변 농사를 짓는 분에게 물어보려고 몇 십 분을 돌아다녀보았다. 하지만, 주변 300m를 돌아다녀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날씨가 더워서 몸이 축 늘어져 팔이 땅에 닿을 것 같았다. 이럴 때는 SNS를 활용한다. ‘농업 생산팀’밴드(Band)에 작물사진을 선배님들께 보여드리면 선배님들께서 1~5분 안에 작물이름을 가르쳐주신다. 알고 싶은 작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 ‘대체 이 작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 잠시 동안 혼자 작물을 보면서 나만의 작물이름을 지어준다. ‘이건 향이 좋은 걸로 보아서, 향이 천리까지 간다는 천리향일까? 아니면 신선초일까?’, ‘땡땡’ 기다리던 답장이 왔다. ‘당귀’, ‘하하하. 좋은 선배님들 덕분에 농작물 지식을 빠르게 배우네!’ 날씨는 덥고 내 마음은 답답했었다. 그래서인지 그 답장은

마음 속 답답함을 씻어주는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그렇게 새로 알게 된 작물은 사진으로 찍어서 모으고 있다. 몇 장의 과수 꽃은 엽서에서 볼 법하게 잘 나왔다. 그런 재미도 있어서 작물재배면적조사는 ‘숨은 보물 찾기’ 같다.



3월 중순 매화 향 날리는 날에



### 체험담 - 난 농촌 관리원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려고 눈과 밭을 하루 종일 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하체 운동이 된다. 처음 조사를 나갔을 때는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리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그런 상태로 조사를 하다보면 아무도 없는 논두렁에서 혼자 데굴데굴 굴러 넘어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더운 날씨, 오후 1시에 조사하다가 굴러 넘어졌다. ‘내가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너무 황당해서 혼자 웃으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지쳐 가는데, 고추밭 사이에 할머니 한 분께서 드리누워 계셨다. 난 깜짝 놀라서 할머니께 달려가며,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였다. 그런데 분명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누구요?” 하는 게 들렸다. 분명 건강한 걸 알 수 있는 목소리였다. “할머니, 깜짝 놀랬당께, 왜 밭에 누워계셔?”, “으잉, 잠깐 쉬러 집에 가기 떨어져, 여기 누워있어”, “아따! 진짜 깜짝 놀랬서요. 할머니, 고추 반, 콩 반 심으신 거 맞으시죠잉?”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농작물이 쑥쑥 자라듯이 경험이 쌓일수록 조사역량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알게 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농사이야기도 나누게 된다. “할아버지, 저 밭에 새로 심어진 나무는 뭐예요?”, “그거 뭐라드라... 아! 그거 이장네 사위가 지난주에 심어놨어. 여기 안 살고, ○○에 산다던대. 약용으로 판다고 했는데, ‘블루베리’라고 했나...”, “아! 블루베리가 약용으로 쓰여요?”



### 체험담

### - 얼룩소(?) 150마리의 사장님

젓소 전수 농가를 조사

하려고 사장님께 전화를

했다. 전화를 여러 번 해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찾아갔다. 그런데 축사를 다 둘러봐도 사람이 없다.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온다. ‘그럼 자 이제 젓소를 다 세어 보자’ 그렇게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들고 축사를 돌아다녔다. 나보다 더 큰 젓소들의 무늬만 보고 있으니 젓소들이 얼룩말처럼 잘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 가는데 아무리 세어 봐도 150마리 정도가 부족했다.

‘뭐지? 그 며칠 사이 팔아버리셨나?’ 아무렴 40분 쯤 흘렀을까? 그 때 누군가 왔다. ‘스키드로더’라는 농업 중장비를 몰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또 뒤따라서 검은 차에 젊은 직원을 동행한 사장님이 오셨다. 다행이나 싶어 달려가서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의 오영수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웃으신다. 그 옆에 젊은 직원도 웃었다. 난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서툴러서 그런가? 다시 용기 내서 “젓소 경산우 몇 마리 사육하세요?” 그런데 계속 더 웃으신다. 난 당황스러웠다. 선배님들에게 “가축 용어를 잘 모르면 응답자가 조사를 성실히 안 해 주신다”라고 들은 터라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 밖에 실수가 있었다. 보통 큰 축사를 관리하시는 사장님들은 비싼 차도 가지고 다니셔서 난 검은 차에서 내리시는 분이 사장님일 줄 알았다. 그런데 검은 차에서 내리신 분들은 비료 때문에 오신 분들이고, 중장비를 타고 오신 분이 사장님이셨다. 그래서 다시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고, 다시 조사를 했다. 그런데 또 한 번 사장님 웃으셨다. ‘사장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 이번에도 예상 밖이었다. 제가 응답자를 확인할 때 응답자가 ‘○화영’이어서 여성이름이라 생각하고 “사모님 맞으시죠?” 하고 확인했었다. 그런데 그게 남자 사장님 본명이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웃었던 거였다. 사장님도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웃기셨는지 바쁘다하시면서 저랑 함께 웃으며 조사에 협조해 주셨다. 부족한 마릿수의 젓소는 여기서 좀 떨어진 다른 축사에 따로 있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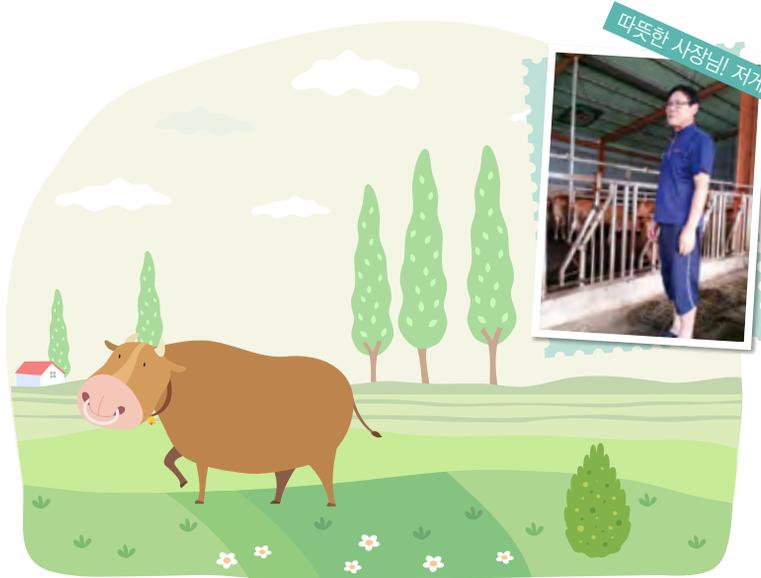
농업용 중장비 ‘스키드로더’





### 체험담 - 따뜻한 사장님

150마리 소를 다 세다 보니 조금씩 소들이 연령별 몸집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축사 관리하시는 분들은 축사에서 일하실 때 바쁘신지 말을 거는 걸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대상처를 조사하러 가기위해 조사할 응답자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지난 조사 때 뵈고 3개월 만에 전화를 드렸는데 내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계셨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 그 통계청 청년이구먼! 나 지금 축사에 있어 와도 돼” 나에게 호의적인 응답자분은 처음이라 기분이 좋아졌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조사를 하면서, “사장님, 제가 12개월 소하고 13개월 소를 구분을 잘 못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세요?”, “일루 와봐. 여기 있는 소가 12개월 났고, 저 옆에 있는 소가 13개월 났어”, “와! 일반적으로 12개월 된 소는 체고가 124cm 정도 하군요” 그렇게 80마리 정도 있는 축사 소를 다 살펴보니 소 연령별 식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 체험담

### - 차가운 사장님

팀장님과 멘토링 활동도 하고, 따뜻한 사장님과 축사견학도 하고나니 표본조사구 15마리정도 소는 가볍게 세어졌다. 그런 후, 표본조사구에 외진 축사를 조사하러 갔다. 축사가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내가 남자지만 쉽게 조사하러 들어가지지 않는 축사였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 소가 몇 마리 안 되니, 조사하고 나와 버리자’ ‘한 마리... 송아지 3마리. 총 15마리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응답자로 보이시는 아버님이 오셨다. 저는 아무도 없는 축사를 조사하고 나오는 것도 쑥스럽고 해서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의 오영수입니다. 가축동향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축조사해서 뭐 할라고? 국가가 그걸 조사해서 뭐 할라고?”, “아버님, 가축동향조사는 축산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뭐? 뼈익- 여기 오지마. 메르스 뼈익- 다 죽는다. 국가가 똑바로 뼈익- 국가가 저 모양인게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죽제’, ‘국가에 반감이 있으시구나! 대화를 들어보고 좀 풀어드리자’ 그런데, 갑자기 한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발 앞에 내 던지셨다. 순식간이라 피할 시간도 없었지만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포심은 몰려왔고 봉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응답자가 있었다.



## 마무리

### - 더불어 사는 농업

농업통계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농작물을 알게 되었다. 세끼 먹는 채소인 마늘, 양파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시기별 농작물의 생육모습을 알게 되어 기쁘다. 지금까지 나는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던 만큼 농업 종사자들의 땀을 보지 못했다. 지난 짧은 7개월 동안 만난 응답자들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에게 하듯이 너에게, 너에게 하듯이 나에게 그래서 우리다’라는 공동체문화를 느끼게 해 주었다. 나에게 따뜻한 감동을 느끼게 해 주신 택시기사님, 마을회관 할아버지와 할머니, 딸기농장 사장님 등 사례를 다 적을 수 없지만 나의 7개월 동안 잊을 수 없는 분들이기에 글로 남긴다.



### 마무리 - 나의 다짐

농업은 ‘숨은 보물 찾기’다.  
 ‘관심’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가치’라는 열매를 얻는다. 앞으로 만날 응답자들과 만났던 응답자들  
 한분 한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통계 공무원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생산하겠다. ‘슬기롭게’ 생각한 것을 ‘씩씩하게’ 행동해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겠다.



# 농가경제 열정 100°C 나는 대한민국 9급 공무원이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섯

호남지방통계청 장 미 진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잠깐 복숭아 과수원을 하신 적 있어서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인지 첫 업무로 농가경제조사를 맡았을 때 남들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지만, 임용 첫날 부터 착각이란 걸 깨달았다.



**착각의 늪 첫 번째!**  
**현장조사의 필수는 운전**

임용 첫날 환하게  
반겨주는 선배님들의

환영인사와 함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운전은 할 수 있지?”, “아직 면허 증도 없는데요”, 실망하시는 모습들...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장롱면허조차도 없다니...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실기시험 준비 2주간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체중 2kg을 감량하는 배고픔의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 한참을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관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 저녁은 자장면을 먹으며 늦은 주말을 기분 좋게 설 수 있었다.



### 착각의 늪 두 번째!

### 유사시 출장 갈 수 있는 간편한 복장 차림

본격적으로 농가 인수인계를 받는 첫날! 나름 예의를 갖춘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선배님께서 보시고는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라고 말씀하셨다. 다행히 사무실 옆이 관사여서 바지에 운동화로 갈아입고 올 수 있었지만, 농가경제 업무에는 뽀족구두와 치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배님은 내가 담당하게 될 농가들을 인계하면서 농가 마다 특성이나 꼭 알아야할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셨고, 나는 꼼꼼히 노트에 필기 했지만 너무 생소하고 비슷한 시골 길에 내 눈에는 온통 무성한 산과 넓은 들, 바다뿐이었다. 떨어져 있는 농가를 방문 하는데 예쁜 정장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왜 선배님이 간편한 복장차림을 요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





## 착각의 늪 세 번째! 조사준비와 실제 현장조사와의 Gap

그렇게 멍하게  
현장조사 인계

첫날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후에는 본격적으로 농가경제조사 업무 이론 교육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침서 2종, 조사 자료집 1종, 농기계 및 농약설명서 책자 각 1권씩과 농업 관련 사이트 등을 선배님께서 부지런히 알려주셨지만, 도통 농업 전문용어는 생소하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두통만 ‘땡’ 하였다.

현장에서도 나의 미숙함은 발견되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농가 어르신들을 쫓아다니며 빠른 사투리를 알아들어야 했고, 작성해 주시는 글자를 읽기도 버거웠으며, 작물이름과 농업용어 외우기에 혼을 뺐다.

지침서와 사이버교육을 들었지만 실제 현장조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 ➔ 사투리 차이?

“농가에 메벼 몇 kg 남으셨어요?” 물으면 못 알아들으시고, “나락 40kg 짜리 몇 개 남으셨어요?”라고 물어야 알아들으신다.

### ➔ 농업용어 차이?

지침서에는 비료 명칭이, 현장에서는 밑거름과 웃거름 구분, 성분상 무기질, 유기질, 영양제 등으로 다시 구분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작업부호가 파종과 이식으로 구분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순서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통상용어 차이?

지침서에는 재배면적이 m<sup>2</sup> 지만 현장에서는 평, 마지기 단위로 물어보아야 하고 마지기 기준도 마을별로 차이가 난다.(밭 기준 1마지 60평~100평)

👉 농가별로 농사짓는 특성 차이?

조사 자료집에는 농업투입 평균 노동시간과 사용량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가별로 노동시간과 사용량이 0.5~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사람이 태어나 금방 걸을 수는 없듯이 농가경제 또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지만 현재는 처음 보다 더 나아졌다. 농가 업무를 배운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응답자와의 소중한 경험과 내가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서운 '버럭 아빠'와 친해지기**

'버럭 아빠' 농가는 농사일을 크게 하시면서 어업활동(김양식,

통발어업)도 같이 병행하셔서 항상 바쁘시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9급 000입니다. 저번에 어머니가 사료보리 수확하셨다고 하셨는데 수확량은 모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수확량 좀 여쭙볼게요.”

“아~ 이번 통계청 직원은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구먼, 어디서 사나?”

“저는 000가 집이에요.”

“사료보리가 아니고 사료작물로 보리가 아니여. 그리고 수확량은 몇 톤일 텐데 내가 달아본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도 수확량은 모르시나요? 그럼 수확하시고 거기에 찰벼 심으셨죠?”

“신입이라고 들었는데? 허허허 통계가 나라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정확할까? 큰일이네 쫓쫓~”

버럭 아빠가 나에게 버럭 버럭 화를 내셨다.

나도 모르게 서러운 감정에 눈가가 빨개졌다. 얼굴을 푹 숙이고 돌아서 나와야 했다.

그 때, 집안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무안하게 혼낼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애를 잡네.”

“처음부터 혼 줄을 내야 더 열심히 배워.”

나도 모르게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리 혼이 나도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 배움의 속도는 더디었다.

농사를 더 빨리 알기 위해 논밭, 창고 등을 오가며 작물과 자재 등과 친해 지려고 노력할수록 나의 속은 시키명게 타들어 갔다.



당연히 모르는 게 많았지만 못 알아듣는 사투리에 특히, 질문의 노하우가 없어서 더 더디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나의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먹으니 작은 힘이 생겼다.



처음에는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질문지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바로 A4용지에 적어 두는 습관을 길렀다.

하루는 밭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작물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버럭 아빠’가 다가 왔다.

“핸드폰으로 며 해? 작물 이름을 알긴 혀?”

“이것이 며여? 저것은? 찍지만 말고 외울라고 생각해야지?”

또 버럭 화를 내신다.

“내가 알려줄텐게 잘 기억혀!”

“이것? 고구마묘상. 이것은 생강, 단호박, 오이, 참깨...”

6월초 대낮의 햇볕은 뜨거워 나의 얼굴은 빨강계 변했지만 내 마음에 한줄기 희망이 밝아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버럭 아빠’ 농가에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얼굴 뵙기도 힘들었고, 농사일에 지친얼굴과 장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선지 얼굴 표정도 어두웠다.

웬일로 오늘은 달랐다. 나만 보면 버럭! 바쁘다며 혼을 내시던 아빠가 오늘만 자상한 아빠로 변하신건지?

‘버럭 아빠’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딸 역할을 하며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굴 마사지 팩도 드리고 봉숭아물도 같이 들이며 딸 노릇에 마음이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날아가는 기분으로 버럭 아빠를 따라 집으로 와서 냉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동안 작은 소통을 시도해 보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침 김에 내 팔에 풀독이 든 것도 보여주며,

“농사짓는 데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제가 미안할 정도네요.”

“노란 농약 호스가 풀 속에서 움직일 때는 뱀이 아닌가? 깜짝 놀라요”라는 말에 버럭 아빠는 내 얼굴을 안쓰럽게 보셨는지, 지금 까지 매번 볼 때 마다 혼내서 미안하다고 해주셨다.



봄철에는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는데 애매하게 여러 번 물어보는 것이 답답했고, 김 양식 생산량도 별로 안 좋아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벼 이식도 끝나 바쁜 시기가 지나갔으니, 차분하게 농사일을 알려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 하셨다.

가슴이 두근두근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출장 전 버럭 아빠에게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면 이달에 이뤄지는 ‘일일 농사수업’을 꼼꼼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젠 호칭도 ‘버럭 아빠’에서 ‘꼼꼼 아빠’로 바뀌어야겠다.



유대관계가 깊어질수록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항목(부채 등)들이 많아졌고,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젠 애매하게 질문하여도 척척 알아서 정정해서 응답해주신다.

그전보다 눈에 띄게 영농일지를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다.

나는 이달(6월)의 우수농가 1호로 ‘버럭 아빠’를 선정하여 포상금으로



삼겹살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버럭 아빠’는 9급 공무원에게 받는 ‘상’이라며 즐거워 해주셨다.

통계청 입사 후 농가경제조사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첫 번째 성취 감이었다.

농가를 위해 통계활동비를 유용하게 쓸 때마다 오히려 내가 더 즐거웠고, 응답자와 나의 연결고리가 더 단단해짐을 느꼈다.



### ‘너도 내 딸’ 농가

객지에 나와 일하는 낯선 나에게, 또 다른 부모관계가 되기까지

거실에서 2남 1녀의 자녀분들, 손자손녀들과 찍은 가족사진을 봤다.

“어머니, 가족사진 보니까 자녀분들이 다들 잘되셨을 것 같네요. 화목해 보여요.”

“응, 근디 우리 아들이랑 딸이 S대기업 다니는 디, 통계청 이거 조사하는 거 싫어 혀, 세금 뭐 시기 한다며~”

“네? 그런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되요. 비밀보호라는 통계법이 있거든요.”

“이거 써주면 나 아들한테 혼나” 어머니께서는 아들, 딸이 일지 작성하는

거에 대해 알면 안 된다며 에어컨 뒤에 일지를 숨겨놓으신다.

출장으로 농가를 방문할 때 마다 에어컨 뒤에 있는 영농일지를 꺼내 눈에 잘 띄는 TV 앞에 쪽지와 함께 놓아두고 와야 했다.

하지만 영농일지는 항상 에어컨 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먼지가 쌓여 있고 곰팡이가 슬어있는 영농일지를 쳐다보고 있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성격에 고집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통계청 9급 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이었기에 포기 하지 않고 어머니를 설득해 보기로 했다.

“어머니, 영농일지 쓰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선 가게에서 쓰신 영수증이라도 모아주세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들이 세금 뭐 시기 한다는 디, 일지가 TV앞에 있으면 혼난당게, 다신 전화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곤 전화가 끊겼다.

며칠 후 한참 꿀잠을 자던 ‘새벽 6시’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불길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나 척찬리 000인데, 지금 장난하나?”

“통계청 000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조사필수품 5천원짜리 프라이팬을 갔다 놔? 2만원짜리 준다고 했잖아!

통계청 완전 사기꾼 아녀? 시골 산다고 무시하는 거여?”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무척 화를 내셨다. 새벽이라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팀장님과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서야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사필수품으로 나온 00프라이팬은 2만원 상당의 신용 있는 회사의 제품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오히려 개인들이 소매로 구입하려 할 경우엔 2만원 이상의 값을 치러야 하는 고급 프라이팬이었다.

그날 바로 농가로 달려가서 프라이팬을 현금 2만원으로 바꿔드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엿그제 시장에서 5천원 주고 사왔다는 프라이팬을 보여주셨다. 성능은 모르겠지만 ○○프라이팬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해맑은 표정으로 “어머니, ○○프라이팬 좋은 건데 제가 관사에서 쓰려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말씀드렸다.

더불어 통계조사로 인해 불이익은 없으며,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차분히 설명해드렸다.

옛날 속담 중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다. 웃는 얼굴에 침 뱉겠나...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새벽에 다짜고짜 화를 내는 전화를 받은 것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상황을 대처했고 설득할 수 있었다.

한 주가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도 미안했다며 사과하셨고, 영수증이라도 모아보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맞춤형 기초생활비 보장 홍보리플렛

농어목돈 저축장려금



나는 사무실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따뜻한 편지와 잦은 안부전화를 통해 천천히 정을 쌓아 갔다.

‘너도 내 딸’ 농가에 방문했을 때 마침 동네 분이 집에 놀러와 계셨다. “이게 뉘 집 자식이여?”라고 이웃 주민들이 물으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왔다.

그때 ‘너도 내 딸’ 어머니는 “우리 집 딸 하기로 했어~ 이쁘지?”라고 말씀 해주셨다.

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시다니...

“네! 제가 막내딸 000입니다. 저희 엄마 집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나도 모르게 호칭을 엄마로 바꿨고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지금은 농사일까지 잘 적어주시고 항상 “내가 잘 해 놀게~ 내 딸 걱정마잉”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젠 농가일지도 당당하게 TV앞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고추 생산비 농가로 사용하신 농약에 대해 계속 캐물으면 너무 꼼꼼한 거 아니냐는 타박 아닌 타박을 하시면서도 빈 농약병들을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살충제, 살균제 등을 알려주는 센스까지 보여주신다.

나는 낫도 가리고 말수도 적은편이지만 농가에 방문하면서 없던 애교가 절로 나왔다.

어느 날, 건강보험료 환급금 우편물을 확인해서 도와드렸더니 애매한 우편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 막내딸인 나에게 상담을 맡겨주신다.



사실 엄마는 멀리 사는 아들과 딸이 자주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이 크셨던 것 같다.

다행히 꼼꼼히 챙겨주는 막내딸이 생겨서 너무 좋아하시며...

엄마! 엄마! 찾아와서 방긋 방긋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여신 것 같다.

나는 이달(7월)의 우수농가 2호(노력상)로 ‘너도 내 딸 농가’를 선정하여 상과 함께 포상금으로 파스케트를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께서 ‘내 딸 최고’라며 기뻐해주셨다.



### 글을 마무리하며.....

첫 월급을 받고 한턱내기

위해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다. “너는 통계전공해서 통계청 갔으니까 전공 살린 거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지금 나는 통계가 생산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가치를 조금씩 깨닫고 있으니 큰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농가경제 조사표를 정리할 때는 아직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농가경제 업무가 점점 재밌어진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밭에서 고추가 빨갭게 익어가고 있고, 참깨 키가 하루 하루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신기하다.

또 금방 태어난 송아지가 큰 눈으로 껌뻑이며 나를 쳐다봤을 때를 잊지 못 한다.

이제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도움 없이 무의식적으로 농가집 마당에 도착해 있고, 사납게 짖던 개도 내가 익숙한지 무관심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 키우신 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삶아 주셔서 사무실 선배님 분들과 나눠 먹곤 했던 일들이 농가경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다.

5개월 밖에 안 된 신입 초보이지만 사무실에서는 통계교실 아웃팅샵 담당자이며, 청자골 통통사 학습동아리 교육 강사에, 자판기 장사장님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나의 변화된 모습에 제일 놀란 것은 내 자신이다.



통나무 3.0(영재 통계교실)



사회조사분석사 2급 강의



자판기 사장님

나는 대한민국 9급 공무원의 당당함으로 열정을 담아 통계청 새내기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꿈꾸는 중이다.

### 나의 각오 - 통계청의 책받침

앞으로도 나는 **책** 임감을 가지고  
통계청이 성장하는 데 **받** 쳐주며 실패  
에도 **침** 묵 하지 않고 개선하여 발전  
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 미션!! 아버님 마음을 훔치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일곱

동남지방통계청 류 문 현

농가경제조사 가구를 인수인계 받을 당시 조사관님은 내게 던지시 이 말을 하셨다. 이 가구 아버님은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니 친해지기 쉽지 않아 조사관님 또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첫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은 왜 이리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냐며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다.

나: (따르릉)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통계청이에요!

아버님: ...

나: (다시 한 번 심호흡하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통계청이에요!!

아버님: 그래.

나: 내일 찾아뵙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버님: 바쁜데.

나: 그럼 모레는요?

아버님: 일이 있어.

나: 그럼 그 다음날은...

아버님: 어디 가서 안 돼.

나: 그럼 금요일에 찾아뵙게요.

아버님: 뚜뚜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었다. 나는 조사관님께 아버님이 저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조사관님은 “자주 찾아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 나아질 거예요. 힘내세요”라고 하셨지만 지금 난 전화통화도 힘든데 찾아 뵙고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렇게 아버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미션이 시작되었다.



### 사라진 조사표를 찾아서

아버님 댁에 가는 날 한손에는 이것저것 여쭙볼 얘기가 가득 적힌 A4용지와 한손에는 음료수 한통을 사들고 아버님 댁으로 찾아갔다. 최대한 스마일을 유지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무뚝뚝한 아버님 표정에 금방 주눅이 들어 A4용지에 적힌 내용만 국어책 읽듯이 읽어버렸다. 그리고 조사표를 회수하는 날. 전화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잡았으나 아버님은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하셨다.

“아버님, 그럼 우편함에 조사표 넣어주시면 제가 가지고 갈게요”라고 말



하고 ‘알겠다’는 답을 들은 후 댁으로 찾아가 조사표를 찾았다. 그런데 우편함에는 고지서와 농민신문 뿐이었다.

“(따르릉)아버님, 우편함에 조사표가 없는데요?”

“그 우체통에 넣어놨다니깐 참 바쁘니까 끊어.”

음...우체통이라? 그 혹시 빨간 통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아버지, 혹시 우체국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신 건 아니시죠?”

“암~ 내가 통계청 종이봉투에 잘 봉인해서 잘 보냈어. 걱정말아”

“네? 정말 거기 넣으셨어요? 통계청 주소는 적으셨어요?”

“통계청 봉투에 넣었으니 통계청으로 가겠지.”

하아...

통계청 주소도 안 적으시고 심지어 우표도 안 붙이시고 우체통에 넣으셨다니...

내가 설명이 부족했나? 이번 달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무소에는 또 어떻게 말씀드려? 지금이라도 우체통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온갖 생각들이 수초 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다 통화중임을 깨닫고 번잡한 마음을 다잡아 우선 어느 우체통인지 여쭙봤다. 그리고 곧바로 그 근처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혹시나 조사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직원에게 혹시 통계청마크 우편물이 회수되면 꼭 좀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어 포기하려던 찰나 아버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조사표 우리집으로 다시 왔어. 찾아가.”

그랬다.

통계청 주소는 적지 않으셨지만 본인 주소는 적으셔서 반송이 된 거였다. 어찌나 기쁘던지... 그때 당시엔 정말 눈앞이 깜깜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누구나 실소가 터져 나올 정도로 웃긴 해프닝이 아니던가.



### 사료배달 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웬일인지 아버

님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고 내게 중추사료 2포를 사오라고 하셨다. 중추는 병아리와 산란하는 성계의 중간 단계의 닭이다. 얼마 전 아버님은 산란계 사육을 시작하기 위해 중추 50마리를 구입하셨는데 아마 그 닭 사료를 나에게 부탁하신 듯 했다. 까짓것 2포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부탁이 내게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줄이야.

(다음 조사가기 전날) “올 때 중추사료 4포만 좀 싣고 오나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사료배달은 계속 되었다. (쿵~덕) 과속방지턱을 지나고 차안 가득 뿌연 가루가 날렸다. 닭사료가 가루인 걸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요리조리 아무리 신문지로 봉인을 해도 미세한 사료가루는 내 차 내부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쿵덕 소리와 함께.

(이튿날 아침 8시) 아버님은 사료가 떨어졌으니 사료 10포 중 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미 그저께 아버님 댁에 방문한 터라 출장을 갈 수 없었다. 대신 아버님께 퇴근하자마자 가져다 드린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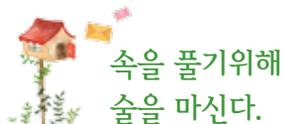


말하고 퇴근 후 5포를 차에 싣고 아버님 집으로 향했다.

어김없이 과속방지턱에서 쿵~딕 그리고 뿌연 사료가루 필릭 또 쿵~딕 그리고 퍽... 응? 무슨 소리지? 사료가 넘어졌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사료배달이 다 끝나고 숙소로 와서 차를 청소할 때 나는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직감했다. 분명 뭔가가 트렁크가 뭔가가 이상하다. 중간으로 움푹 들어갔고 커버를 벗겨보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왔다. 산지 한 달도 안 된 나의 쌍쌍이 트렁크에 금이 나있을 리 없어. 아니야. 꿈일 거야!



그 후로도 3번 정도 사료배달은 계속 되었다. 닭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셨고 다행히 나와 내 차는 황사보다 무서운 사료가루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속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

아버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술(!)자(!)리(!). 아버님

으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매일 반주로 단련된 고수 중의 고수. 그에 반해 나는 소주반병이면 뺏어버리는 하수 중의 하수.

어느 날 문득 아버님이 내게 밥 한 끼 하자고 하셨다. 나는 저녁 먹으면서 간단히 반주로 먹는 술이면 괜찮겠다 싶어 아버님께 술을 권하였고 한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두병 되고, 두병이... 분명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덧 육회에 소주가 올라와 있었고 내가 눈이 반쯤 풀렸을 때쯤 아버님은 넋지시 내게 얘기를 했다.

“나는 원래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서 니 한번 시험해봤다. 일부러 통명스럽게 대하고 사료 심부름도 시키고 귀찮게 했던거라. 근데 니는 뭐 속으로는 싫었을지 몰라도 내색 안하고 웃으면서 찾아오고 하는 거 보니 보기 좋더라. 와서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뭐 지금 아들놈이야 다 밖에서 지 살림한다고 바쁜데 매주 이래 집에 와서 씨익 웃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들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하고. 허허, 내 이때까지 한 거는 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 풀고 이제는 조사 잘 응할 테니까 걱정 말그라” 이 말을 듣고는 솔직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속으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하나하고 불평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다음날 아버님 집에서 대자로 뻗은 채로 눈을 떴고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북엇국에 속도 풀리고 아버님과 우리 사이도 풀렸다.

지금은 아버님 댁에 가면 나보다 오히려 아버님이 더 활짝 웃으면서 반겨 주신다. 일일이 밭에 심겨진 작물 이름이 뭔지, 언제 열리는지 등 여쭙보기도 전에 상세히 알려주시고 근처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함께 점심을 먹곤 한다. 얼마 전에는 직접 농사지은 양파 그것도 제일 크고 튼실한 놈으로다가 내게 챙겨주셨다.



우리가 하는 현장조사는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함이지만 표본가구에 신뢰를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더 신뢰받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업무 외적으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 오늘도 기분 좋게 조사를 나간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 통계청이에요.”





# 무지외반증과 맞바꾼 불응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덟

동남지방통계청 심 순 연

순기란 녀석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5번씩, 최소 7일은 꼬박 꼬박 그 녀석을 만나야 했다. 게다가 틈틈이 각종 연간조사나 예비조사가 끼어 있었다. 녀석은 항상 동질 동량의 계속성 있는 품목들만을 보게 했고, 그것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가차 없이 발품을 팔게 했다. 순기를 통해 매년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니 녀석을 만만하게 볼 수도 없었다. 품목 하나하나를 수집할 때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가격인지 생각해야 했고 나 자신을 못 믿는 순간엔 규격과 가격이 잘 보이게 카메라로 찍어가기 일수였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주변 동료나 총괄자에게 보여주며 담당자가 스스로 자체 검증을 받았다. 조사가 끝나고 수집한 자료로 회의를 할 때는 자신이 본 가격에 확신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필요할 땐 찍어온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하여 보여주었다. 사진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 사진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인정받기도 하고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기도 했다.

매달 담당하는 한 권역의 가격을 수집하면 그것이 보도 자료의 기초가 되고 물가지수가 반영되는 각종 지표들의 자료가 된다. 농축, 공업, 서비스 품목 등 480여 가지의 세부구격들을 익히고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대상처가 대표성이 있는지 내가 본 가격이 정상가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되는 순발력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스펙터클, 다이내믹한 순기란 녀석은 물가 통계팀 소속이다. 물가 통계팀은 경제조사와 소속이었으며 나의 첫 통계청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결혼을 하고 11년간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며 항상 마음속엔 다시 사회로 나가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고 살았다.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 각종 공채시험도 도전해 보고, 평생교육원의 수업도 틈틈이 수료하였다. 그러나 재취업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온다 해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번번이 좌절하였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집 주변의 학원에서 시간강사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도전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다가깝고 시간제로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그리 소홀하지도 않겠다는 계산에 시작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혼시절 학원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더더욱 쉽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일자리는 내게 일하는 기쁨이 뭉치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 아이들 같은 초중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아이의 공부를 봐주듯



의욕이 불끈 솟곤 했다. 이렇게 일에 몰두하던 2년여의 시간은 자신감을 회복케 하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고 아이들은 조금씩 엄마의 생활패턴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계속 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타났다.

시간강사란 직업이 전임강사에 비해 보수나 책임감의 측면에서는 부담이 덜 한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성적까지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시험 기간엔 최소 한 달여는 평일 밤은 물론 주말까지 보충 수업을 해야 했다. 시험기간은 생각보다 자주 돌아왔고 그럴 때 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 돌보려다가 내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셈이었다. 나에겐 아침에 나가서 저녁이면 돌아와 아이들의 공부며 숙제를 봐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2년 만에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40대를 1년 앞둔 2010년 7월, 통계청에서 기간제 조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무조건 합격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여가 좀 작은 것이 흠이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녁이면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한꺼번에 뽑는 인원이 많아서였는지 다행히 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통계청 생활이 시작되었다.

통계청 입사와 동시에 맞게 된 나의 첫 업무는 물가팀에서 물가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통계청 조사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격만 확인하면 되는 물가팀으로 배정이 된 것이다. 그때는 ‘가격만 확인하면 되는...’ 물가조사업무가



말처럼 정말 쉬운 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줌마의 내공이 보태어지면 물가조사처럼 나에게 적격인 업무가 있을까 생각했다.

7월에 입사를 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업무가 시작되었다. 뒤에서 보아주던 업무 인계자도 없이 그야말로 홀로서기로 담당 권역에 순기조사를 가게 된 첫날이 기억난다. 순기 날이 오기 전 길을 익히기 위해 같은 길을 수 없이 되짚어 보고, 조사표가 너털해질 정도로 규격과 실제 품목들을 대조하며 복습하였다. 물가조사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농축수산의 품목을 조사하는 농축순기는 11시부터 3시 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늦어도 4시까지는 입력이 완료되어야 했다. 그렇기에 막상 농축순기였던 당일은 시간 맞춰 귀청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마음만 급해서 복습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완벽하게 익혔다고 생각한 품목들의 생김새도 갑자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감자를 보아도 벌크였는지 1kg 포장이었는지 헷갈렸고, 고추는 또 왜 그렇게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던지. 그러나 다행히 육류나 생선은 응답자의 도움과 조사표를 번갈아 가며 대조한 덕에 어느 정도는 조사다운 조사를 했던 거 같다. 시간 맞추기에 급급해 점심을 굶어가며 겨우겨우 조사를 완료하고 귀청은 무사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높은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의 도움을 받아 조사해온 가격을 입력하고 사유코드를 그에 맞게 넣어 주고 하면서 시스템 입력은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조사한 품목별 가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물가회의는 흑시모를 비정상 가격조사를 가려내어 수정하고 전체적인 가격흐름을 파악하여 담당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표본오차나 비표본오차를 인식하게 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나 같은 초보자들이 전임자가 보던 규격과 똑같은 것을 봤는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자리이다. 총괄자는 품목들의 가격을 보면서 비정상 가격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단순히 몇 % 인상, 인하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역시 고추가 문제였다. 무슨 고추를 봤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여러 포장제품 중 고민하다가 눈에 익은 하나를 조사하였다.

같은 포장제품을 조사하지 않으면 규격이 달라져 100g당 가격은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리고 보니 내 권역의 고추가격만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다른 권역은 보험세 내지는 하락세. 초보자인 내 눈에 그것이 보일 리가 없었다. 내가 잘못 조사를 한 것이다. 누군가 말하지 않던가?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라고. 물가 초보인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은 열심히는 했으나 잘~은 좀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몇 십번의 순기가 지나갔고 명절 물가조사며 OECD 물가조사등 여러 가지 물가의 맛을 보며 3년이라는 세월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그러는 동안 초보에서 노련한 선배로 거듭나고 있었다.

초보들의 실수가 웬만큼 보이게 되었고 내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가 되었다. 권역의 응답자들과도 친분이 생겨 시간이 날 때면 사소한 답소를 나누기도 했다. 고춧가루를 조사하는 참기름 집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완고한 성격이라 힘들어하셨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딸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항상 자랑하신다. 건어물가게 아주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교를 입학하셨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책과 연필을 선물하니 함박웃음의 소녀처럼 즐거워하신다.

가끔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먹는다. 물론 나도 오징어도 사고 고춧가루도 사고 과일도 산다.

그래서 물가팀은 항상 두 손에 검정 비닐이 들려져 있다. 물가는 힘들다. 그러나 가격만 수집하면 되므로 응답자의 부담이 다른 조사에 비해 약하다. 그렇기에 응답자와 농담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가격추이도 알아보고 신세한탄도 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물가에 머무른 시간만큼 물가조사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었다.

내가 처음 조사를 시작할 당시는 2G폰이라 할 수 없었던 시도들을 3G, LTE 등 좋은 폰들이 나오면서 밴드나 단톡(단체카톡방) 등으로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공유를 통해 각 권역의 초코파이 가격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오름세를 확인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 번 눈으로 확인했다.

물가조사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시간 조사이다. 내일로 미룰 수도 없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 가서 조사를 마쳐야 한다. 죽음의 순기라 불리는 공업순기는 수백 가지의 품목을 조사해야 하고 수십 개가 넘는 대상처를 방문해야 한다. 지금은 담당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반영하여 2일 조사에서 3일 조사로 바뀌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내가 물가팀에 있을 때는 공업순기는 2일 만에 끝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공업순기 첫날은 그야말로 발에 땀나듯 뛰어가며 물가조사를 했다. 내 권역의 위치는 통계청과 40분 거리에 있었으므로 늦어도 10시 30분에는 조사권역

으로 출발하였다. 첫 대상처를 시작으로 걷기와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이동하기를 반복하였다. 조사를 마치는 시간은 늘 귀찮히는데 걸리는 시간만을 남겨둔 17시 일 경우가 많았다. 보통 순기첫날에 70% 가량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야만 둘째 날엔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양을 조사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나의 발은 집중되는 혹사를 견디느라 휘어져서 무지외반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게 되었다. 물가를 하는 동안 운동화 밑창이 닳아 3개월에 한 번 씩은 새로 사야했다. 처음엔 발바닥이 아팠으나 나중엔 발가락도 통증이 함께 왔다. 오래 걸은 날엔 찜질을 해도 밤엔 잠을 설치는 날도 있었다. 무지외반증은 수술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수술 또한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이었다. 매일 매일 아프면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니 다행이었다. 이제 물가에서 일한다는 재미가 뭘지 조금씩은 알 것 같았는데 발이 아프니 물가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 일이니 덜 걷고 덜 보며 소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과의 다른 업무는 이렇게 많이 걷지는 않으리라. 물가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니 광업제조업이나 서비스동향과 같은 일들도 한번 도전하고픈 생각도 들었다.

꼭 발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마트가 아닌 공장이나 사무실이 내 대상처가 되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 무조건 좋아





보이기도 했다. 사업체 불응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동료들도 다들 하는 일이니 나에게도 주어지면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나에게 기회가 왔다. 팀 간 소폭 이동이 있을 거라는 소문.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불현듯 안 해본 일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으나 마음을 다잡고 기회를 기다렸다.

연가로 아이들과 놀이동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팀 간 이동이 있으니 지원하라고 살짝 귀뜸을 해주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금 같은 기회가 왜 하필 연가 중에 왔는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아픈 발을 견디며 익숙한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인가. 내 결정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팀장님께 지원하겠다고 전화했다.

지원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도전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어도, 사진을 찍어 주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있었다. 그날은 또 왜 그리 바쁜지 저녁 모임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며 모임 장소로 향하던 중 팀장님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간 물가팀에서 고생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과의 핵심인 산업통계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렇게 원하던 산업통계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이 주어진 첫날 부터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광업제조업동향, 서비스업동향이라는 생소한 업무를 하자니 두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왔다. 통계가 그리 만만 하던가. 첫 달이라 봐주지 않는다. 광업제조업동향 20여개, 서비스동향 60여개를 마감을

하자니 눈앞이 핑핑 돌 것 같았다.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은 지침서에 나오는 단어부터 생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가동률 산정, 생산능력, 재투입, 임가공, 수탁 등 한꺼번에 많은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했다. 걱정이 되어 주말에 지침서를 가져와 읽어 보기도 했지만 초보자인 나에겐 공부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 실전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어느 정도 익힌 지금에야 지침서를 더 유용하게 쓰고 있다.

첫 번째 한 일은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처의 산업분류 등 유형을 파악하고 응답자님(?)들의 협조도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80여개의 대상처를 한 달 안에 모두 방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가는 방문하여 가격만 파악하면 되는 일이므로 따로 응답자를 만날 일이 타 업무에 비해 작은 편이다. 그래서 발품은 많이 팔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자료 수집은 순조롭게 되는 편이다. 그런데 산업팀의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 물가팀에서 일하던 습관이 남아 분주하게 대상처를 방문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분명 대상처를 10곳 이상 돌았는데 자료 수집은 50%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를 만나지 못하면 자료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본인의 업무로 바쁠 때는 다음을 기약하고 자리를 떠야 했다. 혹시 응답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거늘 초보자들이 늘 하는 실수를 마음만 앞서서 하고 있었다. 광업제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 사업체 중 외근이 잦은 업무를 보는 응답자들은 미리 전화를 하여 방문 약속을 정해야 하고, 분기사업체는 대상처의 마감처리로 자료가 지연되는 것이므로 기다려야 하며, 도소매 사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업종별로 바쁘지 않은 시간을 잘 선택해서



조사 일정을 짜야 한다는 사실 등이다.

그리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불응, 불응, 불응이 있다는 것이다. 불응을 해결하는 묘안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경험한 불응 중 초보일 때 겪은 두 가지만 소개 하고자 한다. 서비스업동향과 광업제조업동향의 두 가지 불응 사례이다.

차근차근 일을 배우던 중 나를 시험하는 첫 관문인 사업체 대체와 만나게 되었다. A사업체는 빵과 음료를 파는 서비스업체로 대다수의 시간은 매니저와 시간제 아르바이트 인력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사장님은 매장을 방문하는 시간이 짧으며 일정하지도 않았다. 대체사업체 발굴로 방문하였으나 1차는 실패였다. 사장님이 안게시므로 익일 4시경에 방문하라고 했다. 다음날, 4시경에 방문하였으나 사장님이 오전에 잠시 왔다 가셨고 오늘은 오시지 않을 거라는 답변이다. 서비스업동향 공문과 명함을 남겨두고 사장님께 꼭 전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돌아왔다. 사장님 휴대폰 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따로 연락을 드릴 수도 없다. 빗쟁이처럼 가게 앞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다. 사장님과 만나는 방법은 가장 가능성 있는 시간대에 매일 방문하는 것이다. 시간대가 달라지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매일 방문한지 5일째 되던 날 빵을 고르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셨다.

막상 사장님 얼굴을 보니 갑작스런 첫 대면에 가슴이 쿵쥔거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사장님은 인상마저 우락부락이었다. 준비해온 말들이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워졌다. ‘국가통계... 보도자료... 협조...’ 마음의 소리만이 퍽퍽임.

매니저가 사장님께 이제야 공문을 보여주고 나를 보고 뭐라고 손짓을 하며 이야기했다. 얼굴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다가가려 했으나 한 무더기의 손님이 들이닥치고 갑자기 바빠지는 통에 거기서 멈추어야 했다. 심지어 빈 테이블이 없어 앉은 자리까지 양보하며 귀퉁이에 어색하게 서있어야 했다. 사업체에서는 손님이 먼저다. 국회의원이 방문해도 손님 먼저 챙겨야 한다. 그들의 호구지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는 하면서도 무안함은 어쩔 수 없었다. 괜히 빵 구경을 하며 손님들과 섞여 매장을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러는 사이 내 마음은 진정이 되었고 시간은 흘러 매장이 살짝 안정이 됐을 즈음. 사장님께 다가갔다. 통계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렸다. 사장님은 가만히 서서 들어주시지도 않더니, 한마디 하신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통계조사요. 그거 하면 뭘 혜택이라도 있소?”

말도 단답형. 그렇게 두 마디 하시고선 또 본인 할 일만 하신다.

“혜택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시는 거죠~ 사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서비스업동향의 지수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고 그것을 참고로 하는 분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의원, 기업가 등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나 물건들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사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방법 중 비교적 쉬운 길입니다”

사장님 꼬무니를 졸졸 따라 다니며 성심껏 설명을 하였다.

“나는 봉사할 마음도 없고~ 다른 집도 많으니 그리 가서 하소. 바쁘요~ 저리 비키소”

매장에 손님들도 많은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두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때 또 한 무더기의 손님들이 들어왔다. 작전상 후퇴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조용히 매장을 나와 가까운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두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사장님 말대로 다른 사업체를 갈까? 통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장님을 끝까지 설득시킬까? 배는 고팠으나 무슨 맛이지 모를 점심을 끝냈을 때, 결심했다. 내 지역에 유사업종은 많으나 이 사장님을 꼭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물리서면 모두들 통계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나아가 매달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매장을 찾았을 땐 사장님은 다시 외출을 하시고 안계셨다.

이번에는 후식으로 비싼 팔빙수를 하나 시키고 천천히 먹으며 소설책을 펴들었다. 오늘 꼭 끝낸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며... 30분쯤 지났을까 사장님이 들어오셨다. 이젠 망설이지 않는다. 내 자리에서 사장님을 불렀다. 사장님을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다. 사장님이 날 쳐다 보셨다. 내 테이블도 쳐다보셨다. 난 지금 통계청 직원이기도 하지만 손님이기도 한 것이다. 일단 사장님을 테이블로 모시는 데는 성공했다.

“꼭~ 보험회사 직원처럼 와 그라는데요. 다른데서 하면 되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 다행이다. 사장님께서도 늦은 점심을 드시고 오셨나?

“하하, 통계청에서 물건은 팔지 않으니까 안심 하세요.”



“저희가 사장님께 요구하는 자료는 세무서나 노동청 등에 공개하시는 자료라 정보 공개에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사장님의 자료는 해당 산업분류의 많은 자료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지수작성에 사용되므로 사업비밀 또한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사업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은 통계조사로 공개된 자료들이 세금징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그러면 세무서, 노동청 하고 연락해서 조사하소. 서로 귀찮게 찾아다니지 말고요. 세금낭비잖아요.”

응답자들에게 자주 듣는 레퍼토리 중 하나다.

“정부기관이라도 개인의 사업체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공개 자료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거구요.”

자주 듣는 레퍼토리의 자주 답하는 레퍼토리로 응수했다. 이 답변이 가장 정석적이고 또한 잘 통한다.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

“그래 뭐 조사하면 되요~.”

와우~ 이렇게 된 이상 사업체 대체의 완성은 눈앞에 있다.

“매달 조사이구요~ 3가지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종사자수, 월매출, 영업일수.”

“휴~알았소. 내가 이런 거 원래 잘 안 해주는데 댁한테만 해주는 거요~.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해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공개하신 소중한 자료가 정확한 통계 지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드디어 새로운 사업체 대체가 완료되었다. 다음 달에 방문 하면 매달조사 한다는 것에 다시 놀라겠지. 대체 당시 매달조사라고 말씀드렸던 사실은 유독 잘 잊으신다. 언제 또 우연히 사장님과 마주치게 될지 묘연하긴 하지만 방법은 차근차근 찾으면 된다. 통계 조사의 첫 관문인 응답자와의 인사 트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무지외반증의 악화와 맞바꾼 불응과 대면하는 첫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

담당자에게 서비스업동향조사와 더불어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불응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사업체 개수는 서비스동향조사에 비해 적은 편이나 조사항목이 많고 응답자가 사업체 내부사정을 두루 알고 있어야 하므로 까다로운 점이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체 수문장인 경비아저씨와의 관계이다. 제조업체의 입구에는 대체로 나이 지긋한 경비아저씨들이 제품의 입고, 출고를 거들어 주시고 방문자들을 통제하신다.

사업체 방문 시에는 경비아저씨들에게 방문 목적과 신분을 알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들었다. 나에게 제조업체 방문의 첫 과제는 경비아저씨에게 좋은 인상 남기기였다.

B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B업체는 분기사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루며 잠정이 2달째인 사업체였다. 전화통화로는 오늘 오후 낼 오전을 약속하며 당장이라도 자료를 줄듯이 하면서 7일째 미루고 있었다. 선배들에게 들은 대로 먼저 경비실에 아저씨가 계시는지를 확인하였다. 경비아저씨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다. 이상한 안도감을 안고 사무실로

이동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저승사자 같은 고함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어디 가요~”

입구 반대편 벤치에 앉아 있었던 할아버지다. 후줄근한 셔츠에 모자를 쓰고 계셔서 경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네에서 놀러온 할아버지려니 생각했었다. 목소리도 위압적이다. 기분이 몹시 상한 듯 한 목소리이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는데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저씨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나에게 더운 날씨에 대한 짜증을 모두 퍼부어 놓는 것 같았다.

“통계청이라 하면 다요~ 왜 말도 안하고 들어가요~ 아줌마.”

이젠 내 기분도 슬슬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를 봤으면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 제복도 입지 않고 있는 아저씨가 경비라는 걸 못 알아 본 게 내 잘못인가. 아저씨의 서슬에 가슴이 쿵닥 쿵닥 뛰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저씨와의 기싸움에서 이리 밀리면 안 된다.

나는 개인의 이익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공무로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날아가려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했다.

“선생님~ 저는 공무로 방문한 사람이지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러 온 잡상이 아닙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은 삼가 해 주세요~ C과장님과 약속 후 만나러 온 통계청 직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정문을 통과 하는 저를 보고도 정식으로 신분을 밝히기를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경비선생님이라면 제가 못 알아 봤어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일그러진 자존심으로 내 목소리도 이미 격앙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아저씨의 희생양이었다. 무안해진 아저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내가 당신이 통계청 사람인지 우찌 알겠소. 나가소 나가~”



명함도 보여주고 약속 되어있는 과장님 성함까지 밝혔으나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욕심각심 하고 있으려니 나와 약속이 되어 있던 과장님이 외근을 가기 위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천군만마라도 만난 듯이 과장님께 인사드리며 경비아저씨의 만행을 고해 받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저씨를 혼내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과장님이 오히려 아저씨에게 찢찢 매는 게 아닌가.

“아저씨, 제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요~ 이 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사관님, 들어가시죠~ 5,6월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아저씨는 아직도 눈에 힘을 풀지 않고 있는데도 양쪽을 번갈아 가며 죄송하다는 소리를 연발한다.

자료를 준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으나 기분은 몹시 상했다. 아저씨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건만 여기서는 받고자하는 내가 약자이니 어찌하랴.

약속 시간을 정하고도 외근 가려했던 응답자이니 만큼 이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다. 어렵게 사무실에 입성하여 5분여를 기다린 끝에 두 달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를 받고 나오는 순간 다시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담담은 또 어떡하지~? 솔직한 심정으로 아저씨를 다시 만나기 싫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더불어 자신감도 떨어졌다. 응답자 불응에 경비아저씨까지 보태어지니 마음이 몹시 무겁다. 별의/별 불응과 난관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가슴에 돌을 하나 얹은 기분이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선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는데 생각만으로도 그러기는 싫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느덧



아저씨와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나 궁리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공무로 방문을 하는 것이고 아저씨는 내 일의 난제 중의 일부다. 그 일로 내 자존심이 손상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자존심을 회복할 만한 수없이 많은 명분들을 되새기다 보니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7월분 자료를 받을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5천만 국민의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한 박스 사들고 업체로 향하였다. 시원하게 드시라고 전날 미리 냉장고 안에 두었다가 들고 갔다. 도착하여 제일 먼저 경비실을 살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행여 아저씨를 못 보면 안되니까 말이다. 아저씨를 발견하고 준비된 함박웃음을 날리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뺏던 통계청 직원입니다~. 아직 많이 화나 계신 건 아니죠? 담부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시원한 박카스를 건네며 상냥한 말투로 화해의 제스처를 했다. 일방적으로 내가 당했건만 활짝 웃는 내 모습을 보고는 미안했던지 아저씨도 희미한 미소를 보이시며,

“핑계대로 들어가는 잡상인이 하도 많아서요~ 내가 여기 근무한지 20년이 넘어요. 별사람이 다 있어서~ 아줌마는 이제 맘대로 들어가도 되요~”

또 아줌마란다. 아줌마면 어떠랴. 그렇게 깐깐하게 호통 치던 아저씨가 이젠 맘대로 들어가라는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도 언성이 올라가서 죄송해요~ 선생님이 경비를 보시는 분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불용 3개를 한꺼번에 해결한 기분이 이럴까.

그 일이 있던 뒤 더 기분 좋은 일은 우리의 애먹이던 응답자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자료도 꼬박꼬박 보내주었고 어떨 땐 월초에 자료를 1등으로 넣어 주기도 했다. 모범 응답자로 탈바꿈한 것이다. 연간조사의 자료제출 또한 지체 없이 보내주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다. 경비 아저씨의 고성이 고맙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응답자가 달라졌을까?

물가팀에 무지외반증으로 대변 되는 복병이 있었듯 산업팀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응이라는 힘든 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무지외반증의 악화를 막게 해준 팀 간 이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비스업동향과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가끔씩 물가조사시절의 까만 비닐 봉지와 시장 할머니의 미소가 아쉽지만 새로운 일의 기분 좋은 도전 또한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갖가지의 불응, 응답자의 불친절과 마주하고 있으나 쓴 열매가 달듯이 어려운 길이 성취감의 정도는 더 높은 것 같다.

가정으로 농어촌으로 사업체로 매일 방문하여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해 애쓰시는 나를 비롯한 통계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싶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쓸데없는 조사가  
아니예요~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아홉

동남지방통계청 전 현 주



### 농가경제조사와 다시 만나다

2013년 9월 〇〇사무소로 발령  
받아 농가경제조사를 맡게 되었다.

기존에 사회팀에서 가계동향조사를 하고 있어서 근무지도 변경됐는데 업무  
까지는 안 바뀌었으면 하는 맘이 있었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

농가경제조사는 2003년 4월 통계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나의 첫  
조사업무다.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약 1년간 농가경제업무를  
했었는데, 처음 했던 업무라 그런지 농가경제조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암튼 복잡한 조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농가경제업무를 맡았다. 신규였을 때 나는  
업무를 모르는 게 당연했고, 실수도 용서가 됐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후배들도 많이 들어왔고, 팀에서도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 뭐든 척척 해내야하는 위치가 되었다. 어렵고 복잡해서 하기 싫었던 농가경제의 기억은 모두 지우고 최대한 빨리 업무를 습득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했다.



### 10년만의 농가 방문

10년이 지난 농가는 그대로인 것도 있고 많이 변한 것도 있었다.

많이 변한 것 중 하나는 농가들이 한 마을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다는 것. 2013년 10차 표본개편을 하면서 리스트 샘플링을 적용해 마을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 표본을 추출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집집마다 커다란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예전엔 안방 탁자위에 조그만 텔레비전이 놓여있었는데 지금은 기본 40인치 이상 커다란 텔레비전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농촌도 참 많이 변했구나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바로 통계조사 및 정부에 대한 불신, 통계청에 대한 낮은 인지도, 고령의 경영주, 바쁘고 힘든 농사일 등 통계 조사의 열악한 환경은 그대로 아니 더욱더 안 좋아졌다. 업무 인수를 위한 첫 농가 방문은 커다란 걱정과 함께 시작 됐다.



### 그 쓸데없는 것 조사해서 뭐 할 건데?

통계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

‘쓸데없는 조사...’ 들을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이다. “농사일로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왜 하필 내가 표본인가 뭇가로 뽑혀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나라에서 농민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조사로 또 괴롭히냐... 이런 거 조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바쁜 사람 잡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10월말 감 수확으로 한 참 바쁜 농가에 방문해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엄청 준비해갔다. 정말 만나기 힘든 경영주를 만나 너무나 기뻐서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 ○○○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한마디에 돌아온 답변이었다.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지... 순간 많은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저씨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나? 감 값이 많이 떨어졌나? 아주머니랑 싸우셨나? 내가 맘에 안 드시나? 등등... 기분 안 좋으신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후퇴 했다.



**응답부담을  
최소화 하자!!**

지난 시간동안 농촌의 조사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통계조사 노하우는 많이(?) 발전했다. 연동, 표본개편 등을 통해서 나름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 아자! 아자! 힘내서 부딪쳐 보자!!

며칠 후 그 농가를 다시 방문했다. 물론 두 손은 무겁게^^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다. 영농일지도 아무것도 작성돼 있지 않았다. 방문했다는 메모와 간식거리를 남겨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조심스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입니다... 낮에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밤에 전화 드려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고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안 뺏을 게요. 언제쯤 시간이 되시나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저번에 나한테 심하게 말한 게 약간 걸리셨는지 내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내일 점심때 잠깐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 맞춤형 보조조사표 활용

농가경제 조사가 쓸데 없는 조사가 아니고,

귀찮고 힘든 조사가 아니란 걸 알려드려야 한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저씨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조사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보조조사표가 필요했다. 그동안 파악된 농가의 특성(가구원, 재배작물 등)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조사표를 만들었다.

다음날 시간 맞춰 농가에 방문했다. 아저씨는 점심식사 후 감 선별작업을 하고 계셨다. 여전히 많이 바빠 보이셨다. 바쁜 시간 뺏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행히 시간을 내어주셨다. 아저씨 첫 마디가 “바쁘고 귀찮아서 영농일지 작성 못하겠어!!” 하시면서 영농일지를 펴고 바쁘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 하냐고 하셨다. 작성 못하시겠다고 하신 건 농업노동투입내역부분이었다.

농업노동투입내역 기입 예시

(1-2) **여름동안 무슨 농사일을 하셨으며**

※ 여름동안 어떤 농사일에 사용된 농자재를 기입합니다.

| 농 농사 이름의 약칭(예) | 종류 | 물품, 기구, 부품, 기타 |    |     |     |    | 수량 | 비고 |
|----------------|----|----------------|----|-----|-----|----|----|----|
|                |    | 비료             | 농약 | 농기구 | 농기구 | 기타 |    |    |
| 감 선별작업         | 수확 |                |    |     |     |    |    |    |
| 감 선별작업         | 수확 |                |    |     |     |    |    |    |
| 감 선별작업         | 수확 |                |    |     |     |    |    |    |
| 감 선별작업         | 수확 |                |    |     |     |    |    |    |
| 감 선별작업         | 수확 |                |    |     |     |    |    |    |
| 감 선별작업         | 수확 |                |    |     |     |    |    |    |

**여름 농자재를 사용했습니까?**

| 사용된 농자재명 | 사용기간  | 비고 (농기, 농약, 기구, 기타의 종류, 사용량 기입) | 비고 |
|----------|-------|---------------------------------|----|
| 비료       | 7월~8월 | (농기구)                           |    |
| 농약       | 7월~8월 | (농기구)                           |    |
| 기타       |       |                                 |    |

영농일지를 열어 이 부분을 보면 귀찮고 하기 싫은 맘이 든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작성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귀찮은 것만 해결되면 응답할 마음은 있다는 의미였다. “힘드시면 그건 작성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할 테니 영수증만 모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 달에 1시간만 내어주세요. 농업노동투입내역은 매주 출장 갈 때마다 제가 보완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1시간 안에 다 여쭙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그럼 무슨 조사가 되겠어? 영수증만 모아달라고? 그래서 조사가 되겠어?” 난 방긋 웃으며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여쭙보는 것만 빠짐없이 잘 대답해주세요. 어려운거 안 물어볼게요. 귀찮게도 안할게요. 그렇게 해 주실꺼죠? 네?” 잠깐 고민하시더니 마지못해 “그럼 그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통계조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응답자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고, 누락 없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맞춤형 보조조사표』가 필요했다. 빠짐없이 물어본 것 같아도 조사표 정리하다 보면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 두 개 때문에 몇 번의 전화, 방문은 응답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엔 불응을 유발한다.

『맞춤형 보조조사표』는 조사의 기본이 되는 가구원수부터, 농업 이외 종사 여부, 농업지출, 농업노동투입내역, 가계지출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농업 지출은 항목별로 꼼꼼히 물어보고, 농업노동투입내역은 작물별로 작업사항을 체크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세분했다. 이 조사표 한 장으로 농업지출, 농업노동투입내역, 가계지출까지 꼼꼼히 조사하니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되고, 조사자도 누락이 방지 돼 정확하고 쉬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한다!!

농가에서 자주 누락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

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이다. 조사표 작성을 위해서는 통장 정리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123에 전화해서 미리 파악해둔 고객번호 또는 집주소를 말하면 전기요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수도요금 역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수용가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쉽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스스로 해결해서 응답자에게는 응답 부담을 줄여주고, 통계조사의 정확성은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 통계조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라!!

통계조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영수증만 모아주세요~ 그리고 1시간만 주세요” 했을 때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아저씨의 마음을 바꿔놔야 한다. 통계조사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위해 방문예약은 하지 않고 방문한다. 하지만 방문 후에는 갔다 왔다는 표시를 꼭 하고 온다. 작물조사를 위해 밭에 갔을 때는 사진을 꼭 찍고(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꼼꼼히 조사해도 놓치는 부분 발생), 다음에 만났을 때 “○○밭에



우엉, 상추, 열무 새로 심으셨데요... 근데 이 작물은 뭐예요?” 하면서 책상에 앉아 물어만 보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논밭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창고 앞에 새로 구입한 비료, 농약이 보이면 바로 사진 찍고, 보조조사표에 메모 해놨다가 보완하고, 뭐든 안 보이던 게 보이면 무조건 사진 찍고, 한꺼번에 물어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영수증의 양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조사표에 직접 기입도 해 주셨다. “아! 맞다. 저번 달에 자동차 속도위반 과징금 32,000원 냈는데 그거 안 적혀 있지요? 깜박했네...” 이렇게 아저씨의 마음은 불응에서 응답으로, 비협조에서 협조로, 강제에서 자발로 변해갔다.



**쓸데없는 조사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조사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농가경제조사가 쓸데없는

조사가 아닌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에 꼭 필요한 조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1년 조사가 마무리 되면 4월 마지막 주에 농가경제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농가경제조사 보고서와, 관련 보도자료들을 출력해서 농가에 가져다 드리면서 “아저씨가 작성해주신 자료로 나온 보고서예요”



하면 “이게 진짜로 농업정책 수립에 반영이 되는거야? 그럼 정말로 숨기는 것 없이 사실대로 조사 해야겠네... 그래야지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보조도 하고, 정책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세요. 정확한 조사는 정확한 응답에서 나오니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가경제 조사 잘 부탁 드려요~”



### 수기 작성을 마치며

다음달 9월이면 농가경제업무를 맡은 지 2년이 된다. 모든 게 그렇

듯이 노력 한만큼 얻게 되는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농가경제조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논으로 밭으로, 농약방으로, 읍사무소로 땀나게 뛰었더니 농가경제조사는 더 이상 엉켜있는 실타래가 아닌, 하기 싫은 어려운 업무가 아닌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내 업무가 되었다. “쓸데없는 것 조사해서 뭐 할 건데?” 하시던 농가 아저씨도 이젠 통계조사 모범 응답자가 되셨다. 귀찮고 하기 싫은 통계조사에 기꺼이 응답해주시는 고마운 농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농가경제조사 결과가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돼 농가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며 농사짓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담대해지는 날이 오겠죠?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

충청지방통계청 이 수 연



2015년 3월 24일  
: 첫 출근, 나의 첫 조사구

마음 날씨 : 맑다가 흐림  
A.M. 7:00. 29년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서울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KTX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지? 사무소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걱정 때문인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다 보니 어느새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소로 발령받은 이수연입니다.”

사무소 전체를 돌며 인사를 드리고, 정신은 없고 얼떨떨한 상태.



“수연씨, 점심 먹고 조사구에 갈 예정이니 준비해요.”

발령 후 바로 조사현장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선배들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첫날부터 바로 조사구로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조사구, 처음 만난 응답자.

전임자 : “아드님 상여금은 받으시나요?”

응답자 : “상여금 없어.”

전임자 : “명절 때 회사에서 선물 안나왔나요?”

응답자 : “참치캔 하나 받아오던데.”

전임자 : “아, 그럼 상여금은 받으셨고~”

응답자 : “아니, 그게 무슨 상여금이야!? 겨우 참치캔 하나 받은걸 상여금이라 그래? 이래놓고 정확한 조사라는거야? 내가 이래서 이런거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발령받은 날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기간이고, 임금근로자 부가조사도 있던 달이어서 인수인계와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처음 만난 응답자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랄 일은 두 번째 조사구였습니다.

낯은 연립주택.

“201호분은 장애가 있으세요. 305호는 아저씨랑 아주머니 모두 불응이고, 딸을 통해 설득 중이에요. 107호는 아들이 심한 불응이에요. 저번에 마주쳤는데 경찰 부를 뻔했어요. 절대 벨 누르지마요.”

‘경...경찰?? 경찰에 신고하는 가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그게

당장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충격 속에서 가구의 특이사항을 메모하던 중, 한 아저씨가 소리를 치시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으면서 왜 또 왔어!”

106호 응답자 아저씨. 가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고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 항상 술에 취해 계시니까 조심하라는 전임자의 당부... 충격 2연타.

그야말로 멘.붕.상태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몇 십번이고 와야 하는 내 조사구라고?’

‘나 잘할 수 있을까...? 그것보단 별일 없을 수 있겠지...?’

아침의 설렘반 걱정반이 반나절만에 걱정 100%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 첫 전입가구를 잡다!**

**마음 날씨 : 흐리다가 맑음**

가구부문을 담당하는 사회

통계팀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가구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으나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또 몰랐습니다. 다음 주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감 전까지 전입가구를 잡아야 한다는 주무관님들 말씀에 발령받은 그 주 일요일에 조사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핑동핑동~

“계십니까~? 통계청입니다.”

그 전에 붙여놓았던 방문스티커가 떼어진 걸로 봐서는 분명히 새로운 가구가 왔는데, 조사를 해야하는데... 초조한 마음에 응답 없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통화를



하시면서 올라오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올라갔더니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통계청에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함도 없고, 공무원증도 없이, 임시 신분증만 갖고 있는 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서도 식혜 한 그릇을 내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주말에 집에도 못가고 일을 하는 내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는데, 한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짐을 느꼈습니다.

매월 조사를 계속하면서 어머님과 만날 때면 첫 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따뜻한 분과의 만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분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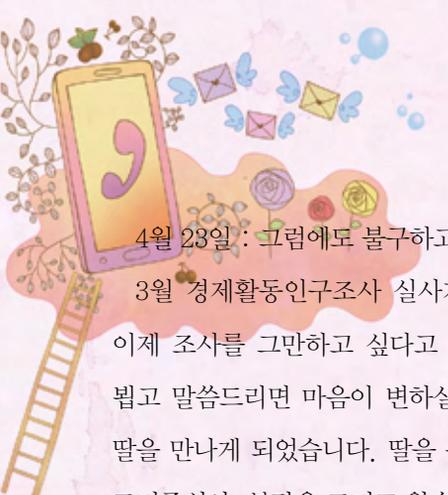


###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첫 불응 처리

마음 날씨 : 장마.. 계속 장마  
4월 17일 : 의욕만만! 손편지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배부하는 것은 첫 달이었기에 조사표를 배부하면서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음을,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4월 23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기간에 면접이 어려워 전화조사를 하던 중 이제 조사를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직접 만나 뵈고 말씀드리면 마음이 변하실거라 믿고 가구에 방문하였고 어머니 대신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통해 4월 조사를 하고, 어머니께 잘 좀 말씀 드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온 한통의 문자.

띠릉~

심장이 두근두근...

‘왜 오자마자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많이 부족한건가?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팀장님과 함께 면접과 전화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끝내 조사 시작 처음으로 불응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 통계청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응답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 그날도 여러 번 망설임 끝에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그거 아들보고 해서 넣어 놓으라고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

“누군데?”

“에이, ×× 통계청.”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언제였던가? 불응이 생겼을 때 보다는 아니었지만, 또 한 번 상처를 크게 받은 기억입니다.



### 6월 가계동향조사

### : 할아버님, 할머니과의 특별한 데이트

#### 마음 날씨 : 쾌청한 하늘, 맑음 또 맑음

7월 초, 6월달 가계부를 수거하며 가계동향 보완조사를 하던 때입니다. 60세 중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 가구로, 2분기 동안 할아버지 이발비가 나오지 않아서 할머니께 이발은 안하시냐고 여쭙보니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결혼한 두 따님은 타지에 살아서 자주 오지 못하는 형편이라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에 나가려면 콜택시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구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커피라도 한잔 챙겨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님께 보답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님, 할머니님을 모시고 이발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낯은 이발소, 푸근한 이발사 아저씨.

이발사 아저씨는 단골 손님이셨던 할아버지의 오랜만의 방문에 반가워 하였고, 최근 밖에 나오시지 못하셨던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시며 그동안 나누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날 할아버님 이발도 하고, 할머니님 병원도 방문하고, 그동안 무거워서 사지 못하셨던 선풍기도 사서 돌아오며, 조금이나마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니님을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 할머니님께서 너무 고맙다며 제 손에 쥐어주신 참외 하나... 불응가구, 냉랭한 가구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 5개월차 현재의 날씨 : 비가 오락가락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통계청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제 스스로 꽤 이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간 조사를 하면서, 응답자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조사 못하겠다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우울하다가도 더운 날 고생한다며 주시는 시원한 음료수에, 항상 조심하라며 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초인종 벨 누르는 것, 전화한번 하는 것도 수번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끈질기다는 소리를 듣기도 할 만큼 꽤 집요해지고, 영수증을 분실했다는 가구에 영수증통을 만들어 드릴만큼 능청스러워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더 이상 조사 못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기분이 울적해집니다.



가구에서 받은 복숭아와 배즙



가구에게 전달한 영수증보관함



### 9월 첫 연동을 준비하며..

마음 날씨 : ???

통계청 사회팀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연동!! 오지 않을 것만 같던 6번 연동이 벌써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만나면서 또 상처도 받고, 기대하지 않던 분들의 친절에 감동도 받으면서... 맑았다 흐렸다 하겠지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조금은 더 담대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계청 사회팀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고고씽~~!





조사에 성공하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하나

충청지방통계청 김을진

한 낮의 폭염 속에 차를 조금만 밖에 세워두어도 내부 온도가 50도를 쉽게 넘어 버리는 아주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맞이하던 여름은 지금처럼 사납게 뜨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엘리노 현상이 잦기 때문인지 후덥지근한 현장 날씨가 마치 비닐하우스 내부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현장조사를 생계로 삼고 있는 통계조사원의 일과는 계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 날씨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

6월 가축동향 조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왔다. 엿그제 사무소장님으로부터 최근 수입 소고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들이 민감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면접조사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사전 정신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금회 가축조사가 만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또한, 내가 맡은 지역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지난번 조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탓에 이 번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점점 증폭되어 갔다. 지난번 조사기간에 통계조사원을 문전박대했다는 한 농가와의 만남 때문에 점점 불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긴 통계조사 뭐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던가?” 함께 출장을 준비하던 선배 직원의 푸념은 일상이 된지 오래였다. 그렇지만 뜨거운 동료애가 그렇듯 정해진 일정을 마치고 한 편의 보고서를 만든 후에 시원한 단골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보면 대부분의 현장 일들은 잊고 또 다른 조사를 준비하는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았다.

녹음이 짙게 드리워진 시골마을은 오이수확이 한창이었다. 마을 입구에 서있는 커다란 표지석은 마치 오이가 이 마을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듯, 전국적인 명품 오이로 만들어 보겠다는 작목반장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백다다기, 취청, 가시오이 등 오이의 품종도 다양했다.

마을의 규모는 백여호가 넘고 산간지역임에도 개울을 끼고 비옥한 논이 펼쳐져 있어 딱 봐도 부농들이 많을 것 같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집들 뒤로 오이밭이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는 것만 봐도 작목반장이 이 마을에 오이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설파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마을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몇 발자국 걸었을 뿐인데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여물을 뜯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소 값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소를 내다 팔아 자식들 공부시킨다는 시골 어르신들 마인드 때문인지 집집마다 축사 하나씩은 끼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늘 이 마을에서 표본 72농가와 전수 5호를 조사하는 것이 내가 담당할 업무의 진도표를 채우는 일이었다.

첫 번째 집의 대문을 통과했다. 노부부가 새벽에 밭에서 따온 오이를 선별 하느라 분주했다. 사람이 왔는데도 정신없이 오이 선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 이 마을에서 오이 스무상자를 ‘속박이’로 속여서 포장했던 노인이 집하장 마당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그 노인의 아들이 작목반장인데 자기 부친이 포장해온 오이를 그 자리에서 적발해서 출하를 막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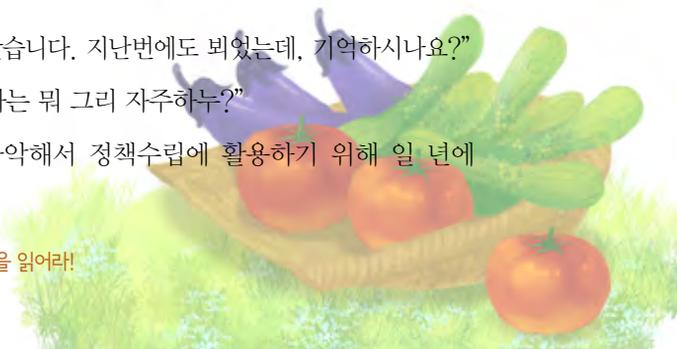
피를 나는 가족 간에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작목반장의 성격 탓에 오이 선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작목반장의 무용담은 내가 오늘 겪게 될 시련의 전주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다.

조사표를 뒷마루에 두고 포장된 15킬로그램 들이 오이박스 대여섯 상자를 경운기에 옮겨 실어드렸더니 그제야 노부부는 무슨 일로 왔는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가족조사 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하지! 근데 그 조사는 뭐 그리 자주하누?”

“전국의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일 년에





네 번 조사 하는데요. 제가 봐도 조사가 자주 돌아오긴 해요!”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응답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면접기술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너스레를 떠는 것도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소는 몇 마리 키우시나요? 지난번에 어미 소 임신했었는데 새끼 뻘나요?”

“응... 숫송아지 나서 지금 다섯 마리야! 소 값이 싸서 이거 사료값도 안나와!”

“그럼 2세이상 암컷이 세 마리, 숫송아지 한 마리, 지난번에 있던 암송아지 한 마리, 그렇네요? 지난 석 달 동안에 팔거나 사온 소는 있나요?”

“없어! 소값이 있어야 말이지....”

“네 그럼 바쁘신데 감사드리구요! 오늘은 사람들이 다들 맥에 계신가봐요?”

사람을 만나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탓에 살짝 동네 분위기를 익히려고 질문을 던졌다. 가족동향조사를 하면서 옆집을 엿탐하는 것도 습관처럼 익혀져있는 나만의 조사기술이라 할 수 있었다.

“요 옆 작목 반장 집 가봐! 이동네에선 그 집이 소가 많잖아! 우리 같은 집 이야 소를 키운다고 할 수도 없지! 한 백오십 마리 될꺼! 근데 그이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볼께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 집 조사를 나름 가볍게 마치고나니 조사에 탄력과 자신감이 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여세를 몰아 규모가 큰 축사를 두 개동 보유하고 있는 작목반장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큰 창문이 붙어있고 검색벽돌로 지어진 주택에 현관의

거대한 철문은 작목반장의 위치와 성격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뵈었죠? 통계청에서 가축조사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작목반장 집이 소를 많이 키우는 집이었고 한 번의 방문으로 농가주를 만났다는 기쁨에 무턱대고 조사를 시작했던 것인데 농가주의 기분을 맞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 값이 좋지 않아 기분도 좋을 리 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고 축사에 가서 마리수를 세어 봐도 되냐는 말까지 하지 않았던가?

면접청취조사에서 직접 마리수를 세어본들 아무 소용없음에도 나도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응답자와 맞붙을 놓았던 것 같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리 없었다. 노 선배를 모시고 다시 나와서 조사를 끝마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주에게는 한명의 아마츄어 조사원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됐어요! 필요 없으니 가세요!”

“아! 오늘은 조사보다 날이 더운데 커피라도 한 잔 주시죠? 지난번에 죄송했던 마음도 있어서 반장님 뵈 김에 사과도 좀 드리고 싶구요!”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라는 생각을 하며 작목반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때 눈가에 살짝 경련이 이는가 싶더니 입술이 가벼워지더니 청량감있는 어조로 나에게 말을 붙인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가?



“그럼 잠시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작목반장은 나를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는 주방에서 한 참을 서성거리더니 집사람이 장에 갔다며 얼룩이 묻은 잔에 달달한 커피를 두 잔 타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지난번에 자기가 좀 심했는데 이해하라며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조사를 나왔으면 뭘지 알고 왔을꺼잖우! 소 값은 떨어져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남의 축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잖수! 나도 통계조사를 많이 받아 봤지만, 이건 기본도 안가르쳐 보냈다는 생각에 소리를 질렀던 거유! 많이 서운했겠지만 다 그런거 아니겠수!”

“아닙니다. 저도 그러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조사를 빨리 끝내야겠다는 욕심에 반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뵙게되면 사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차 한 잔 타다 달라 했네요!”

둘 사이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 이 분이랑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는 생각이 불현 듯 스쳤다.

“근데 반장님! 오이가 괜찮은가요? 이 동네는 올 때마다 오이를 특화작물로 만들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득이 괜찮은가요?”

“오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촌에서 뭐든 해봐야지! 배운거 없구 가진거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우! 나야 소도 키우고 농고라도 나와서 그냥저냥 살아간다지만 이동네 사람들 잘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슈? 아버지가 가져온 오이박스도 고르지 않으면 패명겨치는 사람이예요! 요새 우리 동네 오이가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명품으로 통해요! 그만하면 성공한거지.”



“아 저도 오다가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난들 그러고 싶겠수! 눈 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봐야지! 사먹는 사람들이 또 사먹을 수 있는 오이를 팔아야지! 그러려면 별 수 있나?”

작목반장의 눈동자가 빛났다. 어쩌면 이 분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소박한 농업인인지도 모른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진정한 농업인을 몰라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멀리 보는 지혜를 갖춘 분이었다는 것을 지난 번에 왜 몰랐을까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칭찬이 매질보다 낫다’라는 의미의 찬승달초(讚勝達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직업, 어쩌면 통계 조사원의 숙명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기술을 배운 것 같다.

사람이 길을 가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논어의 구절처럼 겸손을 잃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도 나는 현장을 향한다.





# 회수율을 높이기 70%에서 93%대로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둘

충청지방통계청 정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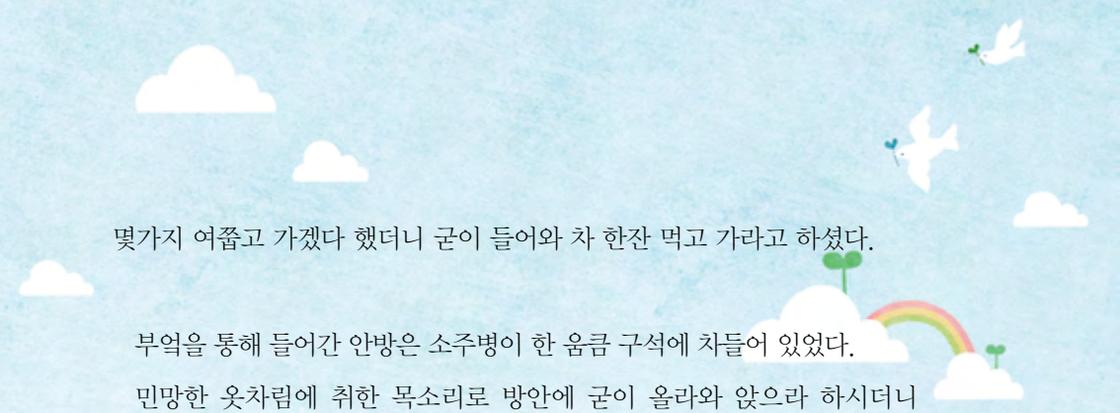


## 설득 1조사구

2015년 1월, 3년 이상을 담당했던 농업생산팀일을 마치고 경제사회팀으로 변동되었다.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는 업무이며 가계부 회수율이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였다.

12월 20일부터 업무 인수를 받으며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 중 다세대가구 월세방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한 세입자분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곳이었다.

마침 창가 문을 푹푹 두드려 보았더니 집에 계셨다. 문앞에 나오셨는데



몇가지 여쭙고 가겠다 했더니 굳이 들어와 차 한잔 먹고 가라고 하셨다.

부역을 통해 들어간 안방은 소주병이 한 움큼 구석에 차들어 있었다.

민망한 옷차림에 취한 목소리로 방안에 굳이 올라와 앉으라 하시더니 부엌 쪽으로 가 현관문을 잠그셨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인계자 조사관님과 나는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가야한다며 서둘러 나왔다.

그런일이 있는 후 또 그러한 일이 생길까봐 만나기를 기피해 늘상 불운이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술취한 목소리에 겨우 아이들을 정도였지만 다행이 전화를 끊지 않으셔서 그래도 조사를 했었고, 못 만날 때는 문앞에 상품권을 두고 갔었다. 알콜중독이 너무 심해 오전에만 잠깐 술이 깨어 있으셨다.

몇 달간 근근히 조사를 하다가 차차 가까워서 면접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분께서 당신은 고아였으며 지금은 타일공으로 일하고 있고 고아원 시절 부당한 대우에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다.

지금은 55세. 잇을만도 하신텐데도...

재산이라곤 보증금 100에 월20만원,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 우리 주변엔 참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몇 달전 근로장려금이란 제도가 나와 연락을 드렸다. 조사필수품도 몇차례 받으신 터라 신뢰가 형성이 되어있어서인지 그날 오후도 취해 계셨지만 전화를 받으시고 제 얘기에 귀 기울이셨다. 그날 바로 선뜻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셨지만 나이가 적어서 안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단다. 그러면서 가계부 얘기도 꺼내봤지만 엄두도 안내셨다.

며칠 후엔 마침 주거급여란 복지제도가 생겨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꺼내어봤다. 지난번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못받아 신뢰를 할까 우려도 났지만 만날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결국 동사무소를 찾아 가셨고 신청도 하고 오셨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감사했다. 남들 다 참여하는 제도에 동참하시는 모습에 술이 지배한 인생에서 벗어나길 바라보았다.

이제 7월 말은지 7개월째. 경찰조사 및 집세조사는 잘 해왔지만 가계부는 여전히 불응가구로 남아있다. 내 자신의 내면속에 1%의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나의 교만이었다.

팀장님께서서는 가계부 회수율이 낮으니 소장님께서 설득하러 가시려한다고



추천을 하라하신다.

꼭 가서야 한다길래 이 대상처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렸다.

그리고 잠깐 술이 깨어있는 아침에 만나야하니 오전 9시에 가야한다는 당부도 전해드렸다.

소장님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일주일 뒤 9시 20분에 그분의 집에 찾아갔다. 마침 집에 안계셨다. 용기내어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팀장님이 소장님도 같이 오셨다는 말을 전하라하셔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두려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통했다. 친구분들이랑 해장술을 드시고 있는데 당장 택시타고 오신다는 것이다. 10분도 안되어 택시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긴 얘기를 경청하였다.

지난 날을 이야기하셨다. 고아원의 부당한 학대, 부모님의 냉정함, 그래도 그 춥고 열악한 고아원 생활속에 서로가 다독였던 옛정 그게 많이 그리다는 것이었다.

소장님 방문은 적절한 것이었고 담당자인 내가 이런 자리를 일찍 마련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우려와는 달리 방문에 옷걸이 처럼 못이 박혀있었는데 영수증과 공과금 영수증을 일일이 꽂아두시면서 모으시는 분이셨다. 아차 하는 느낌이었다. 내 판단과는 많이 달랐다.

그리고 가계부 얘기를 소장님과 팀장님이 천천히 설명하셨고 술은 취해 있었지만 수긍하셨고 정부의 일에 동참해야하는 이유도 잘 아시는 꽤 현명하신 분이셨다. 계좌번호를 받고 가계부와 볼펜까지 전달하고 나왔다.

며칠 후에는 건너방 종이가계부 기입지도차 82세 할머니댁에 방문했는데, 전혀 술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마당에 빨래를 너시고 계셨다. 가계부 잘쓰시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신다.

가계부가 인생을 좀더 꼼꼼하게 설계하고 정부의 일에 동참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셨으면 하는 작은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분들이 보고 계시니깐.



### 설득 2조사구

◇◇조사구 회수율 50%를 76%

◇◇면 빌라지구 참

으로 슬프다. 황하는

바람만 있다. 내가 차에서 내리면 반겨주는건 바람이었다. 참으로 쓸쓸한 분위기에 나로서는 명부작성은 엄두도 안나보였다. 처음 연동담당자가 명부에 작성된 가구를 파악한 것도 대단해보였다.

가계부 회수율 보다 현상유지라도 만족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였다.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빌라.

‘통계청의 업무는 출장이라는 게 있어 좋지 않은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와야지.’

다행히 항상 가면 집에 계시는 가구가 있었다.

80세가 훌쩍 넘으신 할아버지가 파지를 주우셔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집이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가 무척 아프셔서 집안일도 겨우 하시는 분이다. 게다가 자녀분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증을 못내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에 손녀 2명까지 돌보면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참으로 딱한 분이다.

핑동 “가계부 회수차 온 통계청 직원입니다” 건네주시는 가계부엔 빼돌한 글자가 빼곡이 줄마취 적혀있었고 한참 나이 어린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하며 전해주신다. 그런데 연로한 이분이 물꼬를 열어주시게 된다.

그달 마침 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가구를 선정해보라 하셨다. 선뜻 그가구를 추천해드렸고 그분이 선정되어 소장님 및 주무팀장님 그리고 경리주무관님과 방문하여 쌀과 과자 등을 전달해드렸다.

이런 것 받기는 처음이라 하셨다. 이게 끝인줄 알았는데..

빌라가 황하니 다들 맛벌이라 집에 안계시고 만나뵙기 힘들어 명부도 잘 파악 안되고 불용가구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주말 위층 가구가 쉬는 틈을 기회로 방문하셔서 가계부를 쓰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말 않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자인 나에게 전화를 걸고 방법까지 물으러 전화가 오셨다.

어머님과 직장다니는 아드님 2인 가구였는데 전자가계부를 아드님이 쓰시겠다.

이런 거저먹는 게 어디있는가... 난 운이 넘 좋았고 두 분 모두 다 감사하고 감사했다. 그날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으로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 되고 전자가계부 시스템이 잘 열리지 않아 오랜설명의 통화로 핸드폰 요금이 폭탄이었지만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암튼 그분은 첫달 종이가계부에도 써주시고 전자가계부에도 다 입력하시고 현금영수증 불러오기도 해주셨다.





그리고 사용한 내역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다 기입해주셨다. 44년 동안 만난 청년 중 최고로 꼼꼼했다. 그래도 회수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적격 8가구 중에서 3가구였지만 4가구로 늘어난 것뿐이다.

전에 소장님과 팀장님이 설득차 방문한적이 계시는 혼자사시는 어머님 가구가 있다. 방문할 때마다 안 계시는 분이였다. 경찰조사도 겨우 해 주신다. 비경제활동인구이시지만...

조사필수품인 샴푸나 상품권을 받아도 찝찝하다며 모아두셨다가 나보고 한꺼번에 가져가라 하신다. 그 상황에서 설득하기 쉽지 않다. 싸움만 날뿐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라고 한 뒤, 경찰 조사만 하였고 시간 날 때 차 한잔 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의 불쌍하고 쓸쓸한 모습을 각인 시켰다.

그리고 수일 후 방문했을 때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때는 가계부 얘기는 하진 않았다. 전에 워낙 많이 들어서서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 얘길 들어드렸다.

그 분 또한 가슴아픈 사연이 있었다. 남편의 외도로 혼자 아이를 키웠으며, 이젠 그 아이의 자녀를 혼자 6년 동안 멀리 당진서 돌보아 주었고, 이젠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떠나 보냈다는 등... 참으로 들어보면 가슴이 아픈 얘기였다.

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에게 신뢰가 간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그렇다. 그분도 그러셨  
다. 그날은 가계부 쓰신



다는 얘기는 안하셨다.

다음에 방문했을 땐 써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체 성격이 불같으셔서  
확신하지 말라는 말도 하셨지만 어쩌면 써 주실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팀장님께 보고를 했지만 확신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자주  
방문해서 귀찮게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시므로 그냥 믿어 보고 말일날  
회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말일이 되어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더니 손주가 쓰던 노트에 빼  
곡히 적혀있었고 그걸 가져가라 하셨다. 워낙 바쁘신분이라 농협상품권 2  
만원 그 자리에서 드리고 나왔더니 이런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순간 적은 사례금이 불만이신 것 같았다. 그건 다음에 찾아와 말씀드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다.

다음달 말일 찾아뵙게 되었다.

시간 맞춰 방문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야 끊어! 나 지금 나가야돼!” 푹!  
황당했지만 참았다. 그럼에도 내가 참을 수 있음에 내가 그동안 내성이  
많이 생겼음을 나름 만족도 느꼈다. 한번 더 설득이 필요했다.

매달 오시는 아드님과 전화 후 전자가계부  
입력안내를 부탁드리고 전자가계부 사례비  
4만원을 사례비통장으로 받게해 드리니





고마워하시며 불만없이 지금까지 잘 기입해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회수가구가 2가구 늘어났다.

그 다음달 확인점검 차 그 조사구를 팀장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팀장님이 불응가구 설득도 해주신다 하여 경찰 및 가계불응 가구를 방문하였다.

한가구는 계속 설득과 협조 요청하는 팀장님께 현관 신발을 들고 얼굴을 때리려하고 했었다. 참 무서운 일이었다. 더구나 밤이었기에...

그러나 경찰조사 및 가계부 조사차 방문할 때마다 홍보대사가 되어주신 파지 주우시는 할머니께 빵도 사다드리고 집에 안쓰는 것도 나눠드리고 하다보니 이름만 알고 있었던 다른 불응 가구를 설득해 주셔서 전자가계부 및 경찰조사까지 설득가구가 하나 더 늘었다.

용기에 힘입어 구역확대로 인해 적격가구가 된 할머니와 고등학교 손주가 살고 있는 가구를 방문 7번만에 겨우 만나게 되었는데 단도직입으로 몇분 만에 협조 해주신다고 하신다. 주 5일 정도 식당 일용직으로 나가는 70대 후반 고령의 할머니이시다. 참으로 감사하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선뜻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어려운 처지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통계조사는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목적이 정당하기에 누구나 협조가능한 것이다. 100% 정확하진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조할 의사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맘이 한자리에 다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난 말을 잘하지 못한다. 대인기피증도 있다. 그런데 1분도 안되는 설명에 답해주신다.

이유는 하나다. 공공기관에서 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안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이리라.

처음부터 두려워하면 응답자도 의심을 한다. 첫 대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당당해야하며 그렇지만 언어는 정확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다.

우린 국민의 대변인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이 우리의 월급이니깐.





# 낚은 나무상자의 희망노래~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펀셋

경인지방통계청 강 신 애



## 전통시장도착 100m 전~

오늘은 오일장이 있는 날이다. 〇〇시 인구가 70만이 넘는데도 재래권역인 △△동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린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곳을 지나치다 보면 외국에 와 있는 듯 가게 간판도, 진열된 물건들도 낯선 것으로 가득하다. 농·축·수산물 조사일과 오일장이 겹치는 날엔 시장 진입하기 100m 전부터 길이 막힌다. 주변 주민은 물론이고 공단근로자 가족들까지 저렴한 가격에 먹거리, 입을 거리, 생활용품 등을 사기 위해서 그날만 기다리다 나온 것처럼 도로며 인도며 할 것 없이 인파로 가득하다.

그 막힌 길을 뚫고 도착해서 조사대상처에 가면 응답자들은 풀이 죽어있다. 손님들이 오질 않는단다. 길 건너 장터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저렴한 새로운 물건들이 길가에 즐비하단다. 그 덕에 기존 시장은 개점 휴업상태. 잡곡을 조사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은 쌀을 비롯해서 서리태, 보리, 깨 등 온갖 잡곡을 구비해 놓고 판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봄이면 화초도 갖다 놓고, 마늘, 고구마 등등 닥치는 대로 점포 앞에 진열 해놓으신다.

이 지역 물가조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조사대상처로 남아있는 연로한 응답자 분 중의 한 분이다. 그 와중에도 케이블TV의 “꽃보다 할배”가 재미있이라며 너스레를 떠신다. 평균연령 76세인 4명의 할아버지들이 유럽, 대만 등 배낭여행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프로다.



“언제쯤 나도 배낭 메고 여행을 다녀볼거나~” 하시며 산지에서 잡곡 값이 올라도 오랫동안 믿고 다닌 단골손님을 위해서 그나마 오일장에 손님을 더 뺏기지 않으려고 값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대형할인점은 100원 미만 단위에서 가격 인하를 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개인점포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 “오늘도 잡곡 값은 전하고 똑같아요!” 하신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격의 변동이 없는 무변동 가게 중 하나이다.

가을이 오고 단풍이 드는 계절에는 배낭 하나씩 메고 노부부가 유럽여행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다음 대상처로 이동한다.



### 낯은 나무상자의 희망노래 !!!

“에취 ~ 에취 ~”

재래시장 안쪽 고추 방앗간

앞을 지나는데 여기저기서 재채기다. 콧물, 눈물이 막 흐른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매운 고추를 빵느라 가루가 날리는 것이다. 시장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하다. 참깨를 볶는다.

고소한 냄새와 매운 냄새가 섞여 메케한 냄새~ 어르신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냄새다. 추석 명절이 되려면 열흘이나 남았는데 벌써 재래시장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린다.

포도 향이 물씬 풍겨 나오고 작은 바구니마다 제수용 과일을 두 부부가 콧노래를 부르며 가지런하게 쌓아 올린다.

“올해는 과일이 풍년이어~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요” 하시면서 자두를 건네주신다. 매년 갈 때마다 과일 시세를 알려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맛있는 과일을 또 주신다.

“오늘은 자두가 너무 맛있어요. 추희자두”

가을에 나오는 자두로 가을추(秋) 아가씨희(姬) 추희란다. 빨갭게 물든 자두 빛깔과 하얀 자두 분이 예쁘게 치장한 아가씨의 얼굴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라며 자두를 건네주신다. 정말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다.



여느 과일가게와 다를 게 없이 선물용 과일 상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명절 대목을 준비 중이다. 다른 거 한 가지는 손때가 묻은 구멍 뚫린 나무궤짝이 한쪽에 있다. 손님이 건네는 만 원짜리 지폐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사장님은 희망을 키운다.



올해는 새 아파트도 장만하고, 두 아들 대학에 보내고, 곧 할아버지가 된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작은 가게에서 오늘도 흠과를 고르고 계신다. “손님은 왕이여~” 하시며 크고 좋은 것으로만 봉투에 담아 손님에게 건네신다. 흠과는 덤이다. 사장님은 한 달 후면 손주가 태어난다며 자랑하신다.

낡은 나무상자와 함께한 수십 년의 시간처럼 또 다른 희망을 키워내는 내일이 계속되길 기원해 본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100입니다.**

진행자가 묻는다.

“100이 무엇일까요?”

오늘로 금년이 100일 남았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라디오 프рода. 엇그제 모든 걸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소비자물가 서비스품목을 조사할 무렵이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트로트 음악을 경쾌하게 틀어놓은 ‘화성이발관’.  
 재래시장 구석진 곳에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흰 가운을 입은 이발사가 한  
 어르신을 의자에 반쯤 눕힌 채로 흰 거품을 턱에 발라놓고 긴 면도칼로 수염을  
 깎고 계신다. 옆에서는 아주머니가 조리개 같은 통에 물을 담아 머리를 감기고  
 있다. 이곳은 남자 전용 이발소로 모든 게 예전 방식 그대로 바리깡이 아닌  
 빗과 가위로 이발을 해주는 부부가 꾸려가는 이발소이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원입니다.”

“통계청! 뭐하러 또 왔어, 우리는 이용료 못 올려, 똑같아요~”

매달 웃음으로 일관하는 대답이다.

주변에는 남성전용 미용실인 블루클럽, N가이, 젠틀맨 등 산뜻한 인테  
 리어에 젊고 예쁜 미용사들이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해준다.  
 파마도, 염색도 해준다. 이 틈에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버티는 건 ‘착한 가격’  
 하나이다. 가위를 들고 계신 응답자가 60은 훨씬 넘어 많이 연로해 보였는데  
 연세를 묻지는 못했다.

이 또한 노부부에게서 콧노래가 계속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 야구모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채소값이...”

사장님은 야구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스마트폰 검색만 하고 계셨다.



배추, 무, 열무, 브로콜리... 등 등 몇 개 품목은 중량을 재야하고, 몇 가지는 구두로 물어보아야 하는데 표정이 영 신통치 않았다. 그래도 매번 하던 일이라 체념을 하셨는지 “물어보세요!!” 하면서 열 가지도 넘는 품목을 일일이 대답을 해주시고 무게를 재는데도 도움을 주셨다. 오전 시간에 가서 가지런히 진열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면서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게 맘이 불편하지만 채소들을 조심스레 다루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1순기, 2순기, 3순기를 여러 번 거치는 동안 익숙해졌을 무렵 채소가게 물건들이 있어야 할 곳이 행한 채로 옆집과 경계선이 노란 줄로 메여 있었다. 앞집에 물어보니,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셨다. 파는 것보다 팔지 못하고 상하는 경우가 더 많은 날의 연속이니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나 보다. 맘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멀쩡한 대상처가 폐업이라니... 또 대체 할 대상처 물색에 걱정이 앞섰다.

주변을 둘러보니 반찬가게, 건어물가게, 순댓집, 생선 파는 곳, 정육점 등등 재래시장에 필요한 가게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내가 찾을 건 ‘채소만 파는 곳’ 앞뒤로 두리번거리다 내가 찾는 곳을 발견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누렇게 뜨고, 녹아내린 부추 단을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다. “비가 와도 너무 와~” 노점이나 다름없는 냉방 장치도 없이 선풍기 하나에 더위를 식히며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이런 채소가 남아나겠어” 하셨다.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는 조사원으로 협조를 부탁했더니

“그런 건 왜 조사하는데?”

“배추값이 마냥 올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같은 날



조사해요. 저는 안산 재래시장에서는 얼마에 판매하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면 나라에서 수급조절을 하기도하고, TV 방송에서도 매달 소비자물가 조사 자료를 보도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주부들이 체감하는 먹거리인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소재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

“더운데 고생이 많네요.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하세요” 하면서 오히려 대상처로 선정된 게 뿌듯한 듯 “또 언제 와요?” 하셨다.

다음 조사를 기약하고 ‘아줌마 파워’를 발휘해서 대상처 대체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미 칠십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일을 하시며 틈틈이 TV, 라디오, 신문 등을 보면서 통계청에 신뢰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통계청 보도를 보았으며 “정말 맞는 얘기에, 우리 애들이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안 해~”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매일 채소들을 가지런히 진열하고 손님 맞을 준비에 바쁜 중에도 “오늘은 시금치 값이 너무 비싸 못 가져왔어 지난주보다 배나 올랐어” 하시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날의 물가를 알려주신 어르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었으면 한다.





## “그래도”란 섬을 상상하며...

가끔 왜 우리 가게만 조사하느냐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응답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맥이 확~ 빠지면서 다음 조사대상처로 가는 발걸음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이때 세일즈맨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요점을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듯이 세일즈맨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조사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도 웃음 띤 얼굴로 인사하며 특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본다.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기에 잠시 기록부를 접어두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려한 ‘힐링 여행’의 시간은 얼마나 고마운지~

또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조사현장에서 받은 부담을 툭툭 털고 응답하는 일이나 조사하는 일이나 바르게 생산된 통계자료는 믿음을 주는 결과로 100세 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어도 >

오랜 세월동안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섬이었다. 천리 남쪽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으로 아무도 본사람은 없었지만...

- 이청준 -





## 좋은 통계란...?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펀넷

동북지방통계청 김 애 아

얼마 전에 종영된 KBS 인기드라마 “프로듀사”. 우연히 한 번 보게 된 뒤 너무 재미있어서 방영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찾아보게 되었던 드라마이다. 그런데 그저 깔깔거리며 프로듀사를 보던 중 문득 나에 대해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김수현의 명품 연기 대목에서였다.

“해 형~ 우리 형! 짱드셈”

예능국 왕고참인 송해 선생에게 김수현이 술로 거나하게 신고식을 치르는 장면에서 펼치는 김수현의 술 취한 연기를 보고서다. 한낱 일상적인 술 취한 연기인데, 김수현이 하니 정말 저~영말 다르구나, 저런 게 실력자의 품격이

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고 어찌다보니 그 감동은 나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졌다. 그럼, 나는?

내 일에서의 나... 현장조사 12년차 나의 품격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일 어디하나 쉬운 게 없고, 생업을 위해 치러내는 모든 인고의 시간은 다 숭고하다. 하지만 그 중 현장조사에서 치르는 응답자와의 지고지난한 과정들은 그 숭고함의 최고봉이 아닐지. 현장조사라는 입지 자체가 천성적인 열세이니만큼 더 그러하다. 그래서 난 항상 쿨 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려는 편이다.

“현장조사 담당자는 공무원표 영업사원과 다를 바 없음” 이라고. 까다로운 알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선 카멜레온처럼 응답자에 맞추어 변신을 잘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단 간 쓸개는 빼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설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는 성격이면서 철면피로 부탁하게 될 때는 아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어차피 싫다는 가구에 다시 발걸음을 해야 하고 언니 삼촌 하며 십여 년을 알아 온 사이인 양 친밀하게 구는 사이 내 속내는 나도 모르게 감추어진다. 통계조사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지라 국가 통계의 역할만 읊으며 다가가 있다는 결정의 90% 이상을 지배한다는 사람의 감성에 가 닿을 수 없다. 그러기에 현장조사 담당자는 더 인간적이어야 하고 더 선량해야하며 진심이란 게 있어야 한다. 또한, 혹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응답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좀 비양심적일까. 너무 개똥철학만 얘기하다 보니 조금은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들



일상의 한 토막, 가계 동향 조사 48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야기 개봉 박두~!



○월 ○일 첫째 날 AM 10:00

“양대 콩 사실 분~!

작년 그 집에서 올해도

콩 파신데요. 주문하면 사무실로 가져다주신다니 사실 분은 저에게 말씀 해주세요~”

사무실 농가경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언니가 외치는 소리에 귀가 솔깃 해진다.

‘우리 조사구 이쁜 응답자가 혹시 콩 좋아하실까?’

내게는 어린이집 급식 조리사로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오후 3시 쯤 어린이 집으로 방문해야 만날 수 있는 이쁜 응답자가 계신다. 그런데 엇그제는 그 언니가 나를 좀 불안하게 하셔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다. 언니는 초봄 까지 남편분과 같이 거주하시다가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면 약초 농사를 짓는 남편 분과 떨어져 지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남편분의 보험료를 분리하여 선물 처리 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이다.(보통 같은 보험사인 경우는 보험 개수에 상관없이 한 건으로 보험료가 인출되기 때문에, 응답자들도 보험 증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건별 보험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초기 조사 때 자세히 조사가 되었다면 지금 별 탈 없이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처음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조금 미루어 왔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언니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개인별로 정확한 보험료 금액을 여쭙보자.

“내가 다 적어줬잖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어야 돼? 그거 가지고 뭐할라고? 자기가 자꾸 그러 길래 내가 인터넷도 찾아 봤자나. 도대체 통계청 가계부가 뭐가 하고...”

이러신다. 당황스럽다. 하긴 전부터도 적어주신 가계부를 놓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볼라 치면.

“아~이, 나 안할래. 좀 그래... 쓰면서도 계속 찝찝한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나 안써~~” 하시긴 했다.

워낙에 여리고 고운 분이시기에, 적어 주신지가 8달이나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런 적극성(?)까지 보이시니 수화기 너머 나는 별별 상상을 다하게 된다. 안 그래도 적적이 적은 조사구에 이 덕이 불응하면 회수율이 얼마가 되고 그럼 사무소 회수율은 또 얼마가 떨어지고... 다음에 나가면 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거부터 시작하여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당장 조사구에 나가 상황 파악을 하고 좌불안석에서 벗어나고만 싶어진다.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강남콩의 일종인 양대 콩 한 자루를 사본다. 사무실 사람들이 “여간해서 이런 걸 잘 사지 않는 내가 웬일이냐”며 관심을 갖는다.

“그 콩, ○○씨가 먹을라고?”

“아뇨 누구 좀 드릴 분이 계셔서...”

“그래? 그럼 같이 좀 까줄까?”

농산물이라는 게 싱싱할 때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게 맞인데 당장 들고 언나



에게 가봐야지 하며 대답을 망설이는 찰나. 아뵘사 오늘은 가계조사 불용 가구 설득을 위해 가계조사 담당자 모두가 ○○조사구로 합동 출장을 나가기로 한 걸 깜박했다. 이리하여 어쩔 수 없이 잠시 쉬어가는 모드가 되고, 까서 담은 양대 콩 두 봉지를 바라보며 또 다른 걱정애 돌입한다. 바로 좀 있다 나가 불용 가구에 대한 것이다. 오늘 가는 곳은 그 불용가구의 가구주가 하는 ○○지역 생맥주 전문점. 가는 데만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서 뜻하지 않게 팀 간담회를 하게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슬슬 퇴근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 우리는 연장 근무를 위해 멀미나는 고갯길을 넘어간다.



○월 ○일 첫째날 PM 7:00

생맥주 전문점을 한다는

가구가 속한 조사구는 연동

시작부터 우리 사무소의 애물단지였다. 리조트 인근에 자리 잡은 조사구는 자연자들이나 리조트 3교대 근무자들이 많아 낮에도 황량하기만 했다. 돈벌이에 지쳐 조사에 응답해 줄 인심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곳. 그런 지역색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회수율 높기로 소문났던 ○○사무소 역사 이래 이런 조사구는 처음이었다. 그 정평 덕분에 올해의 사무소 가계부 회수 목표치를 낮추느라 팀장님과 가계 총괄자는 꽤나 곤욕을 치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다. 그래서 경력 짧은 담당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워서, 가계조사 총괄자 동행, 경력자 동행, 팀장 동행 등으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가던 중이었다. 오죽하면 조사구 담당자가 아닌 내가 이리도 상황을 잘 알까.

그러다 오늘은 아예 팀 전원이 한꺼번에 나섰다. 그래봐야 4명이지만, 각자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 출장 날짜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 장거리 운전은

술에 일가견이 없는 조사구 담당자가 맡았고, 든든한 우리 팀장님은 오늘의 물주님으로... 그런데 이 생맥주 전문점은 사실 팀장님의 사업체 조사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업체 응답을 하던 중 가계조사까지 대상이 된 경우였다. 그러다보니 가계부 설득하다 혹여 사업체 조사까지 난처한 상황이 될까 모두들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차에서 내리니 태기산에서 내려오는 청량함이 불용 설득이란 부담감까지 가져가 주는 듯 했다. 맥주 집에 들어서자 한 테이블의 손님이 있었고 주방장과 가구주 단 둘이서 운영하는 가게는 못 다한 영업 준비로 바빴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방문 한 것은 아니기에 가구주도 조금은 놀라는 눈치였으나, 멀리서 찾아 온 우리를 이내 웃으며 맞이해 주셨다. 팀장님은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끼리 술도 한 잔 하고 사업체 조사도 할 겸 방문했다며 간단히 인사를 하시고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으셨다.

사실 난 팀장님을 대동하여 팀원이 모두 방문하면서 못다 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꿈꿨었는데... 초반부터 느껴지는 울 팀장님의 여유로움에 조금은 당황했다. 기대와는 달리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니시다! 아니나 다를까 안주가 나오길 기다리며 팀장님께서 말문을 여신다.

“오늘은 그냥 방문하는데 의의를 두자고. 내 오늘 여기 온 거는 힘든 조사구 맡아서 고생하는 우리 ○○씨 때문이야. 고생하는 ○○씨 술이라도 한 잔 사줄라고. 저기 사장님도 이렇게 우리들이 오는 거 보면 다 아시는 거 아냐? 너무 직접적으로 장사하는데 와서 여러 얘기 하는 게 좋은 거 같진 않아. 오늘은 이렇게 얼굴 비추고 다음에 또 오자구. 소장님도 한 번 모시고 오고 (웃음) 기본적으로 난 그래.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분들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는 거지, 조사란 게 별거 없어 우리 다 잘



알잖아. 그치? 그래서 더 쉽지 않지만 말야...”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설득이란 부담감에 잊혀졌던 내 본심도 팀장님의 생각과 다를 바 없던 것임을 깨달았다. 가까스로 설득한 가구에서 제대로 된 수입 지출 내역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상심하고, 가구에서 내미는 엉망 된 영수증 봉치에도 은근 뿌듯해 하는 그런 나인데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계부 권수 하나 늘리는 것만 생각했던 게 12년차 조사자의 품격은 아닐 듯 했다. 경력자로서 다른 담당자의 설득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 맘을 더 급하게 만들었지만, 중심을 잃을 뻔한 찰나 팀장님의 말씀으로 설득보다는 제대로 된 가계부 한 권이 더 간절해졌다.

한참 사는 얘기며 일 얘기에 분위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이 가구의 배우자가 지인들과 함께 가게에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리조트의 경리 사원으로 일하는 배우자는 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였고, 가까스로 만나 설득을 시도했을 땐 확답을 주기로 한 날짜까지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 한 통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를 본 배우자는 미안한 듯 슬쩍 자리를 피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누구도 달려들어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다. 다만, 안주가 너무 맛있다며 칭찬 일색으로 마구 반가움과 친한 척을 했을 뿐. 우리 모두 이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한 거다. 마음을 열어주기만 하면 꽤 괜찮은 가계부가 나올 분인데 하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오늘의 컨셉 대로 좋은 인상만 남겨 주기로 한다.





○월 ○일 첫째 날 PM 10:00

늦은 10시 생맥주

전문점을 나오면서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 갈 길은 여전히 멀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얻었고 만나기 힘든 배우자와 눈도장까지 찍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꾸준함에는 장사가 없다는 지론대로 다음에는 소장님을 모시고 가서 눈도장의 수위를 높여 봐야지 싶다. 언젠가는 적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래도 80% 정도는 되더라는 팀장님의 말씀을 믿으며 계속 열심히 이 가구의 문턱을 넘어봐야 할 것 같다. 고갯길에서 바라보는 별이 너무 크고 밝아서 더욱 기분 좋아지는 밤이다.



○월 ○일 둘째 날 PM 3:00

어제 긍정심을 되찾은

덕분으로 어린이집 급식

조리사 응답자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물러났다. 응답자를 위해 산 양대콩은 우리집 냉동 칸에 잘 보관해 놓았다. 혹여나 콩을 싫어하실 수도 있고 냉동 해둔 것을 그냥 가져갔다 어찌 될지 몰라서 언니에게 여쭙 보고 갖다 드릴 생각이었다. 어린이집 앞에서 차를 대고 저 왔노라고 전화를 드리니 의외로 언니의 목소리가 밝으시다. 조리실이 연결된 뒷문으로 들어가 주방에 들어서니 언니가 웃으며 나를 맞아 주신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가구월별 보험료 내역을 내미신다. 급해서 월간 식단표 귀퉁이에 메모했다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다행스럽고 기쁠 수가... 이를 밤낮을 은근한 걱정으로 맘 졸였는데, 역시 나를 배신할 분이 아니셨다.

“언니, 혹시 양대 콩 이라고 아세요? 강남콩 일종인데 꽤 맛나요. 식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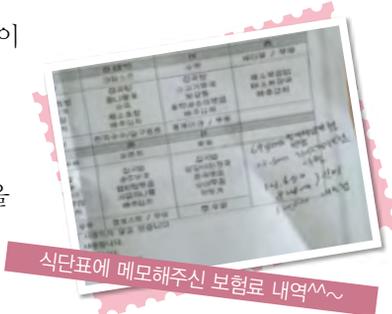


콩 좋아하세요? 잘 드세요 콩?”

“아~ 양대 콩? 나는 좋아해. 식구들이야 모... 그래서 엇그제 큰 거 한 자루 샀는데 그게 8키로라 그러데. 끼놓으니 꽤 많아. 근데 내가 콩을 워낙 좋아 해서. 아주 밤새 깐어(웃음)... 근데 그 콩은 왜?”

타이밍만 잘 맞았었다면 언니가 정말 좋아 하셨을 것 같아 아쉬웠지만 기억해 두었다 내년 이맘 때 꼭 사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어린이집을 나선다.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이럴 때가 꽤 있다. 응답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계부 안 적는다고 할까봐 걱정을 하고, 어려운 내용을 물어볼 땐 먼저 소심하게 걱정부터 하게 되는... 두고 보면 이런 좋은 결말인데. 앞으로도 조금씩은 언나와의 밀당이 있겠지만 조사 12년차 전문가의 품격으로 맡겨진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불과 한 달 전, 이틀간 내 일상의 한 자락이다. 여름휴가가 한창인 8월 업무가 조금 숨을 돌리는 틈을 타 부끄럽지만 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다. 내용 중간 중간 너무 착한 직원인 척을 한듯하여 앞날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오지만(웃음) 글을 쓰는 시간 조금이나마 초심이랄까 순수한 열정 같은 게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마지막까지 착한 척을 좀 하자면, 우리 하는 일이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통계” 이길 바라본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소신대로 통계 조사 직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파.이.팅.





자체  
시상

# 제주 토박이의 전라남도 적응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다섯

호남지방통계청 **홍 석 범**

2014년 12월 청장님과의 즐거웠던 신규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소장님과 전라남도 ○○으로 가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업경력직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선세력이 가장 강한 전라남도에 발령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평생 제주 토박이로 살아온 나에게 전라남도는 생소했었던 것이 사실 이였다.

소장님과 함께 ○○으로 내려가면서 소장님께서 ○○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내 머릿속에는 아무말도 들어오지 않았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다.



그렇게 사무소 어업생산팀에서 내 첫 통계청 근무를 시작하였고, 내생의 첫 전라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딜가도 온통 전라도 사투리에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단어들도 있어서 조사 끝내고 사무실에 오면 선배님들께 사투리를 물어보고 다시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전전공공 지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나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또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전라도에는 전라도인의 끈끈한 정이 있다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는 후배를 위해 선배님들이 많은 챙김과 배려를 해주셨으며,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하루 이를 적응하며, 본격적으로 어업팀 업무를 시작했는데, 전라남도 어업은 제주권역 어업과는 많이 달랐다. 어업경력으로 들어온 나는 책에서만 배웠던 매생이, 김, 미역, 다시마 등과 같은 해조류 양식과 굴, 전복 등 패류 양식이 아주 생소했으며, 많이 부족하단 생각에 다시 책으로 공부하였고 옆 자리 베테랑 선배님들께 이것저것 물어보는 귀찮은 후배가 되었다.



또한 현장에 조사를 나갔을 때도 내가 스스로 많이 알고 배워야한다는 생각으로 어민 분들께도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때마다 뭘 그리 많이 알려고 그러느냐며 편잔을 주기도 하셨지만 물어보는 질문에 대부분 답해주셨고 기특하다며 좋아해 주시는 분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매달 방문할 때마다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끼니 걱정도 해주시는 대상처도 있었다.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온 지 한달 쯤 됐을 때,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다. 경상조사로 인해 모집단 보완조사 완료기간이 목전에 다가와 있던 것을 몰랐던 것이었다. 경상조사만으로도 벅찼던 나에게 모집단 보완조사로 할당된 지역은 완도 보길도, 노화도 및 고금도로 너무나도 생소한 지역이었다.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려워하던 나를 위해 첫째 날에는 직원 분들이 나를 차에 태워서 보길도와 노화도를 다니면서 길을 가르쳐 주셨고, 팀장님께서도 나를 위해 짬이 날때마다 조사도 같이하면서 조사방법에 대해 몸소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부터 혼자 조사하러 다녔지만, 도통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핸드폰 네비는 자꾸 이상한 곳만 가르치고... 만날 약속을 정하려고 전화를 드리면 저녁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시고... 날 점점 멘붕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다.

결국 난 섬에서 숙소를 잡고 섬에서 나가지 않았다.





숙소에서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혹시나 모를 질문이 있을까봐 지침서를 정독하고 모집단 보완조사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서 조사준비를 하였다.

저녁쯤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는데, 처음 집에 방문하고 모집단 보완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조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전복 양식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정부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셔서 한참동안 그 얘기만 듣고 있느라 난 아무말도 못했다. 그 후 말씀이 끝나니 어업통계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제서야 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처가 200개가 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래서 조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어촌계장님을 생각해 연락을 드렸더니... 어촌계장이 왜 이제야 연락을 하나며 우선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셨다. 난 기쁜 마음에 집으로 찾아가니 저녁을 드시고 계서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니 들어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셨다.

안그래도 배고팠던 나는 염치가 없게도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고 밥 먹는 동안 모집단 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다. 나의 설명을 다 들으신 계장님께서는 같이 조사하러 다니자며 움직이자고 하셨다. 순간 난 계장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하는 착각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날 밤과 다음날까지 계장님과 함께 다니며 보길도와 노화도의 조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그 후, 난 섬에 들어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가끔씩 밥도 얻어먹는 염치없는 제주인이 되었다. 후에 들은 얘이지만, 그날 저녁에 찾아 온 모습이 아들 또래와 비슷하고 제주도에서 발령받아 왔다는데 집도 찾기 힘들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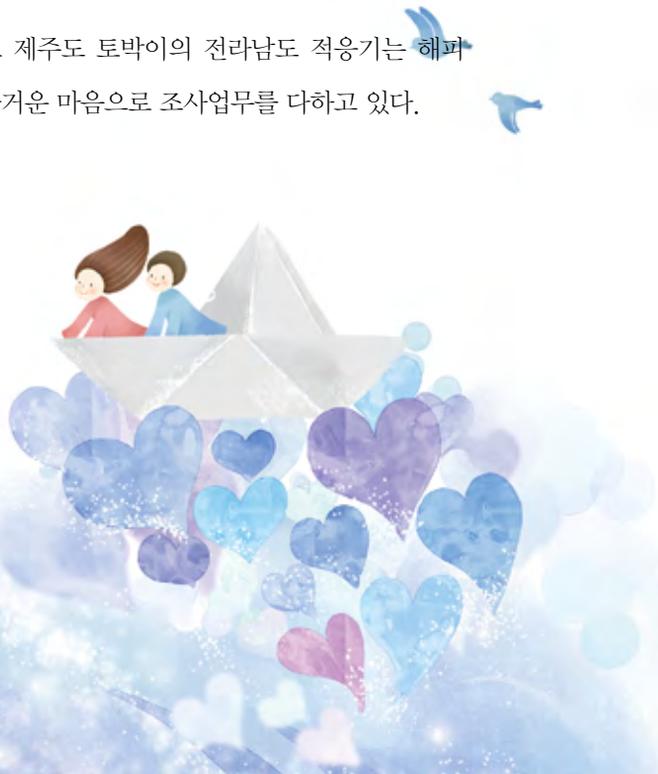
얘기에 안쓰러워 도저히 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 말씀하셨다.

어찌됐든 계장님의 큰 도움으로 힘들게 마친 전복 모집단 보완조사지만 그때 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경상조사 및 연간조사를 수행하며 잘 적응하고 있다.

신규로 발령받아 왔을 때 한 선배님께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먼저 조사를 하기 앞서 오로지 조사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대상처와 교감을 먼저하고 교감이 되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럼 자연스럽게 조사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첫 모집단보완조사를 하면서 저절로 이 말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주도 토박이의 전라남도 적응기는 해피 엔딩이 되었으며, 오늘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업무를 다하고 있다.





# 가짜 충동이 진짜 농민이 되어갑니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여섯

동남지방통계청 김 철 봉

작년 이맘때 즈음 공무원 합격 발표소식을 듣고 ‘이제 나도 공무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합격 발표 후 발령대기기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미처 졸업하지 못했던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수료하였다.

그 시기에 나는 ‘나도 이제 공무원이야’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이 상당했었던 것 같다. 나 홀로 학교를 다니며 나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혹은 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공무원이 될까 하는 설렘에 한동안 기분이 들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들뜬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1월 17일 나는 통계교육원에 입소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마치 어디 수련원에 놀러가는 학생마냥 그저 즐겁기만 하였다. 모두 처음보는 사람... 그리고 처음 듣는 교육들... 마냥 즐거웠다.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발령나게 될지도 모두 궁금해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같은 분임이었던 형 한명이 기 임용자였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그저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이었다. 어찌 되었건 한 달간의 재미난(?) 교육원 생활이 끝나고 나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김해라는 도시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이름이 진짜 철봉이에요?**

12월 15일. 나의 첫 직장인

김해사무소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한 선배님이 와서 키피한잔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긴장을 풀어주었다. 나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어찌나 능수능란하고 재미있게 잘 하는지 저런 모습이 몇 년 차 공직생활을 한 선배구나 싶었다.

나는 농어업생산팀에 소속되었다. 이제부터 나의 본격적인 직장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농어업생산팀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인수인계를 위해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웠다. 제일 처음 갔던 곳은 바로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위한 한 대상처였다. 사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자주자주 인사드리러 오겠다면서 없던 애교도 저절로 나왔다.



사장님께서서는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더니만 이제는 젊은 층각이 오겠구먼, 근데... 이름이 진짜 철봉인고? 허허 살다보니 별 이름을 다 듣겠네 허허” 나는 한바탕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몹시 긴장했었지만 그 한마디 말씀 덕분에 긴장이 풀리고 첫 조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이 사장님과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해 임해주고 계신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특이한 이름 덕(?)에 사무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할 대상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 등산인가 운전연습인가 작물조사인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될 때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바로 3월 가축동향조사와 작물재배면적 조사가 다가온 것이다. 처음 해봐서인지 생각보다는(?) 재미있었다. 특히 가축동향조사의 경우 동물이 언제 성장하고 그때마다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도 내 나이 계란 한판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허덕허덕 첫 가축동향조사의 즐거움(?)을 미처 다 맛보기도 전에 작물재배면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될 때쯤 본격적인 업무가



통계청에 들어오고 나서야 처음 운전을 배우게 되었던 나로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운전이 미숙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운전 실력은 작물재배면적 조사의 시작과 함께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작물조사가 끝난 후에는 잠시나마 나 홀로 나는 카레이서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착각도 하지 않았나 싶다.^^)

한 번은 생림의 한 조사구에 나갔을 때였다. 평소 어머니가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한다’라고 하셨기에 내비게이션 누나의 말을 철저하게 따랐던 나는 그 날도 내비게이션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작물조사를 나가고 있었다. 처음 가보는 조사구였기에 그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옆이 낭떠러지가 아닌가!? 나 혼자 문득 ‘나 이제 운전 좀 하지?’ 하는 생각이 이미 주머니 속에 곱게 접어둔 뒤였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식은 땀과 오직 올라가면 차를 돌릴 곳이 있겠지 하는 한 가닥의 희망뿐이었다.

그렇게 한 10분을 산 속 외길을 달렸을까? 어느 정도 올라가니 다행히 차를 돌릴 만한 아주 작은 길이 있었다. ‘살았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정말 살았다고 생각했다.

차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조사표 옆에 ‘다음에 올 땐 운전 잘하는 선배 한 명에게 도움을 청할 것!!!(약간 과장해서 느낌표를 한 500개 정도는 체크한 것 같다)’ 이라고 기록하는 일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차에서 내려 이제 조사를



우측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오로지 앞만 보고!



시작해 볼까하는데 아니 웬걸? 이제 산 중턱이다. 살펴 보니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원숭이들이나 다닐 것 같은 그런 길을 내가 헤매며 조사를 해야한다니...

길이 없는 거친 곳을 뚫고 또 헤매고 겨우 도착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곳은 이름 모를 나무뿐이었다. 난 그저 또 한숨을 내쉬며 다시 그 무서운 낭떠러지 길을 차 엔진소리보다 더 큰 나의 심장소리와 함께 내려올 뿐이었다.



### 탈출한 돼지와 살려가는 돼지

관리인을 기다리는 중 어디선가 “꿀꿀”, “꾸웁꾸웁”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무슨 소리인가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야윈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집을 탈출해 여기 저기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었다.(관리인께 들어보니 돼지 이사를 하는 중에 탈출한 것 같다고 하셨다! 물론 집나간 돼지는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였다.^^)





저 새끼돼지를 보니 처음 직장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다. 약 60킬로 밖에 되지 않았던 나의 몸무게가 지금은 5~6킬로는 더 쪼그라들었다. 작물조사 나가서 화장실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 따뜻하신 할머니님과 할아버님들의 사랑에 늘 배가 불러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한 번은 한 선배와 같이 작물 조사를 나갔다가 마을회관에서 쭈뼛과 커피 등을 얻어먹었는데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급체를 해서 밤새 고생을 한 적도 있었으니... 조사 다니면 살 빠진다는 선배님들의 말이 다 옳지는 않은가보다.^^

비록 살이 조금 찌면 어떠한가? 마냥 힘들기만 할 것 같은 조사 일이 어르신들의 사랑 덕에 한결 수월하고 즐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함양이라는 촌에서 약 20년을 살아왔지만... 어릴 적부터 수없이 논과 밭을 많이 봐 왔지만 작물이름조차 모르는 게 허다했다.(오죽했으면 소장님께서 농담으로 “철봉이 함양 애라서 생산팀 보내 났더니만 작물하나 모르고 저거 순 엉터리구만 허허”라고 하셨을까^^)

여전히 모르는 작물 투성이고 모르는 나무 투성이지만...

내 얼굴이 까매져가는 만큼 오늘도 얇은 지식은 조금 더 채워져 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생산량 조사와 남은 작물조사들... 열심히 하나하나 해 보면서 이렇게나마 농민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유해보려나.

오늘도 이렇게 가짜 촌놈은 진짜 농민이 되어간다.



# 20년 넘게 통계인으로 살아온 나의 푸안길에서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일곱

충청지방통계청 김 정 종

20년 넘게 통계인으로 살아오며 현장에서 별의별일, 즉, 산전수전, 공중 전?? 가슴 깊이 아직까지도 보고프게 만든 고마운 응답자분들과 겪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통계조사 나간 곳이 하필  
그 노마네 집일줄이야!!~~**

25세 꽃다운 나이  
활짝 필 나이에 통계

청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맨처음 제가 맡게된 조사구는 저희집 앞 동네이었어요. 지금은 조사필수품이 상품권으로 나와 편하게 현장조사에 임할 수 있지만 그당시만해도 조사필수품이 김치통, 슈퍼타이 등... 물건

으로 나올때이었는데요. 그 날은 김치통으로 조사필수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큰 김치통 꾸러미(당시만해도 1조사구 가구수 : 34가구)를 질질 끌어 버스에 싣고 조사구로 향하여 맨 첫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곱게 생긴 중년의 아주머니가 나오시길래 통계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아주 단칼에 매몰차게 큰소리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 이라 긴장하며 어찌 협조를 해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며 서있는데 밖이 시끄러워서 인지 안에서 총각 한명이 나와 무심코 바라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초등학교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그노마가... 에궁!!

너무 창피해서 그길로 조사필수품도 팽개치고 집으로 와 어무이에게 직장 그만둬야겠다. 무슨!! 이런 공무원이 다 있냐며 펄펄 울었습니다.

어무이는 발이 넓으신지라... 마침, 그노마 어무이하고도 친분이 있어 조사 필수품도 찾아오시고 통계조사 협조도 받아 오셔서는 세상 사는게 쉬운일이 어딴냐. 다~ 어려운 일도 꺾어보고 해야지. 한달만이라도 채워보구 그래도 안되면 그만두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래! 한달만 다니자. 월급은 한번 타야지 하고 다닌게 벌써 25년. 빠르기도 한세월... 엇그제 같구만요.

그렇게 저의 통계현장에서의 첫 조력자는 우리 어무이였습니다.



고민을  
당신께



### 나를 당황하게 만든 황당한 며느리...

가구조사로 항상 들르면  
시아머니 혼자만 계시던

가구에 어떤일인지 그집 며느리가 흰한 대낮에 집에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그집은 항상 시어머니만 계시고 며느리는 공사가 다망해서 얼굴 볼라면 한달에 한번? 직장을 다니는것도 아닌데...

만났다 치더라도 어디가 그렇게 바쁜지 갈데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손살 같이 집나가는 모습만 봐왔던 처지였는데 그날은 집안일에 열심이더라고요.

헌데 이분이 어찌다 하루 집에 있는 날 나와 얼굴 마주치며 한다는말.

“어머 굉장~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며칠전에도 왔다 갔는디...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실까? 제가 하도 놀라서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맞아! 지난번 만났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참...

만약에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그 아주머니한테 이차저차해서 전화했는데 통계청 직원 거기 왔었냐고 물어보면 그 아주머니가 왔었다고 했을까요?

진심...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그 아주머니 앉혀놓고 가구 조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좌~악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저 모른다고 하면 아주머니는 한사람 인생 좌절 시키는 거라고 가슴 절절하게 말했습니다.(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번씩은 다 경험하신일.)

요즘 2대가 같이 사는 가구에서는 며느리가 나가던지 시어머니가 나가던지 두사람 중 한사람은 집에 없습니다.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말 안해도 아시겠죠?)



## 발발이에게 당한 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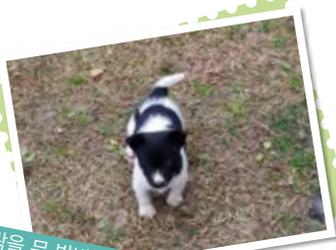
개 축에도 못끼는 잡종 발발이에게 굴욕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도시가계조사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챙겨 받느라 주인아주머니와 손을 스치는 순간 이게 제 손가락을 그냥 짚 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대충 스치고 지나가서 깊은 상처는 안났지만... 병원가서 처방받고 항생제 하나 먹었더니 진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청심환도 먹어야 되는데 뭘 약값이 그리 비싼지... 없는 처지에 그냥 참고 말았어요.

근데 더 슬픈건 개 축에도 끼지 못하는 발발이의 주인 아주머니는 절 걱정하기 보다는 개한테 더 신경쓰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거 아십니까?

솔직히 요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가면 개만 목청이 터져서라 난리고 애완견의 대접이 사람보다 융숭한 이때에 우리에게도 애완견에 대한 행동 지침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요즘은 집을 방문할때 애완견에게 잘 보여야 가게부 한권이라도 더 거두는 세상이 되었네요. 결국 손 한번 물려주고 바라는 바를 이루었다.



내 손가락을 문 발발이 녀석





###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보고픈 나의 그분들...

그동안 여러가구를 만나  
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 “왜? 하필 우리집이야! 다른집가서 하지. 선물도 필요 없으니 제발 오지마세요”하는 가구, 조사에 응해 주기 싫어서 다른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야겠다는 전입가구, 대통령 바뀌면 찾아오라는 정부불신가구, 조사필수품 받는 날에만 잘해주는 가구... 등등

이런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가장 인상에 남는 지금도 보고 싶은 ○○동 조사구의 「가시고기아저씨」와 △△의 「왕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가시고기아저씨가 살고 있는 집은 넓고 비좁은 언덕의 단칸셋방이었어요.

어린 두자녀와 살고 있는 아저씨는 마치 아버지가시고기 같았습니다. 알을 낳고 떠나버리는 암컷대신 제 살을 뜯어 먹이며 새끼들을 돌보다 마침내 뼈만 남은 채 죽는 아버지가시고기... 그 자체였는데요.

주인집 아주머니의 말을 빌자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수년전에 부인은 집을 나가고 아저씨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그렇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통계조사 라든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거부하리라는 생각에 어떻게 설득을 하여야 하나 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늦게야 귀가한다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퇴근후 늦게 조사필수품과 홍보 용품을 들고 방문하여 잔뜩 긴장해서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들겼어요. 방문이 열리며 초췌하게 수염이 덩수룩하고 형클어진 머리에 새까만 얼굴을 한 아저씨가 “누구요?”하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순간, 당황해서 저는... 저~어... 저...는 통계청에서 왔는데요...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서있자 그 아저씨는 “아! 인구조사하러 왔다고 하던 분이구먼요. 물어보고 싶은거 있으면 하세요. 다 말해 줄테니...”

뜻밖의 말에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여러 차례 감격의 인사말과 함께 조사에 임할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도 보조조사표라든지 만날 수 없을때 작성해야하는 조사표는 방문에 꽂아두고 가면 다시 방문한다는 날에 어김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여 꽂아두고 일터로 가시곤 하였습니다.

부인이 가출한 뒤 한때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먼곳으로 갈 생각까지 하셨다는 아저씨는 아이들의 부모 없는 설움을 생각해서 가난해도 함께 열심히 살아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밥상 위에는 김치와 간장뿐이지만 세식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시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불행의 그늘을 씌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불행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남이 즐거워 하면 같이 즐거워 해주시는 분 이셨어요.

아저씨의 걸 모습만 보고 내가 평가 했듯이 실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는 통계조사를 뭐하러 하냐는 식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됴됨이나 깊이, 내면의 향기 같은 것들을 느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하죠. 걸으로 드러나는 면모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설명, 설득, 협조, 기다림으로 불응가구를 설득하리라는 교훈도 배웠어요.

다음은 △△의 왕언니,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 80 가까이 드셨지만 언니라 불러주시기를 원했던 분. 사무실 응답자 초청 간담회등에 항상 참석해 주시며 동네주민들에게 “협조 잘해줘” 하시며 조사필수품도 같이 들어 주시던 분이신데... 경찰 실사로 △△에 들렀더니 썰렁하게 빈자리만 남기고 안계시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당한뒤 몸속의 피가 다 말라 빠만 남았을때 돌아가시는 무서운 병에 시달리다 가신 그분은 병상에 누워 계셨을때 고향사람은 못 알아봐도 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어 주셨어요.

다음 해에도 응답자 초청간담회에 꼭 참석을 해 주시겠다던 그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아직도 두손을 잡아 이끄시며 “음료수라도 들고가” 하실것만 같아 마음 아프네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가 있는 반면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스하게 협조해 주는이가 있어 즐겁게 희망을 갖고 통계조사 업무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사는것은 아닌지...



### 에필로그

길을 지나다 통계청?? 하며 인사하는 구조사구 응답자들!!!. 그동안 너무 많은 가구를 만나다보니 몰라봐서 죄송한 분들... 그래도 그분들에게 나는 잘했나 보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인생 잘살았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죠? 무슨 철학자의 말 같지만 요즘 이런 사실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통계공무원으로서의 선택이 나를 만들겠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언제나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당당함. 개구리가 되어 있어도 올챙이 때를 절대 잊지 않고서 신규직원에게 대한 자상한 업무 멘토와 직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고 즐거움이 있는 신바람 나는 현장업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내일이란 꿈이 있기에...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집 가계부가 통계청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치 내가 큰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다. 처음에는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고 후회도 했다. 우리 집 사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조사원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시간을 맞춰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과 때로는 대충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 가는 게 가끔은 불만이지만...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기다려지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 통계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30년 만에 쓰는 첫 가계부」 중에서 -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b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b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 야채가게의 미운 손님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여덟

응답자 임 미 숙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언제부터인지 날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요즘 경기는 안 좋아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자연스레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상생활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니,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든다. 이럴 때 로또라도 당첨되면 좋겠구먼.... 헐!

어쨌든 일어났으니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겠고... 음, 식구들이 모두 일어났는지, 에이구 어디보자 학교에 갈 이쁜 딸은 준비가 되었는지...

남편은 회사에 벌써 출근했다. 쯤 깨워 주었으면 했는데 “나랑 결혼해주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요즘 부쩍 많이



하더니만, 아침 달라는 말도 못하고 부지런히 옷만 입고 나간 듯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미안함이 밀려오니 이젠 또 뭐지?

부라부라 딸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부지런히 나의 일터인 채소가게로 향해 걸어갔다. 시장통이 가까워 시끄러우니 주택가에 집을 얻지는 남편을 말리고 말려서 가게 옆이 아무래도 좋다며 이쪽으로 집을 구한 것이 요즘 들어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버린 나에게 에~휴!

요즘 경제가 많이 정말 심각하다. 온 나라를 뒤흔든 ‘메르스’라는 호흡기성 질병이라는 것이 한 달째 기승을 부리니, 시장을 찾는 손님 발길도 줄고 덩달아 매상도 줄고 내 얼굴에 주름은 늘어가고... 주변 상인들 삼삼오오 모이면 메르스 걱정과 장사는 안되는데 가게 임차료도 못 내게 되었다는 등 모두들 하소연하니 내가 말을 보탬 틈을 주지 않았다.

가게에 출근하니 이미 도매상에서 채소를 가져다 놓았다.

“부지런하기는 나보다 더 한사람들도 있군.”

배달된 채소 상태를 살펴보니 그래도 어제 보다 좋아보였다. 배추, 무 다 싱싱하고 좋아 보였다. 좋으면 뭘 하나 사가는 손님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이 오기 전에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해서 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생이 출근하기 전에 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배추는 앞을 몇 개 떼어내니 싱싱함이 더



살아나 보이고 열무는 제일 좋은 놈을 위쪽으로 놓으니, 물건도 좋은 놈이 싱싱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일추 장사할 준비가 되어 가는데 동생이 출근하는 모습이 저기 푸줏간 앞으로 보였다.

“왔니?”, “어” 하면서 인사가 무색하게 들어온다.

요즘 들어 부쩍 동생의 신경이 날카롭다. 회사생활하다 나이가 차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나왔는데... 재취업을 하려하였으나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또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동생네 살림도 빠듯한데 돈 들어오는 구멍은 없어보이고 애들 학원보내고 용돈도 주려면 돈벌이를 찾아야하는데 오라는 데가 없으니 안쓰럽기만 하였다.

“노니 뭐하니, 누님 가게에 와서 일 배우고 나중에 기회되면 창업도 해보렴. 어려운 중에도 생각 잘하면 길이 보일지도 모르잖니.”

그냥 던진 말에 마지못해 “그리해 볼까”하며 가게에 발 들여 놓은 지 어느덧 3년째가 되어간다.

전통시장이라 그래도 사람이 많아 장사 안된다 하면서도 인건비는 나오던 곳인데... 요즘 장사가 신통치가 않다는 것이 동생도 느껴지나 보다. 한편 미안하면서도 다소나마 생활비라도 줄 수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요즘 우리가게에 새로운 손님 아니  
 뭐랄까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소비자물가조사라나 뭐라나 잘  
 쓰지 않는 용어라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의 매주 방문하여 배추,  
 무, 파 등 진열해 놓은 물건을 들었다 놔다  
 하고 가격이 얼마냐며 물어보는 공무원이 있다.



하여간 물건을 배열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와서는  
 목소리도 우렁차게

“안녕하세요.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담당자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가격조사를 해야 해서요, 물건을 좀 들었다 놔다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해하시죠?”

“사장님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덥군요. 더위도 식힐 겸 시원한 냉커피 많이  
 드세요.”

“오늘은 채소가 유난히 좋아 보이네요. 어디보자 배추가 정말 싱싱합니다.”

하여간 이사람 덕살하고는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머리로 희끗하기도  
 하고... 배추나 무, 부추, 양파, 미나리 등을 하나씩 들어서 저울로 가져가서  
 무게를 재려는 것 같은데, 맘 같아서는 대충 해가지 뭘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이라 하니 봐 주기는 하는데... 웬지 오늘은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어제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냥  
 딴 가게 가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 옆 가게에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나는요~ 우리 채소를 자꾸 들었다 놔다 하고, 가뜩이나 가게도 좁아서 불편하고 손님한테 물건 팔 때도 이것 저것 들고 다니며 자꾸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손님과 흥정하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제발 부탁이니 옆가게 가서 해주시면 안되나요? 꼭 우리가게에서 안해도 저집 배추나 우리집 배추나 배추는 다 똑같은 배추 아닌가요?”

오늘은 아주 작심하고 막말을 퍼부었는데, 어! 이 분 좀 보게!! 그냥 빙그레 웃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사장님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그래도 우리가 몇 개월 단골 아십니까? 탄 집으로 가려해도 우리 사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못 갑니다. 절대 안되요.”

“아니 그래두 내 가게에서 내가 귀찮다구, 하지 말자고 말도 못합니까? 공무원이면 다 입니까? 공산 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냐구요? 매번 바쁜데 와서 기껏 진열한 물건 이래저래 들어보고...”



말을 하다보니 막가지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냥 막 하게 되었고, 순간을 참지 못하여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미안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이분은 “소비자물가조사는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자꾸 가게를 바꾸면 안된다”나 뭐라나 하며, “오늘은 조사할 것은 다했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며 꾸벅 인사를 하고 앞 집 생선가게로 가는 뒷모습에 화도 나고, 그 간의 정 때문인지 미안하기도 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웬지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별스런 일도 아닌 것에 화를 내게 되고 왜 그랬나 싶은 게 후회가 밀려왔다. 그 후로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려 와도 괜스레 투명스럽게 되고, 하루종일 찝찝함을 털어버리기가 어려웠다. 하여간 한 번 꼬인 것은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 잠자코 보던 동생도 “오늘은 누님답지 않게 왜 그랬냐?”며, “저 분도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조금만 참지 그랬냐”구 하며, “매형도 회사에서 영입

활동하는데 물건 팔러 가서 상대방한테 뜬금없이 막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냐”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잘 지내시죠”라며 충고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니 굳이 그럴 일도 아닌데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일전에 상가변영회에서 회의하다 들어본 기억에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직자 중에 젤로 고생하는 분들이라고 하던 상가변영회 분들 말씀이 생각났다. 다음에 오시면 달달한 커피 한잔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침은 아침이고, 저녁에는 신랑이 젤 좋아하는 매운 고추 넣은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식구들하고 먹어야겠다. 특히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듄직한 우리 신랑에게 더욱 잘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부터는 초심으로 돌아가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다.

“오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막말 들으신 통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기분 좋은 만남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아홉

응답자 조 명 순

2014년 가을 어느 날... 잠결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여 낮에도 비몽사몽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조금은 짜증이 나서 누구냐고 하니, 자기는 통계청 직원이라면서 소개를 하였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인가 뭔가를 한다고 설명을 좀 하겠다고 했다. 난 지금은 나갈 일이 있어 바빠서 못하겠다고 돌려보냈다.



그동안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로 이웃이나 외부인과는 거의 소통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오직 말벗은 애완견 “하은이” 뿐이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초인종은 울렸으며, 지속적으로 찾아 왔다. 신경성 두통과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오전이면 거의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너무나 귀찮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척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하은이와 산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복도에서 너무나 반갑게 “○○○○호 사시지요?” 하면서 다가왔다. 그동안 무반응 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마지못해 인사를 나누었더니, 통계청 직원이라면서 취업자 및 실업자 통계조사 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기는 했지만,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집으로 찾아온다니 매우 부담스러웠다.

몇 번 만나 보니 통계청 직원의 인상도 괜찮고, 믿음도 조금씩 가서 그 후로는 거부감 없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몇 달을 만나다 보니 서로의 가정사도 조금씩 이야기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나와 같아서 대화를 하면서 참 이렇게 편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다. 아들만 둘이라 살갑게 자식들과



얘기를 해 보지 못한 나는 딸처럼 다정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를 한 번 써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서 올 초 부터 쓰기 시작했다.

가계부를 써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조금은 부담되었지만 한 번 써보겠다고 종이 가계부를 받아 들었다. 몇 년 전까지 새해를 맞을 때마다 가계부를 써 봤지만 한두 달도 안 되어서 그만두곤 해서 그동안 별로 재미를 못 느꼈다.

매달 적자만 늘어나니 짜증만 계속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남편과 말다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가정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나보다 한참 젊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담당 직원의 전화나 방문이 부담이 되기도 했다. 또한 가계부를 한두 달 쓰다 보니 스스로 놀라곤 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 보다 필요 없는 지출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일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생활비를 비교해 보았다. 꼭 써야만 했던 지출과 안 써도 되는데 쓴 돈을 구별하여 7 일째 되는 토요일에는 내 생각과 다짐을 빨간 글씨로 메모해 보았다. 그래서 한 달이 되어서 살펴보니 어떤 주에는 살림을 알차게 잘했구나 하면서 나 자신에게 '잘했어!' 칭찬을 해주고, 어떤 주에는 너무 많이 써서 '분수를 알아라.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였다.

지금은 매달 우리 집의 수입과 지출을 체크해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출을 하게 된다. 이제는 가계부 쓰기를 정말 잘 했구나 하면서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친구와 동생들에게도 통계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

우리 같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년층에서는 최고의 재테크는 절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았는데, 통계청 가계부를 쓰면서 저절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 너무 절약해도 안 되겠지만~ 내수정기가 살아 나야 하니까~ ㅎㅎㅎ



요즘은 새로운 즐거움에 폭 빠져 산다. 또 설렘으로 매일 기다려진다. 아들이 중고 노트북과 인터넷을 연결 해 주어 전자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우리 세대들이 컴퓨터를 잘 하기는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통계청 직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날마다 조금씩 컴퓨터에 적응해 가고 있다. 한 달에 서너 번 씩 방문하는 직원이 기다려진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배울까? 하면서 기대가 된다. 전자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가지들을 배워간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나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 해 준 것이다.

난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산다. 신경이 예민하던 내게 하루 중 컴퓨터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저녁에는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눈이 새로워 졌다. 그저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일들이 또 다른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자식들도 해 주지 못한 것을 통계청 직원을 통해서 배웠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전자가계부를 쓰면서 나 한사람이 이렇게 나라에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또한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도전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을 통계청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느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의 바람은 누구나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 것이다.

또한 통계조사에 힘쓰는 직원 분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고 나라 정책에 도움이 되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통계조사로 인연을 맺었지만 기분 좋은 만남에 감사하며...

62년 만에 만난 나의 또 다른 인연!

오래도록 좋은 인연으로 기억 될 것이다.





가계부는 이제부터  
내가 쓸게!!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

응답자 김도환

15년간의 공직을 떠나 △△대학에서 후진양성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벤처 사업을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저의 이직을 동의하는 대신 본인도 어린 시절의 한복디자이너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복학원에 다니게 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로 아내는 한복학원 학생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착실히 2년간의 실습기간을 포함해 3년의 긴 교육을 수료하고 〇〇시로 돌아와 소망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4년...

저는 거둬들인 사업의 실패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의 일도 한복을 멀리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아내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던 아내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해야 했고 저 또한 애들 뒷바라지를 위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어떤 현장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상품권 2장을 보여주며 좋아했습니다.

“어디서 난거야?”

“통계청 상품권인데, 그 동안은 2달에 한번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매월 2장이 나온대네.”

나중에 우리 집을 방문하는 직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로 쓰이는 가계부를 작성하면 그 사례로 상품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상품권 2장인데 그게 그토록 아내를 기분 좋게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희 아내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온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내는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인 후, 가계부와 연필을 꺼내 식탁으로 가는 이유가 겨우 2만원 상품권 때문이라는 사실에 저는 아내의 등 뒤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내를 향한 아프고 미안한 마음을 어찌지 못해 며칠을 끄끙 앓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계부는 이제부터 내가 쓸 테니, 당신은 편히 쉬어...”

“통계 조사에 관심 없던 당신이 가계부 쓸 수 있겠어?”

“당신 피곤한 모습 보는 것 보다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맘 편할 것 같아”

그때부터 가계부 작성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담당직원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남자가 이런 걸 쓴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하나 속 좁은 마음에 괜히 담당직원에게 짜증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출내역을 기록하다보니 그동안 무심히 버렸던 영수증에 적힌 물품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직장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가 지금 필요한지 얼마가 부족한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아내가 건네 주는 용돈에 맞춰 한 달을 보낼 뿐 가장이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 하는 마음에 가정 살림은 아내의 몫이라는 짧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무관심 하고 때론 나는 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이면서도 우리 부부처럼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성격의 차이로 악화되고 결국은 갈등의 끝에서 “당신과 나는 맞지 않다”라는 말까지 내뱉는 극한의 상황으로 서로를 내몰아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특히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벌써 이렇구나, 이건 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 이건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건 다음에 사는 것으로 하고 이것부터 사자. 어때?”

명령이 아닌 부탁과 협조로 시작하는 자녀들과의 대화. 그렇게 내가 달라지니 애들 또한 달라지기 시작 하더군요. 막내딸이 돼지저금통을 사오더니 10원부터 500원까지 동전을 넣기 시작했고 딸아이와 합세해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마저 동참했고 월말에는 돼지를 잡아 온 가족이 동전을 세며 웃음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알뜰살뜰한 살림살이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작은 돈도 소중히 아낄 줄 아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 또한 생겨나고 그렇다보니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 아내는 안정적인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계획했지만 투자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자가 나서면서 공장설립과 가동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두 아들과 중학생인 딸도 그동안의 계획성 없이 소비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어 더욱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집을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매월 저희 집을 방문하고 또 때때로 통화도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른 모습에서 참된 공직자의 상을 보는 거 같아 스스로 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숙지하게 되고 정확히 응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에 직장에서 자료를 만들 때 별 의미 없이 '통계청 자료 참조'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보니 '그때의 자료들도 이렇게 모아졌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제공하는 조사자료가 국민의 실상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불과 몇 달 전처럼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상품권에 눈이 쏠리는 형편에서는 벗어났기에 '이젠 통계청 가계부 그만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계청과의 인연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통계청과의 만남은 조금은 귀찮고 불편했으며 우리 가족에게 아주 사소한 해프닝 같은 것이었지만 결국 우리 집,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든 공로자입니다.

가장인 제가 가계부를 쓰니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화목함이 더해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푼돈을 모아 큰돈을 만들고 쓸데없는 낭비도 줄이게 되어 통계청이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래도 그냥 형식적인 가계부를 쓸까요? No! No!”

앞으로 남은 기간 여차피 쓰는 거 과감하고 확실하게 나라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가계부를 꼼꼼하게 빠짐없이 쓰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가계부 쓰는 일도 끝이 나겠지만 그때는 다른 곳에서 통계청을 응원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상

# 지긋지긋한 통계와의 두 번째 인연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하나

응답자 조희선

쌀쌀하던 겨울바람은 가고 포근한 봄바람과 살랑살랑 꽃향기의 기운이 향기롭게 피어오르는 2015년 봄 어느 날. “따르릉~”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옛된 목소리의 통계청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집에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린다며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했고, 표본으로 선정되었다며 방문하겠다고 했다.

나는 ○○청에서 주관하고 △△리서치회사에서 작성하는 밤나무 관련 통계조사에 지난 3년간 일계부를 작성했었다. 오랜만의 ‘통계’라는 단어에 마음 한 편이 반갑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지난 3년간 매일 지겹게 느껴졌던 일계부와의 재회라니... 앞으로 일계부와 몇 년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심란해서 내가 아닌 옆집을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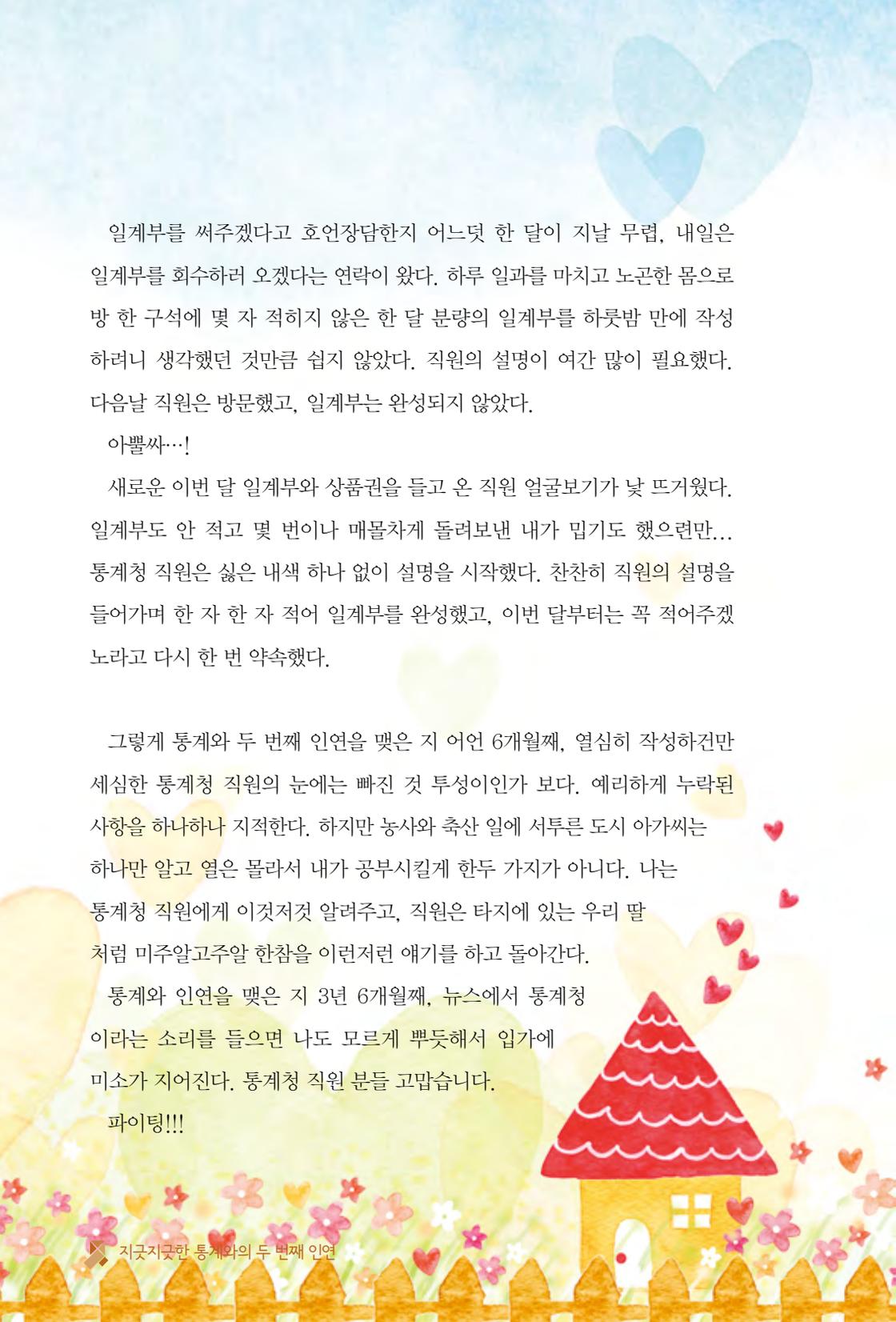
다음날,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의 직원이 찾아왔고 한눈에 봐도 내 딸뻔 째 되어보였다. 그 직원은 조사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조사에 응해줄 수 없냐고 살갑게 나를 설득했다. 응답을 거부하려 했지만 타지에서 고생하는 큰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나는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래! 앞으로 몇 년 만 더 해보지 뭐!’ 그렇게 통계와의 두 번째 인연은 시작되었다.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축산물과 관련된 수입·지출내역, 노동시간 등을 일계부에 적는 것이라 했다. 딸 같은 통계청 직원은 일계부 작성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창 일 할 때 찾아온 손님이 반가울리 없었다. 더군다나 지난 3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일계부를 작성해왔기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일계부만 놔둔 채 직원을 돌려보냈다. 일주일 후, 그 여직원이 또다시 찾아왔다.

“아버님, 통계청이에요.”

나는 알겠다며 직원의 설명에 따라 몇 자 적고, 직원이 방문할 때마다 직원을 돌려보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일계부를 써주겠다고 호언장담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날 무렵, 내일은 일계부를 회수하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노곤한 몸으로 방 한 구석에 몇 자 적히지 않은 한 달 분량의 일계부를 하룻밤 만에 작성하려니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 직원의 설명이 여간 많이 필요했다. 다음날 직원은 방문했고, 일계부는 완성되지 않았다.

아뽀싸...!

새로운 이번 달 일계부와 상품권을 들고 온 직원 얼굴보기가 낯 뜨거웠다. 일계부도 안 적고 몇 번이나 매몰차게 돌려보낸 내가 뭇기도 했으려면... 통계청 직원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설명을 시작했다. 찬찬히 직원의 설명을 들어가며 한 자 한 자 적어 일계부를 완성했고, 이번 달부터는 꼭 적어주겠노라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렇게 통계와 두 번째 인연을 맺은 지 어언 6개월째, 열심히 작성하건만 세심한 통계청 직원의 눈에는 빠진 것 투성이인가 보다. 예리하게 누락된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한다. 하지만 농사와 축산 일에 서투른 도시 아가씨는 하나만 알고 열은 몰라서 내가 공부시킬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는 통계청 직원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고, 직원은 타지에 있는 우리 딸처럼 미주알고주알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돌아간다.

통계와 인연을 맺은 지 3년 6개월째, 뉴스에서 통계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뿌듯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통계청 직원 분들 고맙습니다.

파이팅!!!



# 나의 생활, 기념제부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둘

응답자 남 영 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거리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설레입니다.

2014년 한산한 초가을 어느 날 누군가 초인종이 고장 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나 잡상인이 아닌가하여 열어주지 않으려다가 “누구세요?”하고 물으니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나?’, ‘통계청이 뭐하는 곳이지?’, ‘이상한 잡상인인데 통계청을 가장한 건 아닐까?’하는 마음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말까하다가 목소리도 예쁘고 몇 번 방문하고 간다는 메모지를 본 것이



생각나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젊으신 여성분이 깎듯하게 인사를 하며 본인은 ○○지방  
통계청 직원인데, 이 지역 담당직원이라고 자기를 소개  
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방통계청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보는 터라 생소하기도 하고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하는 곳이야’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어찌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 저도 모르게 여직원이 묻는 대로 우리 집 가족  
신상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후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어머님,  
가계부를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어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가계부... 예전에 쓰던 가계부도 나이가 들다보니 귀찮아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의 간곡한 부탁  
으로 일단은 반승낙 상태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후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집의 살림살이가 모두 노출되고 까발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여 안 쓰는 것으로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다시 집으로 직원이 찾아왔지만 제가 집에 없어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우리 집은 빼달라는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전화로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방문하여서 모든 비밀은 완전히 보장이 되며 단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여러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을 파악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통계를 내는  
중요한 자료이니 꼭 부탁드린다면 간곡히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못해 알았다고 또 답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쌀이나 잡곡소비, 외식, 접대 등을 함께 기입해 달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나이가 들고 주변의 마트나 큰 소매상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았지만, 10여 년 전까지 1층에서 쌀집을 운영했던 나로서는 쌀이나 잡곡의 사용량 정도는 적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라니까 협조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1월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전자가계부를 권유했지만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러워 종이가계부에 쓰기로 했습니다. 안 쓰던 가계부를 다시 쓰려니 다소 어색하고 귀찮은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매일 써보니 새삼 공부하는 느낌도 들어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 대상가구가 되니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상품권을 매달 받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하고 싶다고 하여 다른 집도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정해진 가구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내심 뿌듯함도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비는 좀 내렸지만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에 초대해 주어서 을숙도, 암남공원 등 부산 시내를 두루두루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며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조사필수품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다른 분들도 모두 즐거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담당자분이 오시는데 인상도 좋고 너무 친절해서 이제는 딸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올 때가 되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에 빠져 깜박하고 가계부를 못 썼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가계부부터 정리하고 나서야 하루 일과를 시작 한답니다.

이제는 가계부 쓰는 일이 나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식생활이나,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기록하며 농촌이나 도시의 생활패턴 기준치를 조사하시는 기관인 것 같아 성심성의껏 협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망설여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사생활노출로 인해 거부하기도 했지만, 가계부를 쓰다 보니 집에서 꼭 사야 될 것인지 혹시 과소비를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지출을 하게 되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국가의 중요한 통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자긍심이 생기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빠뜨림 없이 잘 써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통계청에 감사 드립니다.



## 30년 만에 쓰는 첫 기네스북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셋

응답자 박 말 순

전화기를 통해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에 〇〇〇입니다. 통계청 자료 조사에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레미가 아르바이트로 설문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쌀쌀한 대접들을 나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지라 선뜻 문을 열어주었다. 수수한 옷차림과 선한 눈매가 첫눈에 사람이 좋아보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손님을 맞았다.

“일단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는 방석을 꺼내어 우선 손님을 자리에 앉히고 서먹함을 달래려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다.

“언니 같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따뜻한 분이 계셔서 그나마 힘이 되네요.”  
“별말씀을요.”

“이 일을 하면서 세상이 참 삭막하고, 건조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문전 박대를 당하기가 다반사예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조사원은 말투에서부터 붙임성이 느껴졌다. 나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혹시 가계부는 쓰고 계신가요?”

“저 그제 가계부를 써야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생각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조사원이 나에게 부탁을 해 온 것은 다름 아닌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다. 순간 망설였다. 평소에 가계부를 적어왔던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의 살림살이를 남에게 공개하기가 꺼림직 했던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가계부는 좀 그러네요.”

“이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어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원은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사의 목적을 전달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생활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혼 생활 30년이나 된 주부가 가계부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결혼 초에는 뭣도 모르고 가계부를 쓴다고 수선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 둔 기억이 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의 가계부가 한두 권은 공짜로 생긴다. 가계부가 새로 생길 때마다 새해부터는 꼭 가계부를 쓰리라 결심을 하곤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주부의 당연한 역할인데 집안일과 바다 일을 병행해서 하려니 귀찮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었는데... 조사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가계부를 받아들고는 지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살림꾼이 되어보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



그날부터 하루하루 살림살이를 적어나갔다. 지출은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잘 챙기면 가계부 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듯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동안의 무분별한 지출과 서툰 살림살이가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화로 계좌이체한 것은 아예 빼먹고 있다가 조사원의 귀뜸에 뒤늦게 겨우 통장을 정리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남편의 지출내역을 물어보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곳곳에 땀질한 첫 달의 가계부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사원에게 전달하고 나서 전화가 걸려왔다. 몇 번의 통화와 매 주 방문으로 인해 우리는 제법 친해진 상태였다. 영수증 보고 적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던 것일까? 하긴 30년을 넘게 직무유기 해온 가계의 살림꾼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 마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첫 달의 가계부는 그야말로 실수로 얼룩이 졌다. 그 후로, 조사원은 늘 다정한 목소리로 잘 하고 있다는 칭찬과 함께 사례품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당연한 내 일을 하고, 받는다는 것이 어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주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날마다 가계부를 쓰면서 정말 써야 할 때 알맞은 용도로 지출한 때는 마음이 흐뭇하다. 그러나 이건 안사도 되는 것인데 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했을 때는 후회가 많이 된다. 가계부에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기록들이 때로는 뿌듯함도 알게 해주고, 가끔은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한다. 특히 좋아진 것은 남편과 가계의 지출을 함께 의논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남편과의 대화가 부쩍 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가계부로 인해 눈에 띄게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집에는 올바른 소비문화와 아껴 쓰는 좋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잔고로 쌓여가는 중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집 가계부가 통계청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치 내가 큰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다. 처음에는 괜한 일에 끼여 들었다고 후회도 했다. 우리 집 사정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조사원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시간을 맞춰 만나야한다는 부담감과 때로는 대충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 가는 게 가끔은 불만이지만...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기다려지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 통계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늘 환한 웃음으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예쁜 동생 ○○○님의 앞날에도 항상 따뜻한 햇살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 비와 통계청!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넷

응답자 장 희 진

무더위에 평범한 일상에서 또 다시 시작된 하루!!!  
가뭄에 반가운 비가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내린다.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이기에...

비는 그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이기만 했다.

우리 집에 통계청 직원이 처음 왔을 때?

난 그저 통계청 직원을 비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내가 쓴 가계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거부감과 함께 '왜 하필 우리 집일까, 다른 집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듯 맴돌았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통계청 직원이 와서 얘기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했다. 빨리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꼭 써 달라고 하는 통계청 직원의 말에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몇 번이고 부탁하는 직원의 모습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가계부만 써 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 이 빠진 내용

직원이 다시 빠진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한 것이다. 가계부에 손녀 용돈 준 내역이 있었다. 확인하는 내용이 손녀에게 준 용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물어 보는 것이다. 나는 손녀한테 용돈 주고 그 용돈의 쓰임에 대해 잘 묻지 않는다.

손녀가 사고 싶은 것 사거나 가끔 군것질, PC방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녀라도 일일이 할머니에게 일일이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물어봐야 되나요” 문자 직원은 “세세 분류된 내용에 따라 품목 분류번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세부적으로 기입해 주세요”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물어보겠지 하면서도 웬지 우리 집 얘기를 다 드러내 놓는 것 같았고 나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다. 일단은 손녀에게 물어 볼 테니까 이따가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 친한 친구보다 더 많이~~ 손녀와 소통? 최후통첩

친한 친구보다 더 많이  
우리 집에 대해 알아 가는

것 같았다. 누구나 사생활을 내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내가 괜히 가계부를 써 주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또한 손녀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난감하게 했다.

때마침 손녀가 돌아왔다. 뛰어왔는지 물부터 찾았다. 물을 주고 나서 손녀한테 물어보았다. 용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손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손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왜 자꾸 물어보냐고 했다. 그리고는 아마 컵라면, 과자, 음료 등을 사 먹었을 거라고 했다. 잘 생각도 안 나는 손녀한테 물어보기란 쉽지 않았다.

손녀까지 그렇게 대답을 하자 더욱 짜증이 났다. 정말인지 이렇게 까지 하면서 가계부를 써야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는 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통계청 직원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말이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통계청 직원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 손녀 용돈으로 다시 전화한 것이다. 그래서 답변을 해주고 나서 직원한테 이제는 가계부를 쓰지 않겠다고 하자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녁 시간이라 바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생활이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내 사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었다. 그것이 통계청 직원이라도 말이다.

그 뒤로 직원이 몇 번 전화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끊어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문 여는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 통계청 직원인 것이었다. 밖에 날씨가 더웠는지 옷이 땀에 젖어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안쓰러워 물만이라도 주고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어주고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주었다. 직원은 고맙다며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으레 가게부 다시 써 달라고 온 거겠지?’ 속으로 하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통계청 직원은 가게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안부를 묻고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 통계청 직원이 가게부 관련하여 아무 이야기도 안 꺼내자 내가 먼저 가게부 이야기를 했다. 사생활 문제도 그렇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써야한다면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직원은 맞장구를 쳐주었다. 자기도 내 입장이라면 같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직원은 돌아갔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니 조금은 놀랐다. 다시 써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며칠 뒤 다시 통계청 직원이 찾아왔다. 조사필수품이 나왔다고 가지고 온 것이다. 가게부도 안 써주는데 뭐 하러 주냐고 했더니 그래도 전에 써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주는 것이다.



**교과서 통계청~  
통계자료, 기다림**

하루는 손녀가 “통계청 아줌마 언제와?” 묻는 것이다.

“왜?” 물어봤더니 교과서에 통계청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통계청 아줌마가 만드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다가 문득 처음 통계청 직원이 와서 설명해준 내용이 생각이 났다.



나중에 내가 쓴 가계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통계자료로 나와 여러 사람들의 자료가 된다고, 그 생각도 잠시 저녁이 되어 가계부를 쓰는데 어느새 내가 세세한 것까지도 쓰고 있었다. 자동이체 되는 것이라든지 동전으로 썼던 거는 얼마 차이 나지 않아 잘 적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적고 있었다. 그렇게 적다 보니 전에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집 경제가 한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어쩌면 통계청 직원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한동안 전화가 없다가 통계청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나 가끔 찾아오던 직원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궁금했나 보다. 다시금 전화 걸어 왔을 때 반가웠다. 안부 차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가계부 얘기가 나에게 불편할거라 생각했는지 가계부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 직원이 고마웠다. 어쩌면 내가 내 이기심만 부린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자료를 이용하면서 정작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자료는 이용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듯 싶었다.

꾸준하게 연락해 주는 직원이 고마웠고, 믿음이 갔다. 사생활이 쓰여 지는 가계부를 다시 한 번 써보기로 했다. 약간은 꺼려지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꺼려지는 마음은 직원에 대한 내 믿음으로 써보기로 했다. 통계청 직원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 동안 마음 졸였나 보다. 다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직원 가계부를 가지러 왔다. 직원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작성 해 주신 가계부 감사해요. 다음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하며 가계부를 가져간다. 나는 이제 빠진 내용 있으면 전화하라고 한다. 그렇게 가지고 나서 직원이 다시 전화가 왔다 난 내가 빠트린 내용이 있나 해서 전화했나 생각했다. 근데 직원의 말이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였다.



## 비와 통계청

지금 생각해 보면 통계청 직원은 비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 비는 그 중요성보다는 우산을 써야하고 차가 밀리게 하는 그런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비가 없으면 식물도 자라지도 못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허덕이고 바뀌어 가는 사계절도 알지 못할 것이다. 통계청 직원은 그렇게 비가 같은 존재이다. 처음에는 귀찮은 게 많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밑거름 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쓰며 다시 한 번 가계부 쓰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제는 가계부와 통계청 직원 내 일상 속에 파묻혀 버렸다. 가계부를 쓰고 통계청 직원이 찾아오는 것 내 생활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생활이 되어 버렸지만 싫지 않은 일상 생활이다. 아니 반가움을 주는 생활이다. 가계부를 가지러 오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먼저 궁금해진다.





# 2만원이 주는 행복!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다섯

응답자 안 재 학

똑! 똑! 똑! 웬 낯선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낯선 사람이면 문을 잘 열어주지도, 대꾸 하지도 않는 성격인데, 약간 신경질적으로 물어보았다.

“누구세요?”

“통계청예요. 인구조사하러 왔어요”

“예전에 인구조사 다했는데 왜 또 하는 거죠?”

“예전에 조사 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요. 이것은 표본으로 선택된 가구를 조사해요. 잠깐만 문 좀 열어 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30대 젊은 나이에 지병이 있는 나로서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거동도 불편하고 귀찮았지만 마지못해서 나갔다.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쉬고 있는데 생년월일 및 학력·직업 등 몇 식구 사느냐? 자꾸 예민한 부분을 물어봐서 화를 버럭 냈다. 부모님은 안계시고 할머니가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으로 2식구 생활하고 있는 나로서는 정부 하는 일에 친절히 응대해 줄 리가 없었다.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 조사해주지 말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통계청 직원의 끊임없는 방문과 상냥함으로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통계청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는 줄은 몰랐다. 정말이지, 그렇게 싫은 내색을 해도 언제나 상냥하고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조사에 응대했다. 한편 생각하면 안 되었다는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나 같으면 정말 이지 못할 것 같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 비유를 아양고양 맞춰 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며 조사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사에 응해주기로 했다.

이제 조사의 끝인가 보다하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방문 하는 것이었다.





침에는 “기본사항 사항만 파악해요” 했는데, 나중에는 가계부까지 쓰게 되었다.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할머니께서 시장에 다녀 오시면 장본 사항 물어서 적어 꼼꼼히 기입해 놓았다. 통계청 아줌마 말대로 텃밭에 채소 먹어도 적어달라고 해서 매일 수확해 먹는 채소로 꼼꼼히 기입했다.

통계청 직원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내 신세를 한탄했다.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 후에도 약재가 겹쳐 병까지 들어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누워 있고 시력이 안좋아 사회생활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비관했다.

365일 매일 매일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생활 했으나, 통계청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생각이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 꼼꼼히 챙길 일이 있고, 내가 스스로 가계부를 쓰면서 번 돈으로 무언가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에게 2만원이 주는 행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하루 종일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은 나로서는 통계청 직원이 올 때 만 되면 기다려진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주고 누나처럼 조언도 해 주고 건강 정보도 어김없이 알려 준다.

요즘에도 매일 문 팔랑이 소리만 들리면 통계청인가 하고 문앞에 어김없이 나와 본다. 폐쇄적 내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준 통계청! 사랑해요~

이웃집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통계청이 나에게 표본가구로 다가와 인연을 맺은 것이 나에게 행운이라 생각한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순수 노력한 대가로 무언가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에게 기쁘고 행복이다.

통계청! 파이팅!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15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농악계 만들어  
가는 내일